국 어

중학교

2



교육도서출판사
주체101(2012)

차 례

읽기교재

1. 불후의 고전적명작 《축복의 노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친히 지으신 가사)

어둡던 강산에 봄을 주시고
조선을 빛내신 아버지장군님
저 멀리 하늘가 포연이 서리면
인민은 안녕을 축복합니다

나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아버지장군님 인민의 수령님
준엄한 전선길 안녕하심은
온 나라 가정의 행복입니다

미제를 쳐부신 영웅의 땅에
락원을 펼치실 아버지장군님
찬란한 조선의 미래를 위해
인민은 안녕을 축복합니다

읽기교재

2. 배움의 천리길

중학교입학검정시험에 대한 산술 제1차 예비시험을 하루 앞둔 어느날 저녁이였다.

이날은 아침부터 궂은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오후에도 비는 계속 내렸다. 해질무렵부터는 하늬바람까지 선들선들 불기 시작하더니 차츰 세차게 불어왔다. 바람은 계속 기승을 부렸고 비는 밤에도 멎지 않았다. 때때로 번개가 번쩍하고는 우뢰소리가 《우르릉 땅땅》 했다.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저녁상을 물리시고 책상앞에 마주앉으시였다. 전같으면 벌써 호철이와 윤병이들이 토방을 울리며 들어올 시간이였다. 그러나 이날은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시험을 앞두고 오늘 저녁에는 서로 묻고 대답도 해보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시한번 풀어보아야겠는데 뜻하지 않은 빗바람때문에 모이지 못하는것만 같았다.

대원수님께서는 책을 보시다가도 동무들이 들어오는것만 같아서 가끔 문쪽을 돌아보군 하셨다. 역시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칠골아이들은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해도 문제 없다고 생각되셨으나 호철이가 걱정이였다.

대원수님께서는 까다로운 제법계산문제를 푸시다가 다시금 호철이의 생각이 떠오르시였다.

(호철이가 이 문제를 바로 풀었을가?)

대원수님의 눈앞에는 산술문제를 풀지 못하고 안타까와하는 호철이의 모습이 나타났다.

대원수님께서는 문을 여시고 밖을 내다보셨다. 비는 계속 내렸고 바람은 백양나무가지를 세차게 흔들었다.

대원수님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실수가 없으셨다. 책을 주섬주섬 거두어 책보에 싸놓으시고는 사이문을 여시였다.

대원수님께서는 길등에 불을 붙여가지고 밖으로 나가 우장을 쓰시고 집을 떠나셨다. 그런데 마을어구도 채 벗어나기 전에 불은

꺼지고말았다. 그리고 휘몰아치는 돌개바람에 우장도 큰 효과가 없었다.

대원수님께서는 한손에는 꺼진 등을 드시고 다른 한손으로는 펄럭이는 우장을 부여잡으시고 어방대고 언덕길을 걸으셨다. 새로 만든 운동장까지는 줄곧 다니시던 길이여서 발짐작으로도 더듬어 올라가실수 있으셨다. 그러나 운동장에서 팔골로 내려가는 길은 익숙되지도 못하셨거니와 매우 험했다. 물웅뎅이도 있었고 미끄러운 언덕길도 있었다. 가끔 번쩍이는 번개가 지나갈 때만 앞이 훤히 보일뿐 캄캄한 어둠속을 줄곧 헤쳐나가야 하셨다.

대원수님께서는 물웅뎅이에 빠지기도 하시고 진흙우에서 주르르 미끄러지기도 하시면서 겨우 팔골에 이르시여 마을을 한번 둘러보셨다. 마을은 죽은듯이 고요하였고 몹시 캄캄하였다. 호철이네 집에서만 창문으로 희끄무레한 불빛이 새여나오고있을뿐이였다.

대원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호철이네 집을 향하여 걸음을 다그치셨다. 어느덧 그 집 토방앞에 이르시였다.

대원수님께서 호철이를 부르시자 그는 밖으로 뛰여나왔다.

《야, 이 밤중에 이게 어찌된 일이야? 그러지 않아두 아까 가려다가 너무 빗바람이 세차서 망설이다 말았는데 그런줄 알았으면 내가 갈걸 그랬구나.》

호철이는 무척 미안해하는것이였다.

《난 왜 너의 집에 못 오니? 미안하지만 발씻을 물이나 좀 떠다다구.》

호철이는 얼른 부엌으로 나가서 소랭이에 물을 떠내왔다.

대원수님께서는 발을 씻으시고 방으로 들어가셨다.

《아니, 이 밤중에 **성주**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찾아왔나?》

호철이 어머니는 눈이 둥그래서 대원수님을 바라보는것이였다.

《호철이와 같이 공부하려구 왔습니다.》

《배우려는 놈이 찾아가야 할걸 배워줄 사람이 그 험한 밤길을 찾아왔구만. 그럴줄 알았더면 아까 가겠다구 할 때 내버려두었을걸 그랬구만.》

호철이 어머니는 머리채를 땋아올리며 연방 혀를 찼다.

《비를 기다릴 때는 안 오더니 쓸데 없는 가을장마가 지려는 모양이군. 옷이 젖었겠는데 호철이 옷이라두 갈아입으라구.》 하며

빨아둔 호철이의 적삼과 잠뱅이를 꺼내놓는것이였다.

《우장을 쓰고 왔더니 괜찮습니다.》

《괜찮다니, 어서 갈아입으라구.》 하며 호철이 어머니는 부엌으로 나가는것이였다.

《자, 옷이 젖었는데 갈아입으라구.》

호철이는 옷을 대원수님앞으로 내놓았다.

《별로 젖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입구있으면 마르겠지. 어서 공부나 계속하자. 이젠 열시는 훨씬 넘었을거야. 너 시험에 자신있지?》

《자신이 뭐야, 이자두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 끙끙거리구 있던판인데.》

호철이는 산술책을 펼쳐놓으며 응용문제에 손가락을 짚어보였다. 《래일 락제했다가는 큰 망신인데.》하며 그는 볼을 살살 긁는것이였다.

《같이 풀어보자.》

대원수님께서는 호철이 책상앞에 다가앉으셨다. 그러나 대원수님께서는 교과서에는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그의 산술학습장을 집어드셨다. 아까 집에서 생각했던 그 계산문제를 제대로 풀었는가 알기 위해서였다. 학습장을 뒤지시던 대원수님께서는 얼굴에 만족한 웃음을 띠우셨다. 아주 정확히 풀어놓았기때문이였다.

《그럼, 그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자.》

대원수님께서는 호철이와 가지런히 앉으시여 산술문제풀이에 달라붙으셨다. 대원수님께서 조금 귀띔을 해주시자 호철이는 제꺽 풀어놓았다.

《야! 그런걸 가지구 한참 애먹었구나.》

호철이는 손가락을 꺾어 《딱딱》 소리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 호철이는 또 다른 문제에 달라붙었다. 이렇게 밤이 깊어가는줄 모르고 학습을 계속했다. 호철이가 어려워하는 문제는 하나도 빼지 않고 풀어나갔고 그가 깨달을 때까지 친절히 설명해주셨다.

이제 몇문제만 풀면 어려운 문제는 모두 풀수 있었다.

《너 졸음오지 않니?》 하고 대원수님께서 물으셨다.

《졸음두 체면이 있지. 래일 시험치겠는데 이제 꿈나라루 바쁜 사람을 끌구가면 어쩌겠니.》

호철이는 대원수님을 바라보며 빙긋이 웃었다. 아닌게아니라 졸음도 천리만리로 달아났는지 호철이의 눈동자는 사뭇 반짝이였다.

《공연히 나때문에 너까지 고생하누나.》

《그런 걱정은 그만둬. 래일 최우등합격만 하면 되는거야.》

이때 호철이 어머니가 삶은 고구마를 가지고 들어왔다. 바가지에서는 김이 몰몰 피여올랐다.

《자, 감자라두 하나씩 들구 공부들을 하게. 뭐 도무지 대접할게 없구만.》

호철이 어머니는 사발에 김치까지 퍼가지고 들어와서 책상우에 놓아주었다. 장난과 싸움밖에 모르던 아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주셨을뿐만아니라 중학교에까지 같이 가게 하시려고 밤낮없이 도와주시며 모진 빗바람을 헤치시고 험한 밤길을 걸어오신 대원수님에 대하여 호철이 어머니는 뜨거운 감사의 정이 넘쳐흘렀던것이다. 그는 이 크고 넓은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알수 없었다.

대원수님께 무엇을 대접하고싶었으나 가난에 억눌린 그는 아무것도 내놓을것이 없었다. 그래서 비를 맞으며 밭으로 달려가 고구마를 캐왔던것이였다.

《어머니, 일하시기에 무척 곤하시겠는데 비를 맞으면서 밭에까지 나가셨댔구만요.》

대원수님의 말씀이시였다.

《내야 뭐 곤할게 있나. 공부하는 임자네들이 수고하지. 저녀석은 요즘 입술까지 텄다네.》

《공부할 때야 그렇게 해야지요 뭐.》

대원수님의 말씀이시였다.

《자! 하나씩 먹구 계속하자.》

호철이는 큰 고구마 한개를 저가락에 꿰서 대원수님앞으로 내놓았다.

《어머니께 먼저 드리려무나.》

호철이는 어머니에게도 드리고 자기도 하나 들었다. 대원수님께서는 호철이 어머니가 드는것을 보시고서야 고구마를 받아드셨다. 고구마맛은 아주 각별하였다.

《저녀석두 정말 중학교시험을 치러 갈수 있을가?》

호철이 어머니가 물었다.

《갈수 있지 않구요, 호철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기에 그러십니까.》

《그까짓게 뭘 잘하겠나. 모두 임자가 그렇게 직심스럽게 배워준 덕이지. 중학교에 붙기야 웬걸 바라겠나만 시험치러만 간대두 얼마나 자랑이겠나. 옛날에 서울루 과거보러 올라가던것만큼이나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겠나.》

두 동무는 밤늦게까지 어려운 문제를 다 풀어놓았다. 학습이 끝나자 대원수님께서는 돌아가려고 하셨다.

《방은 추해도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구 가라구.》

호철이 어머니는 얇은 이불을 내리워주었고 호철이는 굳이 못가게 붙들었다.

그래서 대원수님께서는 하는수없이 호철이와 가지런히 누우셨다.

호철이는 자리에 눕자 코를 골기 시작했다. 조금후에 대원수님께서도 소르르 잠이 드셨다.

대원수님께서 눈을 뜨셨을 때에는 문창이 환히 밝았을 때였다. 호철이는 아직 세상 모르고 깊이 자고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부엌에서 조반을 짓고있었다.

대원수님께서는 책보와 길등을 드시고 소리나지 않게 조용히 문을 여시고 밖으로 나오셨다. 빗바람은 어느덧 멎고 하늘은 맑게 개였다.

(강효순)

△ 새겨읽기

새겨읽기란 글의 내용을 깊이 알기 위하여 단어와 문장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속으로 읽는것을 말한다.

새겨읽기를 잘하자면 먼저 글줄마다 정신을 모아 내용을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글의 내용을 여러번 곱씹어 읽으면서 글의 기본사상이 잘 드러난 부분, 알기 힘든 부분을 찾아 그 뜻을 정확히 익혀야 한다.

또한 어려운 말, 표현들까지 하나하나 풀이하여 글줄의 뜻과 그에 담겨진 내용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3. 총소리

일제《토벌대》놈들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혁철이의 마음은 울고 싶도록 분했다.

그렇지만 순녀를 빼돌린것은 얼마나 다행인가.

남동마을 아동단원들인 혁철이와 순녀는 통신련락을 갔다오다가 일제척후병놈에게 걸려들었던것이다.

(고놈의 다람쥐만 아니였다면…)

혁철이는 돌을 던져도 끔짝하지 않고 앉아있는 다람쥐가 이상하여 나무에 올랐다가 그만 놈들에게 발견된것을 생각하면 분하기 그지없었다.

(순녀만은 무사히 빠져나가야겠는데…)

혁철이는 순녀와 함께 도망치면 둘다 잡힐수 있다고 생각하여 순녀를 몰래 빼돌렸던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바에는 놈들이 무엇하러 어디로 가는가를 알아내자. 그다음에 빠져나갈 궁리를 해보자.)

혁철은 이렇게 생각하며 놈들이 끄는대로 군말없이 따랐다.

그가 놈들을 세여보니 대략 삼백놈은 실히 될상싶었다. 대렬뒤에는 놈들에게 강제로 끌려나온듯 한 농민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따랐다. 맨뒤에서 머리가 흰 할아버지가 탄약상자를 지고 감시병놈한테 등을 떠밀리우며 힘겹게 걸어오고있었다. 놈은 혁철이에게 그 할아버지의 짐을 갈라지웠다.

할아버지한테서 이놈들이 사령부를 향해 몰래 기여든다는것을 알았을 때 혁철이는 온몸의 피가 갑자기 굳어지는것만 같았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혁철의 가슴은 바질바질 끓고있었다. 온몸에서는 땀이 쉬임없이 흘러내리고 몸은 중심을 잃은듯 허둥지둥거렸지만 그속에서도 혁철은 신통한 수를 찾느라고 이리저리 생각을 굴리였다.

그는 일부러 삭정이를 밟아서 《딱》 하는 소리도 내고 넘어지는 척 하면서 돌을 낭떠러지밑으로 굴려놓기도 했다. 그때마다 감시병

놈은 소리는 못 치고 눈깔만 무섭게 흡뜨면서 총탁으로 혁철이의 어깨를 내리치군 했다. 혁철이는 죽어가는 소리로 엄살을 부렸다.

밤새껏 걷다가 날이 샐녘에 혁철이가 주위의 산발을 둘러보니 싸리골이였다. 여기서 동골마을은 십리 남짓하다.

(이놈들이 동골마을로 기여들려는것이 틀림없다. 지금 위대한 장군님께선 그곳에 계실수 있다. …안된다. 절대로 안돼!)

순간 그의 머리에서는 총소리를 내여 장군님께 미리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퍼뜩 떠올랐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순간 혁철의 머리에는 여러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범벅이 되여 돌아갔다.

드디여 휴식구령이 내렸다. 놈들은 군데군데 둘러앉아 아침밥을 처먹기 시작했다. 감시병놈도 총을 겨드랑이에 낀채 볼이 메지게 아가리를 놀리고있다.

(저놈의 총을 빼앗아서?… 그러나 저놈은 잠시도 총을 놓지 않고있다. 그러면?… 그렇지! 도망을 치자! 그래서 저놈들이 나를 쏘게 만들자!)

혁철이는 두주먹을 불끈 쥐였다. 이때 할아버지가 혁철이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얘야, 무슨 좋은 수라도 있느냐?》

혁철이는 할아버지의 귀속말을 듣고서야 의논할 생각을 미처 못한것을 뉘우쳤다.

《할아버지, 제가 도망을 쳐서 총소리를 내게 하겠어요. 놈들이 눈치 못 채게 저만큼 앞서기만 하면 되겠는데…》

《아니, 그러다 총에 맞기라두 하면…》

《총을 쏘지 않을가봐 오히려 근심이예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어떤 결심을 다진듯 혁철이의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근거리는것이였다.

《음, 알만 하다. 나도 목숨을 걸고 힘껏 돕겠다. 아무렴 **김일성**장군님께서 어떤 어른이시냐! 조선의 명줄이 오직 장군님께 달려있는건데…》

이름도 사는 곳도 모르는 이 할아버지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이 어쩌면 이렇게도 꼭같을가. 혁철이는 가슴이 뜨거워났다.

이때 감시병놈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거기서 무슨 말이나 하는가?》

그러자 할아버지가 느릿느릿 대꾸했다.

《이 애 머리가 무겁다기에 시원히 세수를 하라구 했수다.》

그리고는 혁철이에게 뜻있게 눈짓하며 재촉하듯 말했다.

《어서 저 도랑에 가서 세술하고 오너라.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게다.》

혁철이는 기다렸다는듯이 일어나 털모자와 웃저고리를 활활 벗어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도랑을 향하여 성큼성큼 걸어갔다.

혁철이는 도랑에 다달아 홈타기에 몸을 숨기고 얼마간 웃쪽으로 기여가다가 나무가 무성한 산비탈로 날쌔게 기여오르기 시작했다.

한편 할아버지는 지고오던 짐짝을 와락와락 뜯어헤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감시병놈은 기겁을 해서 바라보더니 허겁지겁 달려왔다.

《령감! 정신 나갔는가?》

그놈은 총탁으로 할아버지의 가슴을 밀쳐댔다. 할아버지는 그놈의 총탁을 움켜잡으며 물러앉았다.

《죽고싶은가! 총을 놧!》

감시병놈은 구두발로 할아버지를 힘껏 내찼다. 할아버지는 그만 쓰러졌다. 그러나 그러잡은 총만은 놓지 않고있었다. 할아버지는 혁철이가 끝끝내 살아서 근거지에 갈수 있도록 하려는것이였다.

그새 혁철은 벌써 산등성이에 올라섰다. 문득 할아버지의 일이 걱정되였다. 그래서 인젠 놈들의 주의를 자기한테 끌려고 목청껏 웨쳤다.

《일제놈〈토벌대〉가 기여들어요!—》

그제야 놈들은 혁철이를 보게 되였다. 급기야 몇놈이 뒤따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속옷바람으로 힘껏 달리는 그를 따라잡기는 어렵게 되였다.

혁철이는 계속 목청껏 웨쳐댔다.

《〈토벌대〉가 기여들어요!— 삼백놈이 싸리골에 기여들었어요!—》

놈들은 눈깔이 뒤집혔다. 감쪽같이 행동하려던 제놈들의 비밀을 수자까지 밝혀서 웨쳐대니 신출귀몰하는 **김일성**장군부대가



죄다 듣고 달려들면 또 무리죽음만 당할것이 뻔하다.

표독스러운 얼굴을 한 장교놈이 겁에 질려 짖어댔다.

《단방에 쏴!》

《땅!》

요란한 총소리가 산발을 흔들어놓았다. 그러나 혁철이는 계속 내달리고있었다. 장교놈은 악에 치받쳤다.

《에익, 련발로 쏴!》

몇방의 총소리가 다시 산울림쳐갔다. 혁철이는 다리를 무엇엔지 호되게 얻어맞은듯 한 느낌을 받고 비칠거렸다. 그러나 저는듯 하면서도 나는듯이 산봉우리로 달음쳐갔다. 이제 등성이만 넘으면 된다.

또다시 《따당! 따다당!》하는 총소리가 메아리쳤다. 등성이를

넘어서던 혁철이는 어깨가 시큰함을 느끼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러나 그는 총소리를 울리게 한것이 더없이 기뻤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혁철이는 주위에서 떠들썩하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눈을 떴을 때 주위엔 뜻밖에도 그리운 유격대아저씨들과 눈물이 글썽한 순녀 그리고 자기와 짐을 갈라졌던 할아버지와 농민들이 근심에 잠겨 둘러서있는것이였다.

《아! 아저씨들!… 장군님께선… 장군님께선 무사하셔요?》

혁철이가 다우쳐 묻자 순녀는 너무 반가와서 다른 사람들을 앞질러 대답했다.

《장군님께선 무사하셔. 응, 그리구… 일제놈들두 몽땅 녹아났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지방조직으로부터 《토벌대》놈들이 기여든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놈들을 족칠 작전을 미리 짜두셨댔다는것이다. 그래서 유격대아저씨들이 싸리골에 매복했었는데 때마침 혁철이가 총소리를 내게 했기때문에 몰래 기여드는 놈들을 쉽사리 발견하고 모조리 요정낼수 있었다는것이였다.

혁철이는 눈시울이 뜨거워났다. 그는 비록 적은 힘이나마 위대한 장군님을 목숨으로 보위하는데 바쳤다는것이 더없이 영예롭고 자랑스러웠다.

순녀가 이렇게 덧붙였다.

《자, 어서 동골마을로 가자. 장군님께서 오늘 그곳에 오신댔어.》

유격대아저씨들은 혁철이를 들것우에 눕혔다.

혁철이는 이제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뵐 생각을 하니 가슴이 한없이 부풀었다.

아침해살이 나무가지사이로 부채살처럼 퍼져내렸다.

(문희준)

[속담]

○ 가재는 게편.
　됨됨이나 형편이 비슷한것들이 서로 싸고돌면서 편을 들어주는것을 비판하는 말.

○ 말은 탁해서 다르고 툭해서 다르다.
　말은 상대편이 알아들을수 있도록 억양이나 표현 하나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말.

말하기교재

4. 로동을 사랑하고 일하기 좋아하는 품성을 키우자

이제부터 우리 소년단원들이 로동을 사랑하고 일하기 좋아하는 품성을 키울데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것은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품성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로동이란 무엇이며 로동을 사랑하는것이 왜 소년단원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품성의 하나로 되겠습니까.

로동이란 헐하게 말하여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 필요한것을 만들거나 나아가서는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신이나 힘을 들여 하는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동은 오랜 옛날 인류가 생겨날 때부터 시작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생활과 뗼수 없는것으로 되였습니다. 다시말하여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로동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바로 그 로동을 통하여 자기자체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였으며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만들어내게 되였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생활에 관계되는 물건치고 사람의 로동을 거치지 않은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로동이야말로 사회를 발전시켜온 원동력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로동을 사랑하는것은 사람이 응당 지녀야 할 품성의 하나로 되는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 자본가놈들을 비롯한 착취계급은 로동을 천한것으로 여기고 로동하는 사람들을 천대하고있습니다. 제놈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 값진 물건들이 다 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것인데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천대한다는것은 참으로 배은망덕한짓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로동이 가장 신성한것으로 여겨지고 로동하는 사람들은 존경을 받고있습니다.

그러면 일하기 좋아하는 품성을 왜 어려서부터 키워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일하기 좋아하는 품성을 키워야 어른이 되여서도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일하기 좋아하는 품성을 키워야 로동의 귀중함을 몸으로 느끼게 되고 로동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며 로동으로 이루어진 모든것을 아끼고 사랑할줄 알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로동을 사랑하고 일하기 좋아하는 품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아버지, 어머니들의 일손을 착실히 도와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의 일손을 돕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고 빛내이기 위해서 맡은 일을 더 잘해나갈수 있도록 돕는것으로 됩니다.

다음으로 자기 학교와 고향, 거리와 마을을 알뜰하게 꾸리는 일에 적극 떨쳐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학교와 고향, 거리와 마을을 알뜰하게 꾸리는것은 거기에 깃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이는 영예로운 일이며 충실성을 키워가는 보람찬 일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나라에 보탬을 주는 좋은 일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

토끼기르기, 철도를 돕는 일, 나무심기와 같은 좋은 일을 많이

하는것은 나라에 큰 보탬을 줄뿐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모두 로동을 사랑하고 일하기 좋아하는 품성을 키움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된 소년단원으로 더 잘 준비해나갑시다.

글짓기교재

5. 강으로 간 붕어

소낙비가 그치니 평양의 거리는 한결 더 상쾌하였습니다.

그림판의 끈을 어깨에 걸고 한손엔 물그릇을 든채 나는 동생을 데리고 대동강가를 걸었습니다.

학교에서 열리는 그림전람회에 아름다운 대동강의 풍경을 멋있게 그려서 내놓고싶었던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해무리를 두른 태양이 뜨거운 볕을 쏟아붓습니다. 해빛을 받아 달아오른 모래불은 더운 김을 확확 뿜어올립니다. 더운 김이 서려있는 강변 저쪽에서는 아지랑이가 아물거립니다. 푸른 주단처럼 쫙 깔린 동뚝의 잔디밭가운데엔 갖가지 꽃들이 곱게 피였는데 그우로 꽃나비들이 춤을 추며 날아돕니다.

강쪽으로 바투 내민 언덕아래에는 물버들이 휘늘어지고 그속에선 꾀꼴새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그에 화답이나 하듯이 매미들이 요란스럽게 울어 여름의 아름다운 풍경을 더해줍니다. 강건너 벼랑숲속에서 튀여오른 수십마리의 새들이 하늘높이 떠서 푸른 하늘을 자유로이 날으고 강 한복판에서는 물오리떼들이 한가로이 숨박곡질을 합니다.

나는 대동강가의 아름다운 정경에 홀리여 한참동안이나 강기슭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강기슭의 굽인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앞에서 걸어가던 동생이 별안간 《형, 붕어!》 하고 다급하게 소리치며 달려가는것이였습니다.

움푹 패인 책상넓이만 한 웅뎅이에 물이 자박자박하게 고였는데 몇마리의 새끼붕어가 흰 배를 드러내놓고 팔딱팔딱 뛰고있었습니다.

새끼붕어들은 우리의 발자국소리에 놀랐는지 더욱 요동을 쳤습니다.

동생은 뽀르르 달려가 두마리의 붕어를 잡아들고 좋아서 어쩔줄 몰라하였습니다.

《얘, 그러면 붕어가 죽어. 빨리 놔둬라.》

나는 얼른 물그릇을 들고 강가로 달음박질해갔습니다.

순간 나의 머리에는 모든 강과 호수들에 물고기가 욱실거리게 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이 떠올랐던것입니다.

나는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붕어들을 그릇에 집어넣었습니다. 물그릇에 담긴 붕어들은 꼬리를 치며 빙빙 돌아갔습니다.

《형, 나 집에 가지고가서 놀래.》

동생은 고기들이 노는것을 재미있게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정식아, 너 학교에서 배웠지. 새끼고기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걸…

선생님은 이런것이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늘 말씀하시지 않니.》

《응, 알겠어. 내 손으로 놓아줄테야!》

동생은 동그란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고기가 든 물통을 통채로 강에 쏟았습니다.

붕어들은 멀리에 가지 않고 물속에 잠긴 동생의 다리사이를 빠져다니며 즐겁게 헤염치고있었습니다.

동생은 기쁜듯 얼굴에 웃음을 담고 속삭이였습니다.

《아마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모양이지.》

나도 붕어에게 말하듯 속으로 웨쳤습니다.

(마음껏 헤염치며 놀아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아름답게 꾸려주신 대동강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해주거라.)

나는 붕어에게서 눈을 떼고 천천히 머리를 들었습니다.

강건너편 버랑숲속에서 불어오는 실바람이 강우를 스쳐갑니다. 하늘에서는 태양이 자글자글 끓습니다. 온갖 물고기떼들이 꼬리치

는 대동강의 맑은 물결은 쉼없이 기슭을 찰싹찰싹 두드리면서 흘러 갑니다.

강기슭 모래불에 자리를 잡은 나는 대동강의 풍경을 그림종이에 옮겨놓기 시작했습니다.

△ 소재찾기

소재란 글의 내용으로 될수 있는 사실, 자료들을 말한다. 소재를 잘 마련하는것은 좋은 글을 쓸수 있는 밑천으로 된다.

소재는 자기가 잘 아는 주위생활속에 있다.

소재를 찾자면 자기의 생활이나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관찰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과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 좋은일하기 등은 다 글이 될수 있는 자료로 된다.

소재는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참가하고있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의 힘찬 투쟁모습에서도 찾을수 있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책을 읽고 영화, 연극, 가극 등을 보는것도 소재를 마련하는 좋은 일로 된다.

읽기교재

6. 조국의 미래가 웃고있었네

매지나무가지에 별이 총총 열린 밤
백두산을 내리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해방의 해빛 안고 오신 밤
아이들은 샘물가에 모여앉았네

바람도 풀숲에 고요히 잠들고
압록강의 물결소리 한결 정다운데
꼴머슴의 멍든 어깨 쓸어주시며

지주집 부엌데기
설음 맺힌 눈물도 닦아주시며
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이야기 들려주시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백두산발을 주름잡으시며
원쑤 일제 쳐부시는 신나는 이야기
밝은 해살 넘치는 아동단학교로
아이들을 불러주신 사랑의 이야기

마디마디 뜨거운 그 이야기에
아이들의 눈동자도 별처럼 총총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백두산을 그려보며
희망에 넘쳐 샛별이 총총

어머님께서는 한없이 행복하셨네
피눈물 마를새 없던 아이들의 볼에
따스한 두볼을 비비시는 밤
터갈라진 부엌데기 작은 손
어머님의 두손을 뜨겁게 잡는 밤

아, 그날 따라
조국의 하늘엔 별들이 웃고
어머님의 품에선
위대한 장군님의 애기별들 빛나고있었네
조국의 미래가 웃고있었네

(림금단)

읽기교재

7. 난 로 불

(남철이가 난로당번인데 나왔을가?)

훈이는 걱정주머니가 또 커지기 시작했다. 눈앞에 배불뚝이난로가 자꾸만 얼른거렸기때문이다.

그때는 전후복구건설시기여서 도시학교들에서도 난로불을 피웠다.

훈이는 지금 난로불이 걱정되여 아침 일찌기 학교로 가는 길이다.

여기저기 구름이불을 덮은 별들은 쌔근쌔근 잠들었지만 덮지 못한 별들은 추워서 바르르 떠는것 같았다. 하늘의 별들이 내려앉은듯 전기불이 환한 건설장방송에서 복구건설의 우렁찬 노래소리가 울려퍼졌다.

훈이는 노래소리에 발을 맞추었다. 땀이 나는지 동그란 토끼털귀걸이를 훌 벗어 휘휘 저으며 담차게 걷더니 솜옷단추까지 활짝 열어제꼈다.

훈이는 난로불이 잘 피고 안 피는것이 학급장인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얼마전에 전학해오신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을 모시고 공부하는 기쁨을 안고있는 훈이였으니까.

학교에 등교하시던 첫날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그 손길, 활달하신 몸가짐, 영채도는 두눈…

정말 훈이는 마음의 전부가 끌리였다. 그래서 훈이의 마음은 난로불에 더 가는것 같다. 학급장인 자기의 솜씨가 그 난로불에서 보이는것처럼…

그런데 어제 당번인 남철이의 잘못으로 난로가 체기를 받을줄이야!

어제 아침이였다.

훈이가 교실에 들어서니 뽀얀 내굴이 꽉 들어찼다.

난로에서는 기관차굴뚝처럼 내굴이 뭉클뭉클 솟구쳤다. 난로밑을 들여다보니 장작이 꽉 메였다. 남철이가 난로에 장작을 너무 많이 쓸어넣었던것이다.

에이, 정말 한심해. 난로불 하나 볼줄 모르는 머저리같은거. 이틀째 불을 죽이니 어디… 당번이라는게 늦게 나오니 그렇지.… 어머니핑게만 대면서…

훈이는 난로옆에 서있는 남철을 흘겨보다가 그를 밀치고 급히 장작을 꺼냈다. 그리고 난로밑에 있는 아궁이앞에 무릎을 꺾고 엎디였다. 궁둥이가 우로 솟았다. 푸—푸— 있는 힘을 다해 불었으나 불길은 오르지 않고 연기가 콱 몰켜나와 훈이의 코구멍과 두눈을 쿡쿡 찔러주었다.

《캑, 캑.》

훈이는 기침을 연거퍼 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눈을 비비고 다시 불었다.

이때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서다가 《애취, 애—취.》 했다. 제자리에 앉았다가 일어서던 키 큰 아이의 머리는 연기속에 쑥 들어갔다. 그러자 그 애는 얼른 앉았다. 연기가 점점 낮아졌다. 어떤 애들은 연기를 피해 책상우에 엎디고 어떤 애는 책상밑으로 기여들어갔다.

이때 소년단실에 들리셨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교실에 들어서시였다.

대원수님께서는 교실을 둘러보시고 놀라시였다. 그러시더니 난로로 다가가시였다. 어떻게 하셨는지 불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좋아라 박수까지 쳤다.

한참 지나서 연기도 사라지고 난로안에서 뿌직뿌직 석탄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훈이의 마음을 더 흔들어놓았다.

훈이는 남철이를 쏘아보았다. 왜 난로불 하나 제대로 피우지 못하여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매일 아침 불을 보시게 하는가고 따지고싶었다. 그러나 수업이 인차 시작되여 말도 못하고 그저 남철이에게 주먹만 흔들었던것이다.…

훈이는 어제 일을 생각할수록 가슴속에 불뭉치같은것이 꿈틀거렸다. 어제 남철이를 줴박지 못한것이 분했다.

(두고보자. 오늘은 버릇을 떼고야말겠다.)

훈이는 달음쳐 학교운동장에 들어섰다.

학교청사를 보니 교실마다 창문으로 굴뚝들이 삐죽삐죽 나온것

이 어슴푸레 보였다. 마치 군함에 있는 대포같았다. 당장 꽝 하고 포알들이 나올것 같았다.

자기 교실 창가로 눈길을 돌리던 훈이는 깜짝 놀랐다.

교실에 벌써 불이 켜진것이였다.

(남철이가 벌써 나타났구나!)

훈이의 가슴속에서는 기쁨의 물결이 처절썩거렸다.

훈이는 교실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난로 저쪽에서 불을 피우는 남철이의 잔등이 보였다. 그는 난로로 다가갔다.

《남철아, 수고했어. 정말…》

그러나 남철이는 머리도 들지 않고 난로밑만 들여다보았다.

《얘, 이젠 좀 쉬라마. 내가 할테니. 자 어서, 빨리.》

훈이는 그의 잔등을 툭 쳤다.

《하하하…》

호탕한 웃음소리에 훈이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우뚝 서버리고 말았다.

《아니?!》

난로불을 보시는분은 뜻밖에도 경애하는 대원수님이시였다.

《아니?! 분단위원장동무가 어떻게…》

훈이는 입을 딱 벌리며 어쩔줄 몰라했다.

추운 날씨에 혼자서 석탄과 흙을 파오시고 물을 길어오시고 재를 털어내신 경애하는 대원수님!

훈이는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또 학급장구실을 제대로 못했구나.)

훈이는 이런 생각을 하며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바라보았다.

시원한 이마우로 흘러내린 몇오리의 머리카락, 별빛같이 반짝이는 눈, 광채가 뿜어져나오는 두눈밑에서 시원스레 웃는 입, 팔을 걷어올리고 단추를 열어제낀 수수한 대마직학생복과 팔소매에서 흔들거리는 분단위원장열성자표식…

그 모든것은 훈이를 당황케 했다.

《난… 남철인줄…》

《아 됐어됐어, 우리 함께 하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훈이의 손을 끌었다.

훈이는 급히 난로앞에 앉았다. 훈이는 마음이 조급해나서 옆에

있는 장작을 얼른 난로밑에 넣었다.

《아니 훈이야, 또 체하겠어.》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훈이를 바라보시더니 불쏘시개를 아궁이에 넣으시고 불을 붙이시였다. 빨간 불길이 날름거리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우에 장작을 한가치씩 올려놓으시였다. 불길은 점점 세게 오르기 시작했다.

훈이는 입을 하 벌리고 재미나게 구경하였다. 정말 그 솜씨가 보통이 아니였다.

장작의 빨간 불길이 석탄을 달구기 시작했다. 불길은 난로안에서 활—활— 소리까지 냈다. 배불뚝이난로가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한참만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훈이에게로 돌아서시였다.

《난 저 빨간 불길이 아이들의 웃는 얼굴같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창밖으로 시선을 옮기시였다.

《난 그래서 동무들이 공부를 잘할수만 있다면 매일이라두 난로당번을 서고싶어, 매일이라두.》

《매일이라두?!》

훈이는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쿵— 하고 울리는것 같았다.

(그래서였구나!)

난로당번을 처음 짤 때였다. 담임선생님과 훈이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당번에 넣지 않았다. 그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귀가에 쟁쟁히 울려왔다.

《선생님, 저라고 왜 당번을 서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저도 난로당번을 서겠습니다. 동무들을 위해서…》

훈이는 그 말씀이 떠올라 가슴이 후더워올랐다.

《분단위원장동무!》

그는 대원수님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래서 오늘은 남철이대신…》

그의 두눈에 물기가 핑 어렸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교탁의 먼지를 닦으시며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런데 왜 우리 난로불이 제대로 피지 않았을가? 그건 다 동

무들을 위해, 학급을 위해 자기를 바치려는 마음들이 모자랐기때문이라구 생각해. 그래서 남철이두…》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말씀은 훈이의 가슴을 쿵쿵 울려주었다. 훈이의 가슴속에서는 그 무엇인가 뜨거운것이 꽉 차오르는것 같았다.

(난… 난… 그저 남철이를 윽박지르기만 했어. 또 학급장이라고 난로당번을 서지도 않구…)

교실은 물속처럼 조용해졌다. 뿌지직 석탄타는 소리가 울릴뿐이였다.

이때였다.

《흑…》 하고 흐느끼는 소리가 문가에서 들렸다.

《아니?!》

그쪽으로 머리를 돌리던 훈이는 두눈이 동그래졌다.

등에 불살개나무를 한짐 진 남철이가 서있는것이 아닌가. 남철이는 떠듬떠듬 입을 열었다.

《분단위원장동무, 내가… 내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남철이를 반기시였다.

《남철이구나. 어서 여기 와 불을 쪼이렴. 춥겠구나. 어머닌 좀 어떻니?》

《어머닌… 분단위원장동무가 가져온 약을 잡숫구 일어났어. 오늘 아침엔 난로불을 꼭 살리라고 불살개나무까지 패주었어. 좀 더 일찌기 온다는게 이 나무때문에…》

《응?!》

훈이는 몹시 놀랐다.

(분단위원장동무가 준 약이라니?!)

남철이는 머리를 들었다.

《어제 저녁 분단위원장동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난… 난…》

그 말에 훈이는 가슴이 후더워올라 속생각까지 다 털어놓고야 말았다.

《난… 오늘 아침 내가 불을 살릴 생각은 못하구… 남철이의 버릇을 떼주겠다구만… 만약 아침에 남철이가 일찌기 나오지 않았으면 집에 찾아가려구…》

훈이가 여기까지 말했을 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으시였다.

《훈이야, 남철아,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구나. 난로당번을 서는가 안 서는가가 문제가 아니야. 동무들을 위한 귀중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거지. 오늘 너희들은 교실의 난로불보다 더 뜨거운 마음의 난로불을 피웠어.》

《마음의 난로불…》

두 아이의 목소리는 감격에 젖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다시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니. 난 우리 학급, 아니 우리 학교, 온 나라 아이들을 위한 이런 난로불을 계속 피우고싶어!》

훈이는 마음속으로 웨쳤다.

(나도 난로당번을 설테야.)

창밖에서는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려 이 땅을 포근히 덮어주고 있었다.

(장혁)

△ 소설읽기

소설읽기에서 중요한것은 바탕글을 잘 읽는것이다. 소설의 바탕글은 입말식읽기투를 기본으로 하면서 느낌식입말투, 설명식입말투를 적절히 섞어 읽어야 한다. 바탕글읽기에서는 특히 묘사부분을 잘 읽어야 한다. 심리묘사는 인물들이 느끼는 사상감정을 잘 살려 읽어야 한다. 행동묘사는 인물의 행동선을 따라가며 실감있게 읽어야 한다. 자연묘사는 인물들의 내면세계와의 련관속에서 읽어야 한다. 초상묘사는 인물의 생김새를 마치 살아있는 실지인물을 그대로 소개하듯이 읽어야 한다.

다음으로 소설읽기에서 중요한것은 대사형상을 잘하는것이다. 대사는 그 인물만이 할수 있는 독특한 말투로 읽어야 한다. 목소리는 인물의 성격에 맞게 내며 인물의 감정이 변하는데 따라 소리빛갈도 맞추어야 한다.

소설읽기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바탕글과 대사를 하나의 흐름속에서 잘 결합하여 읽는것이다.

읽기교재

8. 백두산일대의 폭포들

우리 혁명의 깊고 억센 뿌리가 내려 그 이름도 자랑높은 백두산과 **정일**봉을 둘러싸고 연줄연줄 솟아오른 천만산악들은 일만경치를 다 갖추고있어 절경중의 절경으로 널리 불리우고있다.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높이 솟아 하늘에 닿을듯 한 산세의 웅장한 모습, 수천길 벼랑과 깊은 골짜기며 천가지 맵시와 만가지 모양을 이룬 바위들, 장하고도 시원스러운 폭포들과 끝없이 펼쳐진 밀림의 바다, 유별난 고산식물들…

이 모든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백두산일대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특이한 자연풍치를 이루고있다.

산천초목 하나하나가 다 사람의 눈길을 끌지 않는것이 없지만 백두산일대의 폭포들은 또한 그 얼마나 볼만 한것인가.

사기문폭포

백두산 장군봉에서 길을 따라 서남방향으로 약 2㎞정도 가느라면 백두산천지에 뿌리를 두고 샘솟아 오르는 물줄기를 볼수 있다.

여기가 바로 압록강이 시작되는 곳이다.

고산지대초원의 풍경이 펼쳐진 무연한 부석층에 유독 한그루의 이깔나무가 서있는 이 발원지에서 압록강의 흐름을 따라 300m쯤 내려오면 강왼쪽기슭에서 흘러들던 이 강의 가지흐름과 줄기흐름이 합쳐지는 곳이 나진다.

이 합류지점에 사기문폭포가 있다.

세 계단에 걸쳐 층층이 비단필이 흐르듯 부드럽고도 장쾌하게 흘러내리는 이 폭포는 매 단의 높이가 대략 5m정도로서 총 높이는 18m에 달한다.

떨어지는 폭포수에 의해 이루어진 물웅뎅이의 깊이는 한길이 넘는다.

폭포는 압록강상류의 첫 합류지점에 이루어진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끄당긴다.

어찌 보면 재간있는 석공이 층층 세 계단으로 바위홈을 깊숙이 파내고 그 맨 꼭대기에서 수정같이 맑은 천지의 물을 부어놓은듯싶어 보면 볼수록 새롭고 쉬이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게 하는 뛰여난 경치이다.



지난 시기 이 폭포는 3단폭포로 불리웠는데 주체77(1988)년 8월 이 폭포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사기문폭포라고 그 이름을 고쳐주시였다.

사기문폭포, 이 이름은 3대혁명인 사상, 기술, 문화에서 첫자들을 따다 모아 지은것이다. 그러니 사기문폭포는 그 장쾌한 모습에서뿐아니라 뜻깊은 이름에서도 강성대국에로 힘차게 내닫는 우리 인민의 기상과 필승의 신념을 담고있는것이다.

백두폭포



사기문폭포의 장쾌한 물소리를 들으며 압록강을 따라 500m가량 내려가면 백두폭포가 새로운 절경을 펼친다.

경사가 급하고 천태만상을 이룬 바위벽을 따라 흘러내리는 이 폭포는 폭이 넓고 물 떨어지는 소리가 웅장한것이 특징이다.

그 높이는 18m정도로서 쏟아지는 폭포수에 의해 생긴 물웅뎅이의 깊이는 2~3m정도이다.

폭포수앞에 서면 무더운 여름철 한낮에도 순간에 몸을 식혀줄듯 끝없이 시원하고 상쾌하다.

쳐다보면 사품쳐 내리는 폭포수가 흰 물갈기를 뽀얗게 날리는데 그것이 해빛을 받아 아름다운 칠색무지개를 펼쳐놓는다. 금수강산이라 불리우는 우리 조국의 아름다움을 예서 다 보는듯이…

리명수폭포

포태에서 길을 따라 리명수골안에 내려서느라면 첫눈에 절경으로 펼쳐지는것이 리명수폭포이다.

긴 벼랑구간의 중턱 곳곳에서 샘줄기가 바위짬으로 솟구쳐올랐다가 수천수만갈래로 흩어져 벼랑을 타고 쏟아져내리는 이 폭포는 백두산기슭의 이름난 폭포중의 하나이다. 이 폭포는 백두산천지의 물줄기가 땅속으로 흐르다가 리명수골짜기의 언덕마루부근에서 솟아올라 형성된 널린 폭포로서 물량은 초당 0.8㎥에 달한다.



5개의 폭포군을 이루고있는 폭포의 높이는 15m에 달하며 너비는 27m나 된다. 폭포는 언제 봐도 뽀얀 물안개를 날리고있어 여름에도 볼만 하지만 겨울의 풍경은 더 매혹적이다. 겨울이면 벼랑중턱으로부터 주련이 내리달리는 고드름과 밑으로부터 만물상을 이루며 솟아오르는 수천수만의 얼음기둥들, 실안개마냥 피여오르는 물김, 폭포주변의 나무가지에 늘 하얗게 피여있는 서리꽃이 하나로 어울려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이룬다.

또한 물량이 제일 많은 폭포의 오른쪽 꼭대기에는 날아갈듯 한 정각이 솟아있어 폭포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해주고있다.

참으로 혁명의 성지의 절경을 이루는 백두산일대의 폭포들은 우리 나라의 또 하나의 자랑이다.

글짓기교재

9. 조국의 초소를 굳건히 지키고있는 인민군대아저씨에게

인민군대아저씨, 안녕하십니까?

아저씨는 지금 이 시각에도 조국땅에 원쑤놈들이 한놈도 기여들지 못하게 초소를 굳건히 지키고계시겠지요.

저는 조선인민군창건절을 맞으며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켜선 아저씨에게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드립니다.

편지를 쓰는 저의 눈앞에는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비오는 깊은 밤에도 바람사나운 이른새벽에도 조국의 눈이 되여 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아저씨의 미더운 모습이 삼삼히 떠오릅니다.

우리는 아저씨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놈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선생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인민군대는 강철의 군대, 일당백의 군대입니다.

아저씨들이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굳건히 지키고있기에 주체조선의 사회주의전취물은 그토록 빛나는것이며 우리 인민은

원쑤놈들의 그 어떤 침략책동에도 끄떡없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미래의 꿈을 안고 마음껏 배우며 행복하게 자라나고있는것입니다.

영웅의 군대, 일당백의 군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4.25를 맞을 때면 더 한껏 부풀어오른답니다.

이날을 앞두고 온 나라의 거리와 마을, 일터마다가 기쁨으로 흥성거리고있는 가운데 우리 학교에서도 여러가지 일을 벌리고있습니다.

우리는 군적으로 진행되는 학과경연에서 1등의 영예를 지니기 위해 여느때보다 공부에 열중하고있으며 인민군대아저씨들에게 안겨줄 꽃다발과 다채로운 예술소조공연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저도 독창련습에 시간가는줄 모른답니다.



우리들은 또한 인민군전사자가족과 영예군인, 인민군후방가족들을 도와주는 일도 잘해나가고있습니다.

정말 4월 25일은 군대와 인민이 모두 기뻐하고 즐기는 경사스러운 명절입니다.

인민군대아저씨, 지금도 미제와 그 앞잡이놈들은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미쳐날뛰고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짓밟으려는 원쑤놈들을 쳐부시기 위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선생님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주십시오.

우리들도 학습과 소년단생활을 더 잘하며 몸과 마음을 튼튼히 키워 아저씨들의 뒤를 이을 인민군용사로 억세게 자라나겠습니다.

그럼 다시한번 조국의 초소를 철벽으로 지켜줄것을 부탁하면서 이만 쓰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년 4월 20일

동천중학교 2학년 문정혁 올림

△ 글의 체계세우기

글짓기에서 내용을 펴나갈 순서를 짜는 일을 글체계세우기라고 한다. 설계를 잘해야 좋은 집을 지을수 있는것처럼 글짓기에서도 글체계를 똑바로 세워야 내용이 뚜렷하고 명백한 글을 쓸수 있다.

글의 체계는 자기가 쓰려는 글의 형태적특성에 알맞게 세워야 한다. 일기, 편지, 감상문, 이야기글 등 여러 글들은 다 저마끔 다른 특성을 가진다.

글의 체계는 보통 글머리, 기본내용, 맺는말로 세운다.

글머리는 글을 시작하는 부분이다. 글머리는 제목과 내용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글머리는 내용과 글형식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뗀다.

기본내용은 글의 기본골격을 이루는 부분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내용을 펴나가게 된다. 기본내용은 글의 형식에 맞게 흥미있게 써야 한다.

맺는말은 글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맺는말은 짧으면서도 여운있게 맺어야 한다. 맺는말도 글의 형식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맺는다.

10. 우리 당의 그 이름

조용히 불러봐도 제일이야요
우리 당의 그 이름 빛나는 이름
소리쳐 불러봐도 제일이야요
우리 당의 그 이름 빛나는 이름

걸어온 길 돌아봐도 자랑스럽죠
나아갈 길 바라봐도 신심 넘치죠
김일성대원수님 그 위업 이어
김정일장군님 높이높이 모신 당

주저앉던 사람들은 그 이름 불러
붉은기를 높이 들고 일떠서고요
갈길 잃은 사람들은 그 이름 불러
단결의 대오로 뭉쳐나가요

원쑤들이 벌벌 떠는 조선로동당
누구나 어머니로 떠받드는 당
밀려드는 풍랑도 두려움없이
백전백승 기치들고 나아가는 당

(오흥수)

11. 장군님과 소년들

주체36(1947)년 8월 어느날이였다.

중앙민청에서 학생소년사업을 맡아보고있던 나는 그날 온 나라의 여러곳에서 뽑혀온 100여명의 모범소년단원들을 데리고 금강산에 갔다가 야영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왔다.

야영을 마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13명의 소년들이 차시간을 기다리느라고 잠시 우리 집에 머물러있었다.

그들은 우리 집에 짐을 내려놓기 바쁘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을 뵙게 해달라고 졸라대였다.

창성에서 온 열세살 나는 소년은 눈물까지 글썽해서 나를 쳐다보며 《선생님, 먼데서라도 좋아요. 장군님을 뵙게 해주세요.》 하고 애원하다싶이 조르는것이였다.

소년들은 내 팔을 붙들고 발을 동동 구르기까지 하였다.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베풀어주신 따뜻한 사랑과 은정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정을 못이겨하는 구김새 없는 마음의 표현이라는것을 나는 잘 알고있었다. 그러기에 소년들의 그처럼 간절한 소원을 해설 몇마디로 딱 막아버릴수는 없었다.

나는 문득 그들의 소원대로 먼데서라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뵈올수 있도록 해볼수는 없을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을 데리고 중앙당으로 갔다.

당중앙위원회청사 앞길에 이르자 나는 정문 맞은켠에 소년들을 줄지어 세웠다.

얼마동안 기다렸다. 차가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타신 차가 아닌가고 묻군 하였다. 이제나저제나 하며 기다리고있는데 이윽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타신 차가 달려왔다.

《얘들아, 장군님께서 오신다!》

나는 흥분된 가슴을 억누르면서 소년들에게 나직이 말하였다. 차는 곧바로 오다가 중앙당정문으로 돌아들어가는것이였다. 그 순

간 자나깨나 마음속에 그리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모습을 뵙게 된 아이들은 질서를 지키겠다던 굳은 약속도 잊고 차가 방금 지나간 길 한복판으로 왁 달려나가는것이였다. 나는 급히 그들을 길옆으로 불러세우고 이젠 그만 돌아가자고 타일렀다. 그러나 그들은 좀처럼 그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고 청사만 바라다보고있었다.

이때 한 군관이 나오더니 어데서 온 학생들이며 무슨 일로 왔는가를 알아보고 정문으로 다시 들어갔다.

얼마후 다른 간부동지가 나왔다. 그는 우리에게 《지금 장군님께서 동무들을 만나주시겠답니다.》하고 말하는것이였다. 소년들은 일제히《야!》하고 환성을 올리며 서로 손을 마주잡고 깡충깡충 뛰였다.

소년들과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사무실앞까지 갔을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친히 문앞까지 나와계시였다.

《아, 어린 동무들이 용케 왔구만, 어서들 들어오너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정하신 눈길로 아이들을 바라보시며 어서 앉으라고 자리까지 권하시였다. 소년들은 제각기 자리를 정하고 앉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첫줄에 앉은 소년부터 차례로 어데서 왔으며 이름은 무엇인가, 아버지는 뭘 하시는가, 식구는 몇인가 등 그들의 집안형편을 하나하나 물으시였다. 학생들은 모두가 활발하고 례절바르게 대답을 올렸다.

맨끝에 앉았던 꼬마의 차례가 되였다.

《학생은 어데서 왔지?》

《창성에서 왔습니다.》

《아버지는 무얼 하시고?》

《농사를 짓습니다.》

《음, 창성에서 왔다?》

꼬마의 옹골찬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바른손등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시며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시는것이였다.

《해방전에 우리가 빨찌산투쟁할 때 창성에도 다녔는데 그때는 소금이 아주 귀했다.… 그래 집에서는 소금을 어느달에 공급받았지?》

《3월달에 받았습니다.》

소년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양복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시여 무엇인가 적어넣으시였다. 그리고 수화기를 드시고 산업국을 찾으시고는 계속하시여 교통국을 부르시더니 창성군에 소금을 더 보내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시금 다정하신 웃음을 띠우시고 소년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시였다.

《어린 동무들은 모두다 우리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구만… 그래 학생들은 여기가 어딘지 알아?》

《당중앙위원회입니다.》

《옳아, 그런데 로동당은 무엇을 하는 당이지?》

《로동자, 농민의 리익을 대표해서 투쟁하는 당입니다.》

《옳아, 옳아! 학생들은 모두 잘 아는군, 참 용해, 그래 이번에 금강산에 가서 잘들 놀고 왔나?》

《예, 잘 놀았습니다.》

소년들의 야영생활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금강산엔 어데서 보내주었는가고 다정하게 물으시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소년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다같이 큰소리로 대답을 올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것이 다 로동당의 덕분이라고 하시면서 학생들의 노래를 들어보자고 말씀하시였다. 소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불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박수를 쳐주시며 칭찬을 해주시였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시계를 보시더니 부관을 불러 영화를 두어가지 마련하도록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소년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좋아서 어쩔줄을 몰라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가서 영화구경을 하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소년들을 량팔에 껴안으시고 회의실로 들어가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소년들을 곁에

앉히시고 그들을 다정히 쓰다듬어주시며 무어라 말씀도 하군 하시였다.

뒤쪽에 앉았던 나는 영화보다도 소년들에게 둘러싸여 마치 친부모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모습에서 눈을 뗄수가 없었다.

영화가 끝났다. 소년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과 헤여질 시간이 되였다. 그런데도 소년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곁을 떨어질줄 몰라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도 소년들과 헤여지기 아쉬워하시면서 하나하나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였다. 그리고 오래오래 손을 흔드시며 우리를 바래주시였다.

이날 밤 소년들은 밤깊도록 자지 않고 일기책에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뵈온 꿈같은 행복에 대하여 적어넣는것이였다. 그들은 금강산야영생활의 15일간에 쓴 량보다 더 많은 내용을 썼던것이다.

소년단원들이 평양을 떠난지 얼마 안되여 나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그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어떤 편지는 참으로 감격없이는 읽을수 없었다.

나는 이미 헤여져간 소년단원들을 향하여, 아니 전체 우리 나라 어린이들을 향하여 마음속으로 웨쳤다.

(너희들은 마음껏 자랑하여라. 어머니의 품보다 더 따뜻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품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너희들의 앞길은 창창하다!)고.

(심종운)

12. 까까머리학생

《자, 그러지 말고 어서 이리 와. 내 잘 깎아줄게. 어서!》

어머니가 가위와 빗을 들고 영남이를 쫓아다니며 하는 말입니다.

《아이! 난 싫어요. 까까머리 난 싫어요!》

《내 기계처럼 아주 보기 좋게 깎아줄게. 자.》

어머니는 아들 하나를 오전짜리 행상리발에나마 깎이지 못하고 또 그때문에 체조선생에게 벌까지 당하게 한것이 마음에 찔리여서 처음부터 이렇게 달래고있는것입니다.

《자, 이것 봐. 오죽 잘 깎이니. 아프지두 않구. 행상리발은 따끔따끔 뜯어 아프다.》

《어머니, 층층머리되문 난 몰라요.》

《응, 걱정말래두.》

어머니는 이렇게 얼리면서 솔발처럼 좋은 영남의 머리칼을 소담스럽게 썩뚝썩뚝 잘라냅니다. 때때로 리발사처럼 가위장단도 맞추며…

한참동안 잘 깎이우고있던 영남이는 무슨 생각이 났는지 《어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왜?》

《저 아까 돼지뜨물 판 돈 닷돈을 어떻게 했어요?》

《있지, 왜?》

《그걸루 나 머리 깎았으면 해서 그래요.》

《응, 그건 누나 밥곽찬 사주어야 할 돈이다. 오늘두 밥만 가지구 갔다.》

《그래요?!》

영남이는 어머니 고름끈에 매여있는 돈 오전의 쓸 곳을 그제야 알았다는듯이 머리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리고 여직껏 떼쓴것이 후회도 나고 어머니 속태운것이 마음에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가위자리 안 나게 잘 깎아줘요.》

《오냐, 념려말래두.》

《어머니, 나 학교가서 동무들로부터 놀림을 받으면 몰라요. 까까머리라구.》

암만해도 동무들에게 놀리울것이 마음에 걱정스러운 모양이였습니다.

《놀림을 당하면 뭐라니, 놀리면 난 가난뱅이돼서 가위루 머리를 깎았다 그러렴. 뻐젓하게.》

이렇게 모자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머리를 깎고있었습니다.

어느덧 머리를 다 깎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손재주가 제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리발소에서 깎은것과 비기겠습니까. 가위자리가 우슬럭두슬럭나고 아무래도 보기 흉했습니다.

그러나 영남이는 깎은 뒤에 억지는 쓸데없음을 잘 알기때문에 그저 잠잠히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영남이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학교에 가긴 가지만 속으로 조바심을 느꼈습니다. 별별 생각이 다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애들이 까까머리라구 날 놀릴테지. 놀리면 뭐라나. 그냥 뻐젓이 앉아있지.

그래두 모두들 히히, 하하 웃고 떠들면 부끄럽지. 웃겠으면 웃으라지. 모자를 그냥 쓰구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며 걷는 동안 어느덧 학교에 다달았습니다.

첫 시간은 수학시간, 선생님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영남이네 4학년 교실안에서는 무슨 우스운 일이 생겼는지 왁짝 떠들고있습니다.

《얘! 너 거 얼마짜리 머리 깎았니? 백전짜리, 상당하구나.》

《아니야. 뛰다가 넘어져서 양국 개한테 뜯겼대. 하하 아프겠는데.》

《얘, 돈 닷돈두 없니?》

《가위머리 까까머리, 개띠머리 하하하…》

여러 애들은 이렇게들 영남이를 놀리고있는것이였습니다. 그래도 영남이는 끄떡도 안하고 앉아있습니다. 이때 어디선지 백묵 하나가 날아오더니 영남이 머리를 딱 때리고 떨어집니다.

그래도 영남이는 끄떡도 안합니다.

바로 뒤책상에 앉아있는 장난꾸러기 농달이는 손톱을 입에 호 붙였다가 영남이 머리를 톡톡 튀기고는 시침을 뚝 떼고 앉아있습니다. 그래도 영남이는 돌아다보지도 않고있는것입니다.

그렇다고 영남이는 지금 울고있는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굴을 붉히고 부끄러워하고있는것일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씨근거리며 성을 내고있는것일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으면 선생님에게 죄다 말씀드리려고 생각하며 있는 것일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영남이의 눈앞에는 어머니 옷고름이 얼른거릴뿐입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또 어디선지 이번엔 밤알만큼 큰 그 무엇이 윙하고 날아오더니 영남이의 머리를 약간 세게 때리고는 공교롭게도 바로 옆유리창을 깨뜨리고말았습니다. 큰일났습니다.

매맞은 영남이는 맞은데가 아파서 책상에 엎드려져있고 떠들던 모든 애들은 어쩔줄을 모르고있습니다.

이윽고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죽은듯이 잠잠해있습니다.

《누가 깨뜨렸어요? 그리고 왜들 떠들었어요? 그런 애들은 모두 손들어요.》

선생님의 위엄성 섞인 말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손들지 않고 잠잠해있을뿐입니다.

《깨친 애와 떠든 애는 얼른 손을 들어요. 그리고 이리루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다 벌을 주겠어요!》

선생님의 얼굴은 점점 더 무섭게 이그러져갔습니다.

이때입니다. 누구인지 머리를 숙이고 앞으로 나가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뜻밖에도 영남이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깨뜨렸습니다.》

영남이는 약간 떨리는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모두 벙벙해있었습니다. 더우기 놀란것은 선생님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제일 품행이 바르고 공부 잘하던 영남이라고는 생각밖이였던것입니다.

《아니, 영남이가 깨뜨렸어요? 이리 올라와요.》

를 선생님은 참말로 놀란듯이 눈을 크게 뜨고 영남이의 도도록한 머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떻게 깨뜨렸어요?》

모든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영남이의 입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애가 뭐라고 할가?)

《선생님, 제 머리가 깨뜨렸습니다. 우슬럭두슬럭한 제 머리가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제 머리를 깎은 어머니는 죄가 없습니다. 웃음받게 생기고 미움받게 생기고 놀림받게 생긴 제 머리에 죄가 있는것입니다.…》

영남이의 음성은 어느덧 흥분되여있었습니다. 두눈에 가득 고였던것이 주르르 볼을 타고 흐릅니다. 누구인지 고개를 떨어뜨리고 앞으로 나가는 또 한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싸움 잘하고 장난군인 농달이였던것입니다.

《선생님, 유리창을 깬 놈은 접니다. 영남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농달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물까지 뚝뚝 흘렸습니다.

《농달이가 깨뜨렸어요?》

선생님은 다시한번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제 머리가 깨뜨렸습니다. 농달이는 죄없는 애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영남이를 때린것이 잘못되여 유리창에 맞은것입니다. 그리고 떠들기두 제가 했습니다. 저를 벌세워주세요. 영남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영남이와 농달이는 저마다 제가 깨뜨렸다고 책임을 지려 하였습니다. 교실안은 한참동안 잠잠해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학생을 한참동안 물끄러미 들여다보고있던 선생님은 다 잘 알았다는듯이 고개를 끄덕끄덕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늙은 얼굴에 미소를 띠우며 이 두 아이의 조그마한 손목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애정이 가득찬 목소리로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두 아이야말로 참으로 훌륭한 애들이예요. 이같이 동무를 서로 사랑하고 정직한 너희들은 참으로 훌륭해요. 영남이 마음도 곱거니와 농달이 네 마음도 쓸만 해요. 농달이, 너 요즘 가만히

보니까 교실에 들어와서 공부는 잘 안하고 떠들기만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못써요. 운동장에서 놀 때는 힘있게 운동장이 떠나갈듯이 유쾌히 놀다가도 교실에 들어와서는 조용히 공부에 열심해야 해요. 알아들었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돌려 다른 여러 아이들에게까지 말하였습니다.

이때 모든 애들은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나 듣고있는듯이 숨을 죽이고있더니 《예.》 하고 시원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리하여 이 한시간은 선생님의 여러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이날 저녁때였습니다. 이전엔 개와 고양이처럼 사이가 좋지 못하던 영남이와 농달이는 이상하게도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것을 사람들은 누구나 보았을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갈라지는 십자길에서 손목을 마주 잡았습니다.

《너의 집은 어디냐?》

영남이가 물었습니다.

《저 보통문 토성랑.》

《그럼 너의 집두 가난뱅이겠구나?》

《그럼, 우리 아버지는 철공장에 다녀. 너의 집은?》

《우리 집은 저 칠성문밖 움막촌이야. 그렇길래 이렇게 까까머리하구 다니지 않니?》

영남이는 손으로 제 머리를 가리키면서 웃었습니다. 농달이도 따라웃었습니다.

(강훈)

[속담]

○ 범 잡은 포수.

어떤 일에 크게 성공하여 의기양양해하는 모양을 이르는 말.

○ 벽을 문이라고 내민다.

리치에 맞지 않는 사실도 자기의 고집을 세우기 위하여 억지로 내민다는 말.

말하기교재

13. 모내기를 제철에 와닥닥 해제끼자

풍년모내기에 떨쳐나선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

우리 소년예술선전대는 일요일을 계기로 풍년모내기로 들끓는 협동벌로 달려나왔습니다.

동쪽을 봐도 서쪽을 봐도 노래소리, 웃음소리 넘치는 정다운 들판, 날을 따라 푸른 빛으로 단장되여가는 농장포전!

올해에도 농사를 잘 지어보려는 여러분들의 뜨거운 마음들이 여기 논판에 그대로 수놓아지는듯 합니다.

우리는《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날마다 모내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있는 여러분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농사를 잘 지어야 합니다.》

농사를 잘 짓자면 모내기를 잘하여야 합니다. 경험은 어느 품종이나 모내기적기를 놓쳐버리면 정보당 소출이 매일 100kg씩 줄어든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그러니 모내기를 와닥닥 제철에 해제끼는것이 알곡을 더 많이 내는데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의식주가운데서도 먹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뭐니뭐니해도 사람들이 넉넉하게 살아가자면 먹을것이 많아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일찌기 쌀은 곧 사회주의라고 하시였고 쌀에서 땅크도 나오고 대포도 나온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 낟알더미를 높이 쌓아올리는것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굳게 지키고 빛내이는 보람찬 일입니다. 나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은 또한 우리 인민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게 해주시려고 한평생을 바

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나가는 일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는 일입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신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모내기를 제철에 기어이 끝내야 합니다.

더욱 분발합시다. 그리하여 제철에 모내기를 끝낼뿐아니라 그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합시다.

논판써레치기에 나선 뜨락또르운전수 여러분!

써레치기를 결정적으로 앞세우며 모포기들이 고르롭게 꽂힐수 있도록 논판수평을 철저히 보장합시다.

모내는기계운전공과 모공급수 여러분!

모내는기계를 제때에 점검보수하여 만가동, 만부하로 돌리며 빈포기가 생기지 않도록 책임성을 다해갑시다. 그리고 모공급수들은 포기당대수가 정확히 보장되도록 모춤을 찬찬하게 추려서 모통에 착착 세워놓읍시다.

모를 뜨는 농장원 여러분!

조국해방전쟁시기 싸우는 고지에 탄약을 공급하던 그런 심정으로 모를 더 빨리, 더 알뜰하게 뜹시다. 한대도 부러지거나 상하지 않게 하며 뿌리에 흙덩이가 하나도 붙지 않도록 합시다.

보식을 맡은 농장원 여러분!

모내는기계가 어쩔수없이 놓쳐버린 빈구석들과 빈포기들 그리고 한대짜리 벼포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식합시다. 만일 한평에서 한포기씩만 빈포기를 낸다 해도 정보당 100여㎏의 낟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관리를 맡은 농장원 여러분!

많지도 적지도 않게 물을 잘 대여 될수록 빨리 모살이가 끝나도록 합시다. 모살이가 끝나면서 이어서 아지치기를 잘하도록 모든 논들을 알뜰히 관리합시다.

이렇게 모두가 달라붙어 모내기를 제때에 와닥닥 해제끼고 올해 기어이 풍년을 이룩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서 이끄시는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합시다.

△ 선전, 선동

선전이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가르치심,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말씀 그리고 과학기술 및 위생지식 같은것을 근로자들속에 해설하여 깨닫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

그리고 선동이란 근로자들의 혁명적기세를 높여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가르치심,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말씀, 그 구현인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일을 말한다.

선전, 선동을 잘하자면 무엇보다먼저 말하려는 내용을 자기 말로 할수 있게 환히 통달하고있어야 한다.

선전, 선동은 대상에 맞게 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들앞에서 하며 그들이 맡고있는 임무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에 맞게 하여야 한다.

선전, 선동은 알기 쉬운 설명식입말투로 차근차근 조리있게 하여야 한다.

선전, 선동은 내용에 따라 억양어조를 잘 살리며 높낮이와 끊기, 속도를 알맞게 두어야 한다. 특히 선동에서는 힘주기를 잘하여 말의 호소성을 높여야 한다.

선전, 선동에서 얼굴표정, 몸짓, 손짓 등도 잘 써야 한다.

글짓기교재

14. 관찰일기

5월 2일 월요일 비내림

어제 오후부터 내린 비는 아침까지 멎지 않았다.

나는 86호 어미토끼우리에 먼저 가보았다.

발걸음소리를 들은 어미토끼는 후닥닥 놀라 새끼둥지곁으로 달려가서는 그 둘레를 돌아쳤다.

새끼를 낳기 전에는 내 발걸음소리를 듣고 깡충깡충 뛰여나와 먹이를 달라고 쇠살창에 매달리던 토끼였다. 새끼를 낳은 후부터는 주인도 몰라보고 아예 곁을 주지 않는다. 먹이를 주었는데도 새끼둥지곁에서 나오지 않는다.

나는 토끼장뒤에 숨어서 살펴보았다. 얼마 있다가 토끼는 살창곁으로 나와 성긴 수염을 놀리며 호물호물 풀을 먹었다.

내가 다시 나타나자 귀를 발딱 세우고 다시 새끼들곁으로 들어가버린다.

(새끼들이 어떻게 될가봐 늘 마음을 못 놓는구나.)

기특했다.

나는 어미가 놀라지 않게 조심히 털둥지를 헤치고 새끼들을 살펴보았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눈을 감고있던 새끼들은 모두 눈을 떴다. 그리고 1㎜로부터 5㎜로 털이 자랐다.

5월 17일 화요일 개임

나는 오늘 선생님에게서 한가지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그것은 물고기의 나이는 비늘을 가지고 쉽게 알수 있다는것이였다.

붕어의 비늘을 떼여 해빛에 비쳐보았다. 나무를 잘랐을 때와 같이 비늘에도 몇개의 륜선들이 있었다.

륜선들을 세여보니 3개였다.

나는 붕어를 보자기에 싸들고 학교로 달려가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확대경으로 다시 보았다. 신통히도 륜선들은 내가 세여본것과 꼭 같았다. 나는 이것을 통하여 물고기의 나이는 비늘을 확대경으로 보거나 해빛에 비쳐보면 알수 있다는것을 정확히 확인할수 있었다.

5월 25일 수요일 개임

관찰시간— 저녁 6시

관찰대상— 박새

관찰장소— 학교동물사

관찰내용— 어제까지 알을 다 낳은 모양이다. 매일 한개씩 늘어 전부 7개이던것이 오늘도 여전히 같다.

한마리의 박새는 잠간동안(6분동안) 자리를 떠났다가 둥지속에 들어간 후로는 다시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알을 품기 시작한 모양이다.

읽기교재

15. 덕만이와 쇠돌이

(이 작품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이야기에 기초한것이다.)

옛날 어느 한 마을에 덕만이와 쇠돌이라는 두 소년이 살았습니다.

두 소년은 글방에도 같이 다녔고 놀기도 같이하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글방을 졸업한 두 소년은 큰 고을에 가서 공부를 더하기로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자면 아는것이 많아야 한다는것을 이들은 잘 알고있었기때문입니다.

덕만이는 고을에 간 후에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밤이 깊도록 공부를 하다가 졸음이 오면 샘물에 나가 세수를 해가면서 밤을 지새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는 모를것이 있으면 스쳐지나지 않고 그 리치를 밝혀가면서 착실히 배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쇠돌이는 점점 공부에 싫증을 느끼고 짐승사냥이나 물고기잡이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그는 숙제를 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풀 때면 제 머리로 할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덕만이를 구슬려 학습장을 빌려보군 하였습니다.

두 친구는 드디여 글공부를 마치였습니다.

그해 가을 나라에서는 큰일을 맡아볼 사람을 고르는 시험을 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나라의 고을과 고을, 마을과 마을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덕만이와 쇠돌이도 시험장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걷고 또 걸어서 시험장에 닿으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있었습니다. 시험장으로 들어가면서 쇠돌이는 덕만이에게 귀속말을 했습니다.

《우리 둘가운데서 한 사람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붙은 사람이 떨어진 사람을 보아주기로 하자.》

덕만이는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나고 공부도 함께 해온 정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어기는건 친구가 아니라는걸 명심해.》

《걱정말라니까.》

드디여 시험이 시작되였습니다. 쇠돌이는 앞을 기웃, 뒤를 기웃, 여기서 한줄, 저기서 한줄 훔쳐보느라 바빴습니다.

며칠만에 시험결과가 나붙었습니다. 제일 첫머리에 덕만이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쇠돌이는 조바심이 나서 이름들을 하나하나 훑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쇠돌이는 하는수없이 시골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안돼!》

시골로 떠나면서 쇠돌이가 덕만이에게 하는 말이였습니다. 덕만이는 다정한 친구와 헤여지는것이 섭섭해서 멀리 동구밖까지 따라나왔습니다.

그는 눈물이 글썽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잘 가라. 약속을 지킬테니… 기별이 갈 때까지 공부를 착실히 잘하라구…》

그후 덕만이는 동해기슭의 한 고을을 지키는 일을 맡아보게 되였습니다. 그곳은 바다건너 오랑캐놈들이 자주 기여들어와 로략질을 일삼고 행패를 부리군 하는 고을이였습니다.

덕만이는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잘했습니다. 덕만이가 그 고을에 온 뒤부터는 그곳에 한놈의 원쑤도 기여들지 못했습니다. 놈들은 덕만이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면서 도망치군 했습니다.

어느날 나라에서는 덕만이의 공을 표창하기로 하고 그의 소원을 물었습니다. 덕만이는 몇번 사양하고나서 진정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고향에 쇠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불러주어 저와 같이 손잡고 일할수 있게 해주면 그이상 더 바랄것이 없겠습니다.》

덕만이는 지금껏 쇠돌이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있는것이 늘 마음에 걸려있었던것입니다. 나라에서는 어린시절의 옛정을 못잊어하는 덕만이의 마음을 기특히 여겨서 그의 소원대로 쇠돌이를 불러올렸습니다.

여러해만에 다시 만난 덕만이와 쇠돌이는 두손을 마주 잡고 흔들며 반가와서 어쩔줄을 몰랐습니다.

《아주 잊어먹었는가 했더니 정말 고맙다.》

《그래 공부는 많이 했겠지? 우리 함께 나라를 지키는 일에

힘과 지혜를 다 바쳐가자구.》

쇠돌이는 덕만이와 함께 크고 중요한 일을 맡아보게 되였습니다. 이때 바다건너 오랑캐놈들이 우리 나라를 다시 침략할 기회만 엿보면서 큰 배를 뭇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나라에서는 놈들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덕만이에게는 크고 튼튼한 돌성을 쌓는 일을 맡기고 쇠돌이에게는 백리밖까지 들리는 큰 종을 만드는 일을 맡겼습니다.

덕만이는 여러해동안 열심히 배우고 익혀온 지식을 다 짜내여 큰 돌을 들수 있는 기중기도 만들어내고 새로운 성쌓기방법도 찾아냈습니다. 그리하여 성을 착실히 쌓을수 있게 되였습니다.

쇠돌이도 덕만이한테 지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고 종 만드는 일에 달라붙었습니다.

몇달만에 드디여 성도 다 쌓고 종도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종을 바다가 봉화봉마루에 올려다 매달아놓고 놈들이 바다우에 나타나면 크게 울려 성안과 그 부근사람들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어느날 그믐밤이였습니다.

바다와 하늘도 가려보기 힘든 캄캄한 밤이였습니다.

봉화봉마루에서 바다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문득 바다기슭에 와 닿는 시꺼먼 배들을 보았습니다. 드디여 머리를 괴상하게 틀어올린 오랑캐놈들이 뭍으로 기여오르는것이였습니다.

파수군은 온몸의 힘을 모아 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뎅, 뎅, 뎅! 덱, 덱, 덱그르…》

갑자기 종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파수군은 있는 힘을 다해 종을 쳤습니다. 그러자 종은 깨져나가고말았습니다.

《아이쿠, 큰일났구나! 성안에서는 이 종을 믿고 맘 편히 굳잠들을 자고있을텐데…》

왜놈들은 피비린내를 맡은 이리떼처럼 성을 향해 밀려들었습니다.

《야, 야! 성벽으로 기여오르라. 못 오르는 놈은 목을 자르겠다!》

두목놈이 긴 칼을 휘휘 내두르며 호통쳤습니다. 놈들은 성벽으로 기여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길쯤 오르다가는 미끄러지고 다시 오르다가는 또 떨어져 한놈도 성벽꼭대기까지 닿는 놈이

없었습니다. 성벽을 어찌나 묘하게 쌓았던지 발붙일 틈이라군 아예 없었습니다.

《시라소니같은것들, 그것두 못 오르겠으면 성밑을 파 허물라!》

두목놈이 안달복달하며 호통을 치자 놈들은 괭이와 지레대로 성밑을 파헤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헛일이였습니다. 성벽의 기초를 얼마나 든든히 하였던지 괭이질을 할 때마다 불꽃만 튕겨날뿐 어림도 없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날이 환히 밝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여 놈들이 기여들었다는것을 안 성안사람들과 이웃마을사람들이 왜놈들을 모조리 활로 쏴눕히고 칼로 베여눕히고 창으로 찔러죽이였습니다. 간신히 살아 도망쳐 배에 오른 놈들도 배와 함께 불에 타서 고기밥이 되고말았습니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덕만이와 쇠돌이의 얼굴엔 그늘이 어려있었습니다. 깨여진 종때문이였습니다.

《어떻게 돼서 종이 깨졌는지 쇠돌이 자네 모르겠나?》

《내가 여태 자네의 도움만 바라면서 공부를 착실히 안해온탓에 종을 만드는 리치두 바루 몰랐던것일세.

나라앞에 죄를 진건 물론이구 자네앞에두 면목이 없네.》

쇠돌이는 깊이 뉘우치고 늦게나마 공부를 다시 하리라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속담]

○ 닭알로 바위치기.
도저히 할수 없는 무모한짓을 하는것을 비웃는 말.

○ 열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무슨 일이든지 꾸준하게 들이대면 마침내 성공할수 있다는 말.

읽기교재

16.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사나운 폭풍도 쳐몰아내고
신념을 안겨준 **김정일**동지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미래도 희망도 다 맡아주는
민족의 운명인 **김정일**동지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인민은 믿는다 **김정일**동지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리종오, 황진영)

읽기교재

17. 낚시터의 불빛

중학교 생물소조원 철진이는 요즘 그 어느때보다도 바삐 보낸답니다.

그것은《숭어의 나이는 어떻게 알아내는가?》라는 제목으로 연구발표모임에 출연하여야 하기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기다리던 연구발표모임날을 하루 앞두고 철진이가 학교에 다녀오는 새에 비상사고가 생겼습니다.

발표모임에 쓸 숭어를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 철구가 꼬챙이질하여 몽땅 죽여버렸던것입니다.

철진이는 그만 억이 막혔습니다. 동생을 붙잡기만 하면 막 닥달질을 하고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독뒤에 숨어있는 동생을 보는 순간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없어, 또 강에 나가 잡으면 돼.》

철진이는 철구를 데리고 강가에 나왔습니다.

철진이가 낚시질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해는 벌써 서산에 넘어가고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철진이는 철구가 자전거바퀴를 돌려서 일군 전기불아래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낚시질에 온 신경을 도사리고있었습니다. 이때 웬 아저씨 한분이 다가왔습니다. 그 아저씨는 철진이네가 무엇을 하는가를 알아보더니 웬일인지 그냥 돌아가버렸습니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낚시터에 찾아오시였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허리에 손을 올리시고 숭어잡이하는 두 아이를 번갈아보시며 부관아저씨에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저걸 보오. 자전거바퀴를 돌려서 전기를 일구고 그 불빛으로 고기를 잡으니 빛어로가 아니요.》

인기척에 흠칫 놀라 철진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너무도 뜻밖의 일이였습니다.

자기들이 서있는 이름없는 이 작은 낚시터에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오실줄이야 어떻게 생각할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대원수님!》

철진이는 옷매무시를 바로하고 소년단인사를 정중히 올렸습니다. 철구도 꾸벅 인사를 드리였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철진이와 철구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였습니다.

《연구발표모임에 쓸 숭어를 잡는다지?》

《예.》

철진이는 끝없는 격정으로 하여 가슴만 들먹일뿐 다른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철구가 아버지대원수님께 세마리를 잡아야 하는데 아직 한마리밖에 잡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마리를 잡아야 한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천히 물우에 눈길을 돌리시였습니다. 부관아저씨는 얼른 그곳에 전지불을 비쳐드리였습니다.

《차를 여기로 몰아오시오.》

《예?!…》

아저씨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한동안 망설이기만 하였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 들리실 곳은 얼마나 많으며 하셔야 할 일은 또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련속 시계만 들여다보는 부관아저씨에게 너그러운 미소를 보내시며 달래듯 재촉하시였습니다.

《어서 몰아오시오. 우리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들을 도와주고 갑시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낚시터에 앉으시여 몸소 물기에 축축한 낚시대를 잡으시였습니다. 그리고 철진에게 숭어를 가지고 무엇을 연구하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숭어의 나이를 연구합니다.》

《참 좋은걸 연구하는구나. 그래 숭어의 나이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숭어의 나이는 비늘에 그려진 륜선을 세여보고 압니다.》

《그렇지, 나이를 알아내는것도 중요하지…》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철진이의 대답을 만족하게 들으시고 숭어의 나이를 무엇때문에 연구하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숭어의 나이를 알아야 숭어를 빨리 기르고 잘 보호할수 있습니다. 숭어는 제 나이또래끼리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나이에 따라 먹이도 다릅니다. 3년생부터 알을 깝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면 빨리 자라지 않으므로 제때에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철진이가 소조연구발표모임때 할 내용인것입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철진이를 대견스럽게 굽어보시였습니다. 철구는 까만 눈동자를 반짝거리며 철진이를 올려다봅니다. 그의 눈에는 형에 대한 부러움이 가득 어려있었습니다.

《대원수님, 저는 숭어가 코구멍이 몇개인지 압니다.》

철구는 묻지도 않는 말을 아버지대원수님께 말씀올렸습니다.

철구의 엉뚱한 소리에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크게 웃으시였습니다. 철진이도 따라웃었습니다.

《그래 숭어코구멍이 몇이냐?》

《네갭니다.》

철구는 손가락 네개를 펴보이였습니다.

《코구멍이 네개다.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사랑의 눈길로 철구를 굽어보시였습니다.

《형이 알려주었습니다.》

《형이 알려줬다. 그래 코구멍이 왜 넷이지?》

《…》

철구는 형을 쳐다보았습니다. 철진이는 고개를 푹 떨구고 꺾어

놓은 버들가지를 매만지고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철진이는 깐깐히 관찰을 못하여 아버지대원수님께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는 자신이 몹시 민망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철진이와 철구를 번갈아보시고나서 웃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시였습니다.

《관찰을 찬찬하게 하지 못한 모양이군. 생물학을 연구하자면 진지한 탐구정신을 가지는것과 함께 깐깐한 관찰이 중요하지… 앞코구멍으로 들어간 물이 뒤코구멍으로 빠져나오는 사이에 냄새를 맡는다.…》

이때 승용차가 풀숲을 헤치며 강기슭에 바투 닿았습니다.

차에서 흘러나오는 두줄기의 불빛이 대낮보다 밝게 물우와 강기슭을 비쳤습니다. 온 낚시터가 환해졌습니다. 여기서 철썩! 저기서 철썩! 수많은 고기들이 찌대의 주위에서 솟구쳤습니다. 뭇벌레들도 날아들었습니다.

《불빛이 밝으니 고기들이 모여드는구만. 제일 높이 뛰는 고기가 숭어다. 속담에 숭어가 뛰면 망둥이도 뛴다고 하더니 숱한 고기들이 뛰는구만.》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만면에 웃음을 지으시였습니다.

《대원수님, 저기서 숭어가 또 뛰였습니다.》

철진이는 바른손을 들어 가리켜드리였습니다. 거기에다 낚시를 던지면 이내 숭어가 잡힐것 같았습니다.

《숭어는 령리한 고기여서 함부로 서둘면 안돼. 이렇게 지그시 넣어두면 방금 뛰던 놈두 와서 미끼를 먹을게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그냥 찌대를 바라보고계셨습니다.

얼마 지나서 찌대가 숨박곡질하듯 물우에 깜빡거리더니 갑자기 쑥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이크, 큰 놈이로구나!》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낚시대를 슬쩍 옆으로 채시였습니다. 낚시대가 활등처럼 휘여들었습니다. 후리채의 그물안에서 퍼득거리는 것은 팔뚝만 한 숭어였습니다.

《야, 굉장히 큰 놈인데!》

철진이가 기뻐서 환성을 올렸습니다. 철구도 두팔을 높이 추켜들고 발을 동동 구르며 환성을 올렸습니다.

물통안에는 크고작은 숭어들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고기를 잡아넣을 때마다 물통안의 숭어들이 놀라 철썩거렸습니다.

《이만 하면 되겠지?》

《예.》

철진이는 기쁨에 넘쳐 대답올렸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낚시대를 거두시면서 철진에게 숭어나이를 연구한 다음에는 또 무엇을 연구하겠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불빛을 리용하여 고기를 잡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잡는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그보다도 기르는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 숭어뿐아니라 모든 민물고기의 기르기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무엇이지?》

《예, 먹이문제입니다.》

《생물소조원이 다르군. 먹이문제가 기본이다. 그래 숭어는 무엇을 먹고 살지?》

《감탕을 먹고 삽니다.》

《옳다, 감탕을 먹고 산다. 감탕속에 있는 미생물을 감탕과 함께 먹고 산다. 그러니 숭어를 기른다는것은 감탕과 고기를 바꾸는 셈이다.》

이윽고 승용차가 큰길에 들어섰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철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크고작은 강에 고기가 욱실거리게 하고 특히 민물고기기르기에서 숭어를 기르는것은 아주 중요하다는것을 알아야 해. 숭어는 잉어나 초어보다도 빨리 큰다. 다른 물고기처럼 먹이를 주지 않아도 1년에 한키로그람씩 자란다.

숭어는 강아래어구에 살다가 겨울에는 바다로 나가지만 멀리 가지 않고 머물러사는 물고기이다. 이런 물고기들을 잘 보호해야 한다.

지금 모든 자원이 우리 인민의것으로 된 조건에서 주인답게 자원들을 보호하고 늘여나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

생물학연구에서도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아버지대원수님의 말씀을 듣고있는 철진이의 눈앞에는 야영에 갔을 때 본 짐승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는 풍요한 산들,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욱실거리는 강과 호수들이 선히 안겨왔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가 더없이 귀중하고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였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낚시대주머니를 철진에게 넘겨주시였습니다.

《숭어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라는가?》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다음번 연구제목을 이렇게 달아주시면서 학교에 돌아가면 선생님들과 잘 의논해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윽하여 아버지대원수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대동강기슭을 따라 뻗은 길로 서서히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철진이는 정중히 소년단인사를 올리고 멀어져가는 아버지대원수님께서 타신 차를 바래고있었습니다.

둥근달이 저만큼 떠올라 대동강을 비쳤습니다. 강물은 은백색으로 부서지며 물결을 따라 춤을 추며 흘렀습니다.

(최병환)

읽기교재

18. 온 나라를 뒤져서라도

주체50(1961)년초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인민군구분대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다가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그곳 구분대 군의소에서 일하고있는 한 녀전사를 만나주시였다.

그의 아버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지구전투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바로 몇달전에 이곳 구분대를 찾으셨던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신입대원들의 생활을 료해하시다가 그가 유자녀라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그런데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급한 일이 제기되여 녀전사와 다음에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하고 떠나셨던것이다.

아버지를 잃은지 10여년, 그동안 나라에서 유가족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돌려주었기때문에 근심걱정없이 자랐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또다시 그를 불러주셨던것이다.

(그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이름없는 전사를 또 불러주시다니…)

녀전사의 마음은 끝없이 설레였다.

그는 옷매무시를 바로하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는 흥분했던 나머지 군복을 입었다는것도 까맣게 잊고 위대한 대원수님께 깊이 머리숙여 인사를 올리였다.

너그러우신 미소를 지으시고 그를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동안 앓지는 않았는가, 훈련은 힘들지 않는가, 아버지가 어디서 어떻게 전사했는가를 차근차근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나서 일가친척들은 누구누구가 있는가를 알아보시였다.

녀전사는 일가친척들을 손을 꼽아가며 말씀올렸는데 그것은 다섯손가락안에 드나마나하였다. 아버지켠은 삼촌마저 원쑤놈들에게 피살되여 살뜰한 혈육은 한명도 없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젖은 음성으로 삼촌도 피살되였다니 사촌형제라도 있을게 아닌가고 물으시였다.

그는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삼촌이 피살될 당시 사촌동생이 한명 있기는 했는데 그때 삼촌어머니와 함께 외켠으로 가더라는 말을 전해들은 뒤로 10년이 넘도록 소식을 알길 없었던것이다. 그동안 사촌동생의 행처를 알려고 편지를 쓴것만도 수백장이 넘는데 끝내 찾지 못하고말았던것이다.

그러니 그 안타깝던 가슴속의 사연을 어떻게 그대로 말씀올릴수 있었겠는가.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거듭 물으셔서야 그는 겨우 전후사연을 말씀올렸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안색은 흐려지시였다. 아버지도 잃고 삼촌도 잃고 사촌동생과 생리별을 하였으니 가까운 친척도 없이 얼마나 외롭게 지냈겠는가. 하루빨리 형제간의 상봉을 마련해주어 따뜻한 정을 나누게 해주고싶으시였다. 남들과 같이 친척들간에 서로 오가기도 하고 편지도 주고받으면서 행복을 나누게 해주고싶으시였다.

《그 애를 꼭 찾아봅시다. 그 애가 어디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빨리 찾아보도록 합시다.》

녀전사는 뜨겁게 울리는 위대한 대원수님의 말씀에서 유자녀 한사람한사람을 귀중히 여기시고 아껴주시며 그들의 가슴에 비낀 한가닥의 그늘마저도 말끔히 가셔주시려고 그처럼 마음쓰시는 어버이사랑을 그대로 온몸에 느끼게 되였다.

녀전사는 공연한 말씀을 올려 위대한 대원수님께 걱정을 끼쳐드린다는 생각이 들어 서둘러 이렇게 말씀올렸다.

《그 애는 이 세상에 없는것 같습니다.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일없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 애는 죽지 않고 어디에 살아있을것입니다. 그 애를 빨리 찾아 만경대혁명학원에 보내여 수령님께 충직한 군사일군으로 키웁시다.》

그러시고는 자그마한 수첩을 꺼내드시고 그 애의 이름과 나이, 고향 등을 차례로 적어넣으시였다.

한자한자 적어나가시는 위대한 대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러보는 녀전사의 눈굽엔 행복의 눈물이 괴여올랐다.

그 다음날이였다. 한 일군이 급히 평양을 떠났다. 동생이 살고 있었다는 그 주소를 찾아 떠난것이였다. 그 일군이 고향에 찾아가보니 그의 사촌동생은 원쑤들의 박해를 피하여 어머니와 함께 외가로 떠난것이 사실이였다. 그래서 외가로 찾아가 행처를 물었으나 거기에는 오지 않았다는것이였다.

그렇다면 그 애는 이 세상에 없는 애란 말인가.

그 일군의 머리에는 불현듯 온 나라를 뒤져서라도 그 애를 꼭 찾아야 한다고 그처럼 절절하게 말씀하시던 위대한 대원수님의 모습이 뚜렷이 안겨왔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오늘도 반가운 소식이 있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시겠는가.)

그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온 나라를 차례로 뒤지기 시작하였다.

꼭같은 이름, 꼭같은 나이의 애들은 참으로 많았다. 어느날 그들가운데서 그 애와 비슷한 한 아이를 찾아냈다. 위대한 대원수님

께서는 못내 기뻐하시며 녀전사의 사촌동생을 잘 아는 가까운 친척과 함께 그 애를 찾아가보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일군들은 다시 그 애를 찾아 떠났다.

바로 그 애가 녀전사의 사촌동생일줄 어이 알았으랴!

그 애는 전쟁시기 아버지가 희생되자 외켠으로 가다가 어머니마저 잃고 어느 한 농민의 구원을 받아 그 집에서 자라고있었던것이다.

당시 그 애의 나이가 너무 어려 아버지와 어머니도 고향도 모르니 키워준 사람도 그 애의 일가친척들을 찾을수 없었던것이다.

그 애를 찾았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신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이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일군으로부터 애를 찾았다는 보고를 받으시자 한시바삐 두 형제가 뜻깊은 상봉을 하도록 대책을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10년동안이나 헤여져 생사조차 알지 못하던 형제는 위대한 대원수님의 뜨거운 보살피심속에서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되였다.

녀전사는 마주 다가서는 동생의 얼굴에서 삼촌의 얼굴을 엿보았다. 동생은 붙들고 놓을줄 모르는 녀전사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혈육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되였다.

그 순간 그들형제는 서로 부르며 뜨겁게 포옹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두 심장은 하나로 뜨겁게 고동치며 이렇게 웨쳤다.

아, 얼마나 행복한 형제인가.

그러나 그들은 그 행복한 순간에 자기들의 앞길에 또 얼마나 큰 행복이 기다리는가를 전혀 모르고있었다.

만경대혁명학원에서는 사촌동생을, 평양의학대학에서는 군사복무를 마친 녀전사를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이 세상 끝에 가있으면 끝까지 따라가 보살펴주시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살뜰히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사랑, 위대한 대원수님의 이런 사랑속에서 우리 유자녀들은 혁명의 골간으로 억세게 자라났다.

읽기교재

19. 사랑의 웃음

우리의 학교길 해밝은 언덕
김일성대원수님 웃음속에 계셔요
사랑의 해빛 뿌려주시며
내 나라 밝은 앞날 가리키셔요

해빛처럼 내리는 그 웃음속에
우리우리 한맘한뜻 꽃으로 피고
우리 학교, 우리 교실, 궁전마다엔
대원수님 해바라기 함께 펴나요

봄날처럼 따스한 그 웃음속에
남녘땅 하늘아래 우리 동무 싸우고
그 언제나 주시는 사랑의 웃음속에
우리 키도 마음도 자라나지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김일성대원수님 말씀하셔요
— **김정일**장군님 잘 받드는
　내 나라, 내 조국의 기둥되여라

아, 우리의 인사도 받아주셔요
김일성대원수님 웃음 주셔요
부강하는 내 조국 바라보시는
그 마음 기쁘시여 웃음 주셔요

(장준범)

20. 혁명의 높은 뜻을 새기며

높고 푸른 하늘로 흰구름이 몽실몽실 피여나는 10월의 어느날이였습니다.

솟아오른 아침해도 밝은 빛을 뿌려주었습니다.

우리들은 봉화리를 찾아가는 끝없는 기쁨을 안고 뻐스에 올랐습니다. 뻐스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듯 봉화리로 씽씽 달렸습니다.

어느덧 우리들은 맥전나루를 지나 유서깊은 봉화혁명사적지에 이르렀습니다.

《야, 봉화산이다!》

뻐스안에서 동무들이 환성을 올렸습니다. 하늘높이 솟은 봉화산이 우렷이 안겨왔습니다.

영광의 땅 봉화혁명사적지!

우리들이 언제나 와보고싶던 곳이였습니다. 뻐스에서 내려 사적지에 발자국을 찍어가는 우리의 가슴은 한없이 부풀어올랐습니다.

우리들은 먼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동상을 찾았습니다.

우리들은 선생님의 동상에 삼가 꽃다발을 드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잠시 머리를 숙이였습니다.

우리들은 김형직선생님께서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우리 글을 배워주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워주시던 명신학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봉화산에서 뻗어내린 나지막한 언덕밑에 돌기와를 이고 아담하게 자리잡은 명신학교는 농촌에서 흔히 볼수 있는 보통살림집이나 다름없는 단층집이였습니다.

교실정면에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의 사진이 정중히 모셔져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을 끄는것은 흰종이에 먹으로 쓴 《지원》이라는 글발이였습니다.

《지원》! 아직 참먹내가 풍기는듯 한 이 글발속에 참으로 높고 깊은 뜻이 담겨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손수 지으시고 배워주시던 《전진가》가 씌여있는 액틀이 걸려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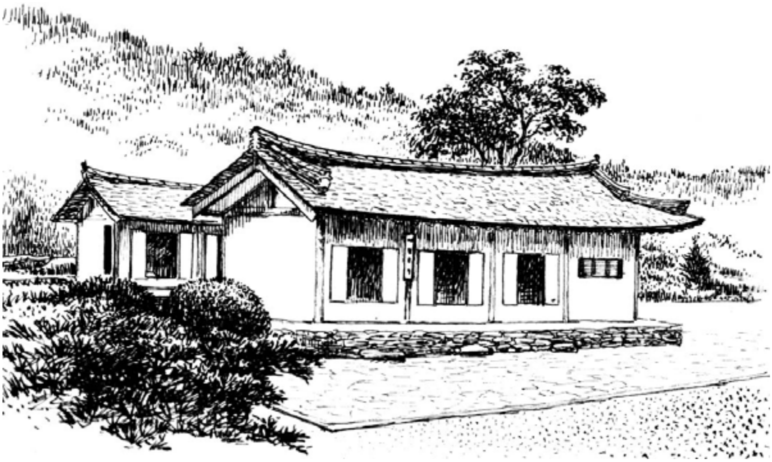
우리들은 강사선생님의 해설을 들으며 《전진가》의 구절구절을 다시금 새겨보았습니다.

우리들은 강사선생님을 따라 학교뒤에 있는 살림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사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주체6(1917)년 가을 악독한 일제놈들에게 체포되여가시던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호송도중 비밀문건을 불태워버리라는 쪽지를 강반석어머님께 전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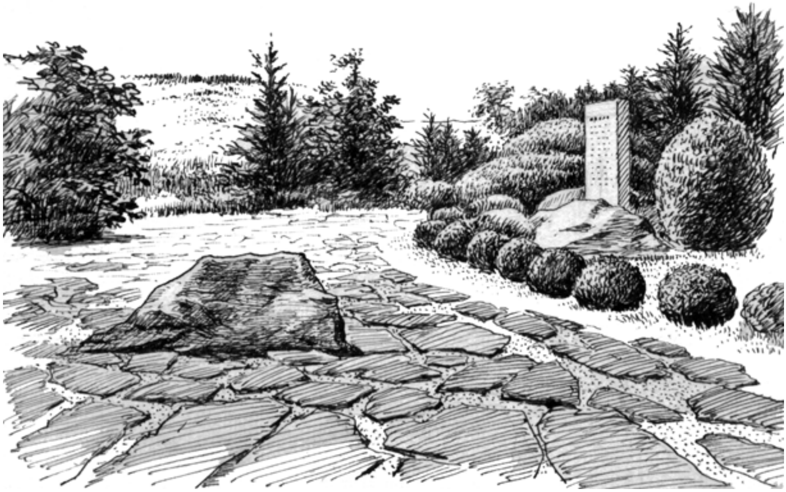
김형직선생님의 쪽지를 받으신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이 살림집 돌기와밑에 감춰둔 비밀문건을 꺼내시여 나어리신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과 함께 불태워버리셨습니다.

뒤늦게 말을 타고 달려든 일제경찰놈들은 살기등등해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며 비밀문건을 내놓으라고 야단법석이였습니다. 이에 격분하신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자! 볼테면 봐라!>라고 웨치시며 일제경찰놈의 더러운 낯짝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강반석어머님의 강의하신 투쟁모습을 그려보며 우리들은 명신학교에서 좀 떨어진 박우물에 다달았습니다. 우리들은 수정같이 맑은 물을 마음껏 마시고 단숨에 아침운동터에 올랐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아침운동터에 서있는 우리들의 가슴에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잠든 조선을 깨우시며 울리시던 기상나팔소리가 메아리쳐오는듯 하였습니다.

아침운동터에서 층층바위를 따라 오르니 널직한 바위가 한벌 쭉 깔린 바위터가 나졌습니다.



우리들은 잠시 멈춰서서 강사선생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바위터는 김형직선생님께서 명신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고 혁명활동을 벌리실 때 반일투사들의 비밀모임장소로 쓰시던 곳입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바로 이 바위터에서 반일지하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활동을 지도하시였습니다.…》



우리들은 강사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조선국민회 회원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는 김형직선생님의 열정에 찬 모습을 조용히 그려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김형직선생님의 뜨거운 숨결을 걸음걸음 느끼며 봉화산을 내렸습니다.

저녁해는 서쪽하늘을 곱게 물들이며 산발로 잦아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뻐스에 오른 다음에도 우리들은 노을비낀 아름다운 곳, 영광으로 가득찬 봉화혁명사적지를 오래도록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차창밖으로 멀어져가는 봉화리를 바라보면서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뜻을 가슴에 안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자라나리라 굳게 마음다졌습니다.

△ 기행문

기행문이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그리고 도시와 농촌, 공장과 건설장, 명승고적 등을 직접 다니면서 본것, 들은것, 느낀것을 적은 글이다.

기행문은 일정한 곳을 답사, 방문, 려행하는 과정에 보고 들은 사실을 로정의 순차에 따라 적는 특성을 가진다.

기행문의 첫머리에서는 찾아가는 목적지와 찾아가는 때의 환경, 자기의 흥분된 마음에 대하여 쓴다. 기본내용부분에서는 자기가 찾아간 곳에서 본것, 들은것을 느낌과 결부하여 구체적으로 쓴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견학로정의 차례를 따라가면서 보고 듣고 느낀것을 꾸미지 말고 사실 그대로 적는것이다. 기행문의 맺음에서는 견학을 마치고 자기가 다지는 결의 또는 호소적인 내용을 쓴다.

읽기교재

21. 땅속에서 나온 붉은 옥돌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70돐을 몇해 앞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평양에 주체사상탑을 세울것을 발기하시고 한 일군에게 그 부지를 잡을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과업을 받은 일군은 세상에 둘도 없는 사상을 칭송하는 기념비인 주체사상탑을 어디에 세울것인가 하고 평양의 여러곳을 다니며 안성맞춤한 자리를 찾아보았다.

지질전문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동평양쪽엔 지질층이 석회암이여서 땅속에 동굴이 많고 큰 물주머니가 있기때문에 주체사상탑과 같은 만년대계의 큰 기념비는 절대로 세울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일군은 동평양쪽에 자리를 잡는것을 아예 단념하였다. 그는 지질층이 사암으로 되여있는 본평양쪽에 자리를 잡으려 하였으나 이렇다할 명당자리를 잡을수가 없었다. 자리가 좋다고 생각되는 곳은 지질층이 나쁘고 지질층이 좋은 곳은 자리가 시원치 못하였다.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그를 집무실에 부르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의 보고를 자세히 들으시고나서 《그러니까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단 말이지요? 그럼 이제 나와 같이 가서 자리를 잡읍시다.》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승용차를 인민대학습당쪽으로 몰라고 하시였다. 승용차는 소리없이 수도의 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리였다.

잠시후 인민대학습당앞에 이르자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곧바로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정문우에 있는 전망대에 오르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이미 결심하고계신듯 손을 드시여 대동강건너편 동평양쪽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였다.

《주체사상탑은 인민대학습당전망대에서 곧바로 건너다보이는 저기 동평양쪽 대동강기슭에다 세웁시다.》

순간 일군은 위대한 대원수님께 동평양쪽의 지질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하다가 입을 다물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리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이였다.

《어떻습니까? 의견들을 말해보시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모두 그 자리가 좋을것 같다고 말씀드리였다. 다만 동평양지구 지질상태를 잘 알고있는 그와 한 지질일군만은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있었다.

《박동무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자리를 잡느라고 수고가 많았는데…》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자 그 일군은 외람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의 의견을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었다.

그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머리를 끄덕이시며 빙그레 웃으시였다.

《일없습니다. 래일 당장 저 자리에 시추를 하여 지질을 조사해보시오. 아마 석회암이 아니라 사암이 아니면 화강암이 나질겁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고나서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다음날 그 자리에서는 시추작업이 진행되였다. 밤에 낮을 이어 단 한순간도 시추기소리가 멎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감에 따라 그는 물론 지질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정말 시추기에서 나오는 시료봉들은 석회암이 아니라 사암이였는데 그것도 청석이였던것이다. 더욱 놀라운것은 가운데시추기에서 나온 시료봉이였다. 그것은 붉은 옥돌이였다.

《옥돌이다, 옥돌!》

시추공들은 옥돌을 들고 희한해하며 기뻐서 어쩔줄 몰라했지만 그는 빛을 뿌리는 붉은 옥돌시료봉을 들고 넋을 잃은듯 멍하니 그 자리에 서있었다. 지질일군들도 놀라운 사실앞에서 어리둥절해졌다.

그들은 며칠전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지질을 조사하였다. 그때 땅속에서는 석회암과 모래와 자갈이 나왔었다. 좀더 깊이 들어가서는 물주머니와 커다란 동공이 나타났던것이다. 그들은 바로 그런 지질층이 지금 조사하고있는 자리에도 그대로 전개되여있

을것이라고 단정해버렸던것이다.

그런데 이렇게도 천양지차인가!

그들은 다시 눈을 비비고 시료봉을 보았다. 분명히 그것은 옥돌이였고 사암인 청석이였다. 그들은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이 소문은 삽시에 평양시안에 쫙 퍼져갔다.

《주체사상탑을 세울 자리에서 붉은 옥돌이 나왔다!—》

《석회암지대가 갑자기 사암지대로 변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또 이런 소문이 뒤따랐다.

어느날 모두가 깊이 잠든 야밤삼경에 갑자기 평양시에 지동이 울었다고 한다. 젊은이들은 잘 몰랐어도 잠귀가 밝은 늙은이들은 분명히 들었다고 하였다.

그날 땅속에서는 큰 변동이 있었는데 모란봉밑의 사암이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자리를 잡아주신 곳으로 이동하여갔고 저 멀리 룡강군과 온천군의 화강암도 그 자리로 밀려왔다는것이였다. 붉은 옥돌도 어디선가 여기로 흘러왔을것이라고 하였다. 그때가 바로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주체사상탑자리를 잡아주신 그날 밤이라는것이였다.

그뒤 주체사상탑건립을 위해 전국에서 달려온 건설자들은 기초를 파기 시작하였다. 땅속에서는 시추할 때 조사한대로 주체사상탑 탑신을 세워야 할 그밑에서 몇백만t짜리 커다란 붉은 옥돌이 나왔다. 그리고 청석인 사암과 화강암이 넓은 면적에 뿌리를 박고있어 기초는 더할나위없이 든든하였다.

그들은 옥돌을 꺼내지 않고 그대로 두고 그우에다 기초를 하였다. 그것은 하늘의 뜻이고 땅의 뜻이라는것이였다. 그리하여 170m 높이의 세계최대걸작인 주체사상탑이 대동강반에 거연히 솟아오르게 되였다.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것처럼 경애하는 수령님께 바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보다 뜨거운 충실성에 감동되여 대원수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땅속의 지질도 변화되는것이리라!

[속담]

○ 무른 메주 밟듯.
일을 쉽게 척척 해나가는것을 이르는 말.

○ 소리 없는 벌레가 벽을 뚫는다.
말없이 수걱수걱 꾸준하게 일해나가는 사람이 마침내 큰 일을 해낸다는 말.

읽기교재

22. 어머님께서 오신다

함박눈이 펑펑 내리는 저녁
오늘은 왜 이리 늦으실가?
이맘때면 어머님께서 오시였는데
글쎄, 얘들아, 무슨 일일가?

근심어린 눈빛들 초롱초롱
군사놀이 거두고
강반석어머님 넘어오실
눈 내리는 고개길만 바라보아요

— 어머님께서 오신다!
나무총 어깨에 척 메고
눈오는 마당가에 줄곧 서있던
뒤집의 철이, 우물집 옥이
기뻐서 한꺼번에 소리질러요

— 어머님께서 오신다!
이 골목에서 와— 소리쳐요
저 골목에서 와— 달려나와요
아이들 우르르
어머님품으로 달음박질쳐가요

아, 흰 옷자락 날리시며 마주오시는
강반석어머님
비오나 눈이 오나
《새날》신문 안고오시는 우리 어머님

오늘은야 아이들아,
어머님께선
고개너머 마을까지 들려오셨단다
산골짝 화전막에도 들려오셨단다

너희처럼 어머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날마다 날마다 많아진단다
그래서 어머님 다니실 길은
날마다 날마다 늘어난단다

아, 어머님께서 다니시는 길이 많아질수록
새날소년동맹대오는 더욱 커지고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눌려사는 가슴마다에 붉게붉게 퍼져간단다

언제나 읽으면 새힘이 솟는 신문
일제놈들 때려부실 싸움의 길로
힘차게 부르는 《새날》의 목소리
가슴 쿵쿵 울려주는 새 소식—

어서 가자 어머님 마중가자
철이야, 옥이야, 조국의 미래들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혁명사상 품고 오시는
어머님 마중가자
어서 빨리 조국의 새날을 맞으러 가자!

(변홍영)

읽기교재

23. 멀리를 보라

오늘 마지막수업은 생물시간이였다.

칠판에 물고기아가미를 그려놓고 구조와 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해나가던 선생님은 문득 철남에게 바다물에서도 살고 민물에서도 사는 고기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고 묻는것이였다.

철남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으나 갑자르기만 할뿐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아리숭한게 도대체 어떤 고기들이 바다에서도 살고 민물에서도 사는지 알수 없었다. 그렇다고 애들이 모두 쳐다보는 앞에서 그냥 우두커니 서있을수도 없어 생각나는대로 고기이름들을 꼽아나갔다.

《명태, 가재미, 청어…》

바로 이때 바다가마을에서 살다가 얼마전에 웃마을로 이사온 선일이가 발딱 일어서는것이였다.

《아닙니다. 명태, 가재미, 청어는 바다에서만 사는 고기입니다.

바다물에서도 살고 민물에서도 사는 고기는 송어, 뱀장어, 숭어, 농어입니다. 송어는 바다에서 살다가 알쓸이할 때 민물에 올라오고 뱀장어는 민물에서 살다가 알쓸이할 때 바다에 내려갑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람…)

철남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선일이를 흘겨보았다. 마치 그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일처럼 생각하며…

선생님은 철남이와 선일이를 번갈아보며 말씀하시였다.

《선일학생이 아주 대답을 잘했습니다.》

공부가 끝나자 몇몇 애들이 철남이앞으로 모여와 그것도 모르는가고 놀려대기까지 했었다.

철남이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며 어쩐지 선일이가 야속스럽게 생각되였다.

일요일이였다.

철남이는 오늘 동무들과 함께 마을 뒤산에 올라가 밤청대를 하자고 약속하였다.

철남이네가 밤나무골어귀에 당도하니 벌써 웃마을애들이 와서 기다리고있었다.

그들가운데는 선일이도 있었다.

얼마후 아이들은 밤송이를 무져놓고 성냥불을 그어댔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여오르더니 이어 빠지직빠지직하며 불길이 치솟기 시작하였다. 밤무지의 이쪽저쪽에서 탁, 탁하며 밤이 튀는 소리가 귀맛좋게 들려왔다.

《선일아, 넌 이런걸 처음 해보지. 한번 먹어봐.》

용수가 나무꼬챙이로 밤무지를 헤치고 밤 한알을 선일이앞으로 내밀었다.

선일이는 밤을 받아 입바람을 후후 불다가 입안에 넣었다. 순간 딱 소리와 함께 《아이쿠!》 하며 선일이가 입을 감싸쥐였다.

《하하하…》

철남이는 온몸을 들썩이며 통쾌하게 웃어댔다.

《선일이가 언제 밤청대를 해봤니? 처음이니까 그렇지…》

웃마을에 사는 한 애가 철남이를 언짢은 눈길로 보며 선일이를 동정해주었다. 그리고는 선일이의 입안을 들여다본다 어쩐다 하며 부산을 피웠다.

《그러기에 너무 아는체, 잘난체 하지 말라는거야. 너두 산에 대해선 잘 모르는구나 뭐.》

철남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들이댔다. 이제는 요전번 속에 옹이졌던 일을 갚음한셈이다.

《뭐라구, 내가 잘난체 한것이 뭐가?》

선일이는 몸을 발딱 일으키며 철남이를 쏘아보았다.

《네가 생물시간에…》

철남이도 마주 일어섰지만 어쩐지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네가 틀리게 대답하니까 내가 대신 말했는데 그게 왜 잘난체

한것으로 되니?… 남자라는게… 에이, 시시하다야.》

선일이는 코김을 힝 내불며 휙 발걸음을 돌리더니 산밑으로 터벅터벅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철남이는 자기가 새로 온 동무에게 너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선일이가 자기의 대답이 틀렸기때문에 대신 일어서서 대답한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너무 옹졸하게 생각한것 같았다.

선일이가 내려가는 마을쪽을 이윽토록 바라보던 철남이는 갑자기 눈이 둥그래졌다. 읍쪽으로 뻗어간 동구길가에 여러대의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있는것이였다.

그리고 논벌옆에 많은 사람들이 서있었는데 사람들의 한가운데서 자나깨나 뵙고싶었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말씀하고계시는것이 아닌가.

《아, 경애하는 장군님!…》

아이들은 벌떡벌떡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어쩔사이없이 달리기 시작하였다. 철남이는 애들의 앞길을 막아나섰다.

《야, 그러면 안돼. 좀 보려마. 장군님께서 지금 얼마나 바쁘신가.》

애들은 그제야 높뛰던 가슴들을 가라앉히며 앞을 쳐다보기만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저앞의 다락밭쪽을 가리키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곁의 사람들은 수첩에다 장군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 적고있었다.

아이들은 안타까와 앉은방아만 찧고있었다.

(이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을 끝마치시고 인차 떠나시겠지…)

아이들은 조여드는 가슴을 달래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느새 아셨는지 만면에 웃음을 담으신채 그들을 손저어 불러주시는것이였다.

아이들은 《와!—》 환성을 올리며 앞을 다투어 뛰였다.

철남이는 맨 처음으로 장군님앞으로 달려가 씩씩하게 소년단경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허리를 약간 굽히시고 정겨운 눈길로 아이들을 바라보시더니 이름은 무엇이며 지금 몇학년에서 공부하는가고 일일이 물으시였다. 그리고 선일이의 부어오른 입술을 찬찬히 살피시였다.

선일이는 그만 당황하여 얼굴이 홍당무처럼 되여버렸다. 철남이도 몸둘바를 몰라 허둥거렸다.

《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철남이와 선일이를 번갈아보시였다.

《…》

철남이와 선일이는 고개를 점점 더 수그리기만 할뿐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

뜻밖에도 용수가 한발자국 앞으로 나섰다. 아이들은 모두 놀라운 눈길로 용수를 바라보았다.

용수는 잠시 당황해진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며 우물쭈물하기만 할뿐 입을 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우신 모습에서 다시금 용기를 얻었는지 지난번 공부시간에 있었던 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밤청대를 할 때에 있었던 일까지 빠짐없이 말씀드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얼굴에 심중한 기색을 지으시고 용수의 말을 귀담아들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속이 한줌만 해서 운동화코숭이로 땅바닥을 자꾸 후벼대고있는 철남이를 굽어보시면서 웃음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그러니까 철남이는 물고기에 대해서 잘 몰랐고 선일이는 밤청대를 할줄 몰랐으니 결국 일대 일로 비긴셈이로구만. 허허…

철남아, 선일아, 앞으로는 그렇게 승부를 다투지 말고 모르는것이 있으면 서로 배우고 배워줘라.》

철남이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자기의 잘못이 더욱 깊이 뉘우쳐졌다. 당장 달려가 선일이의 손을 꼭 잡고 이제부터는 언제나 친한 동무로 지내자고 말하고싶었다. 선일이도 자기의 생각을 알아주었는지 다정한 눈길로 자기를 마주 보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러는 철남이와 선일이를 애정이 한껏 넘치는 시선으로 바라보시다가 아이들을 향해 말씀하시였다.

《너희들이 앞으로 조국을 떠받드는 훌륭한 역군이 되자면 무엇보다먼저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바다에도 가보고말이다.…》

철남이는 자기들의 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 공연히 근심을 끼쳐드린것 같아 마음이 조마조마해났다.

그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기들은 바다를 보지 않아도 일없다고, 이제 큰 다음에 가보겠다고 말씀드리고싶었다.

하늘중천에 높이 떠있던 해도 어느 사이엔가 서쪽으로 퍼그나 기울어졌다.

《경애하는 장군님, 수암농장에서 하게 될 방식상학준비가 다 되였습니다.》

아까부터 팔목시계를 들여다보던 군당책임비서가 경애하는 장군님께 정중히 올리는 말씀이였다.

《그렇습니까.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책임비서동무! 그 동무들에게 량해를 좀 구해주오. 아무래두 이 애들의 학교에 한번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들려보고싶었는데…》

이윽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일행은 학교에 이르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생님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교실들과 실험실들까지 돌아보시였다.

어느덧 시간은 많이 흘렀다.

운동장으로 나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당책임비서에게 말씀하시였다.

《수암농장에 모인 동무들이 몹시 지루해하겠구만. 하지만 그들

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일때문에 늦어진다면 리해해줄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 아직 점심식사도 못하시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철남이며 선일이, 용수 등 아이들을 한명한명 정깊은 시선으로 굽어보시다가 말씀하시였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아무런 구김살도 없이 씩씩하게 자라는것을 보는 때가 제일 기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일해도 힘들지 않고 몇끼를 굶는다 해도 배고픈줄을 모를것 같습니다.

이 애들이 얼마나 귀중한 애들입니까. 바로 이 애들의 어깨우에 우리 조국의 미래가 얹혀있는것입니다. 물론 건설도 중요하고 농사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후대들을 위한 일은 더 중요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의 뜻을 다는 알수 없었지만 철남이는 그만 코등이 시큰해지고 눈굽이 화끈 달아옴을 어쩔수 없었다.

잠시후 경애하는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다시금 들려왔다.

《우리는 이 귀중한 아이들을 우물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눈이 트이고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한마디로 멀리를 바라볼수 있는 눈을 틔워주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흐려진 안경유리를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두눈을 슴벅이며 서있는 교장선생님에게 말씀하시였다.

《교장선생님, 올해는 우선 여기 철남이네 학급부터 바다가야영소에 보내도록 합시다. 참 송도원야영소가 좋을것 같구만. 그래 너희들의 생각엔 어떠냐?》

순간 아이들속에서 《만세!》의 환호성이 일어났다. 그 소리는 학교뒤산으로 찌렁찌렁 메아리쳐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학교를 떠나신 다음에도 아이들이 부르는 만세소리는 그칠줄 몰랐다.

철남이네들의 아름다운 희망이 그대로 꽃이 되여 피여난듯 푸르른 하늘가에는 햇솜같은 구름이 두둥실 떠올랐다.

(량철수)

△ 작품의 주제

주제란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이다. 즉 글의 목표와 같은것이다.

소설 《멀리를 보라》에서 주제를 찾아보자.

작품에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펼쳐진다.

생물시간에 철남이가 바다에서도 살고 민물에서도 사는 고기이름도 대지 못하여 망신당하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철남이가 밤청대를 해놓고 선일이를 골려주는 이야기도 있다.

작품에는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철남이네를 만나주시고 그들로부터 생물시간에 있은 일과 밤청대를 할 때 있었던 일까지 친히 들어주시고 학생들이 여러가지 지식을 가진 나라의 역군으로 자라나도록 철남이네 학급을 바다가야영소에 보내자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도 있다.

작품에 그려진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하여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위대한 대원수님의 사랑속에 자라나는 산골아이들에 대한 문제이다. 다시말하여 산골아이들도 위대한 대원수님의 사랑속에서 조국의 미래로 어떻게 자라나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기본문제 즉 주제이다.

소설에서는 이 기본문제를 풀기 위하여 작품에 그려보인 여러 이야기들을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산골아이들에게 돌려주신 사랑의 이야기에 하나로 꿰놓고있다.

이와 같이 주제는 작품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로 묶어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로 내세운것이다.

읽기교재

24. 티엔챠오령의 눈보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친솔하신 베이만(북만)원정대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고 귀로에 오른것은 주체24(1935)년 1월 하순이였다.

그해따라 베이만땅에는 눈이 많이 내렸다.

원정대가 베이만을 떠나던 그날도 발목을 휘감는 폭설이 물커지게 쏟아져내렸다. 그 폭설은 원정대의 발자국을 순식간에 메워주어 은밀히 행동하기에는 안성맞춤하였다.

그러나 그 푸짐한 하늘의 선물도 적의 매눈같은 감시경으로부터 원정대를 완전히 감싸주지는 못하였다.

어떻게 알고 뒤따랐는지 적의《토벌대》가 한나절 행군도 못 채우고 덤벼들었다. 악질로 소문난 정안군의 요시자끼부대였다. 놈들은 제놈의 군대 1 000명을 죽이는 한이 있어도 원정대를 전멸시키려고 처음부터 악착하게 달려들었다.

한걸음을 나가자고 해도 피어린 격전을 해야 하였다. 눈보라는 얼마나 세차게 일었던지 적아를 구분할수 없어 먼저 말을 걸어보고서야 싸움이 붙군 하였다.

원정대는 추격해오는 적들과 치렬한 전투를 벌리면서 행군을 다그쳤다.

그사이 마련하였던 길식량도 인차 거덜이 났다. 원정대는 며칠동안 생눈으로 끼니를 이어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사방을 둘러보아야 인적기라고는 느낄수 없는 황량하고 무정한 대지에서 눈은 원정대가 돈을 주지 않고서도 구할수 있는 유일한 식량이였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도 눈으로 요기를 하시면서 허리를 치는 눈길을 앞장서 헤쳐나가시였다. 어쩌다 먹을것이 조금씩 생길 때면 그것을 대원들앞으로 돌려놓으시였고 밤이면 대원들과 꼭같이 보초를 서시였다.

적들의 집요한 추격과 인정사정 모르는 사나운 추위를 이겨내며 부대가 티엔챠오령(천교령)부근에 이르렀을 때였다.

사선의 고비를 넘고넘으시며 진두에서 대오를 이끌어나가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그만 촉한에 드시였다. 잡숫지도 주무시지도 쉬시지도 못하시여 쇠약해지신 신상에 병마가 달려들었던것이다.

온몸을 화독처럼 달구는 무시무시한 고열과 오한은 마침내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눈구뎅이속에 사정없이 쓰러뜨리였다. 나중에는 손발마저 가드라들고 빈사상태에까지 빠지시였다. 대원들이 달려들어서 손발도 주물러드리고 팔다리도 주물러드려서야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군 하시였다.

한흥권중대장은 대원들과 함께 사람이 타고갈수 있는 발구를 만들고 거기에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모신 다음 번갈아 끌었다.

놈들은《토벌의 왕》이라는 구도의 중대까지 더 들이밀었다. 구도놈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중병에 걸리신 틈을 타서 원정대를 싸움없이 추격하면서 한사람한사람씩 제껴버리려고 꾀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빈사상태에서 깨여나시였을 때에는 원정대가 16명뿐이였다.

다들 어디로 가고 이 동무들만 남았을가, 그 아까운 전우들이 모두 티엔챠오령의 눈속에 묻혔단 말인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가슴이 아프시였다.

《왕대흥은 어데 갔소?》

목안이 마르시여 말을 하실수 없게 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불밑에 놓여있던 싸창자루로 설자를 써보이시였다.

한흥권중대장은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고개를 푹 떨구었다.

《정치지도원동무는 전사했습니다.》

김택근소대장이 울먹거리며 대신 말씀올렸다.

왕대흥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안녕을 위해 적들의 포위를 솔선 헤치다가 자신의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쳤던것이다.

날파람있는 싸움군이며 유능한 정치일군이던 왕대흥을 잃으신 슬픔이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가슴을 허비였다. 더구나 시신은 안장조차 못했다는것이였다.

《이 북만땅에 눈이야 많지 않은가. 왜 눈으로라도 안장하지 못했소?》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하마트면 이런 말씀을 할번 하시였다. 그러나 비분과 회오로 몸부림치는 김택근의 정상과 리성이 그것을

눌러버리였다.

김택근인들 왜 그걸 모르겠는가.

그 인정이 후한 사람이 오죽이나 급했으면 안장도 못하고 돌아섰겠는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권총자루는 다시금 설자를 새기였다.

《왕대흥이 죽은 골짜기를 똑똑히 기억해두었소?》

《네, 그걸 왜 잊어버리겠습니까.》

김택근의 대답이였다.

《그러면 됐소. 해토가 되면 와서 묻어주자구.》

대원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눈우에 글을 쓰실 때마다 글자들이 덧씌여지지 않게 하느라고 발구를 앞으로 조금씩 움직여드리였다. 그리고 눈물을 씹어삼키였다.

왕대흥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 얼마 안되여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또다시 실신상태에 빠지시였다. 온몸을 통채로 불사르는것 같은 고열속에 환각인지 꿈인지 분간할수 없는 몽롱한 세계가 펼쳐졌다.

…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왕대흥과 같이 담가를 드셨는데 차광수와 저우바오중(주보중)이 팔베개를 하고 나란히 누워있다. 이상하게도 차광수며 왕대흥은 산 사람같았다.

령길을 오르자니 심한 갈증이 나셨다. 길가의 자그마한 웅뎅이에서 고인물을 마시려는데《아서라!》하는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린다. 소복단장을 하신 강반석어머님께서 영주동생과 함께 고개마루에 서계신다. 그 물은 독물이라며 마시지 말라신다.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눈에는 올챙이알이 와글거리는 그 물이 정화수처럼 보이신다. 다시 물 마실 차비를 하시는데 어머님의 두번째 경고가 또 들려왔다. 고개마루를 보시니 어머님도 동생도 종적을 감추시였다.…

누가 흔들며 부르는 소리에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환각에서 벗어나시였다.

《장군님, 제발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주십시오. 장군님께서 일어나지 못하시면 우리 나라가 빛을 보지 못해요.》

그다음은 또 누구인지가 왈칵 매달리며 웨치였다.

《대장동지가 이대로 가시면 조선이 망합니다.》

가까스로 눈을 뜨시니 대원들이 빙 둘러서서 발을 구르며 울고

있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타이르고싶으시였으나 그럴만 한 기운도 없으시였다. 실상은 자신께서도 그 순간에는 울고계시였던것이다.

다시금 아무것도 분간할수 없는 혼미상태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엄습하였다.

다음날 아침 고열에서 잠간 해방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눈을 뜨시니 수림속 공지에 서있는 발구와 그 주변에 성벽을 쌓은듯 쓰러져있는 16명의 대원들이 보이였다.

(며칠째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내처 싸움만 하였는데 저 동무들인들 무슨 힘이 있겠는가. 나를 살리느라고 고생인들 오죽했겠는가.)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이 자신을 위안하는것이 아니라 자신께서 그들을 위로해야 할 처지에 놓였음을 느끼시였다. 가슴이 답답하시였다.

(아직도 갈길은 료원한데 끌날같은 저 친구들이 기진해서 다 쓰러졌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저들에게 과연 자리를 차고 다시 일어나 왕청으로 돌아갈 힘이 있겠는가. 저들이 저 눈보라속에서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파묻힐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혼자 살아남아서 무얼 하겠는가. 내가 지금까지 항일의 기발을 들고 만난을 극복하며 꾸준하게 싸워올수 있은것도 저 사람들이 시종일관 나를 지지하고 받들어온 덕이며 내가 그들을 믿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해온 덕이다.

저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살수도 없고 혁명을 할수도 없다. 저 사람들이 나를 살렸으니 이제는 내가 저 사람들을 살려내야 한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일어나시려 안깐힘을 써보시였으나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으시였다.

겁을 모르는 불새마냥 창창한 대공으로만 날아다니시던 한생의 뜻이 여기서 그만 죽지를 꺾이우고 주저앉고마는가 하는 좌절감으로 하여 가슴은 천만갈래로 갈기갈기 찢기는것 같으시였다.

그러나 다음순간 대오가 여기서 더 추서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재생의 희망을 가지고 유격대를 쳐다보던 민족이 슬퍼하고 실망할것이라는 생각이 드시였다. 그리고 조선은 결국 일제의 영원한 노

에로 되고만다는 생각이 불현듯 뇌리를 치시였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설사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를 쓰고 살아서 혁명을 해야 한다는 오직 한가지의 결심으로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으시였다.

무겁게 내려감기는 눈시울을 눈가루로 문지르시며 침착하게 사색을 이어나가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머리속에는 하나의 시상이 떠오르시였다.

일제놈의 발굽소리는 더욱 요란다
금수강산 우리 조국 짓밟으면서
살인방화 착취략탈 도살의 만행
수천만의 우리 군중을 유린하노나
…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쓰러져있는 한 대원을 흔들어 앉힌 다음 가사를 받아쓰게 하시였다. 처음에는 경애하는 대원수님과 대원이 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쓰러졌던 전우들이 하나둘 일어나 노래를 합창하였다.

티엔챠오령의 눈보라를 길들이며 울려퍼진 항일의 노래소리!

그 노래소리는 원정대를 다시 일떠세웠다. 원정대는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칠 멸적의 투지를 안고 지엔다오(간도)에로의 행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갔다.

25. 소년단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는 기풍을 세우겠다

저는 소년단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는 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들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소년단조직생활은 소년단원들을 사상적으로 단련하고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학교입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은 조직생활을 잘해야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가 될수 있으며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해야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수 있고 공부도 더 잘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소년단원들은 소년단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기간 소년단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소년단조직생활에서 저의 결함은 소년단모임에 적극 참가하지 않은것입니다.

소년단원들이 소년단에서 조직하는 모임에 참가하는것은 응당한 의무입니다. 소년단원이 소년단모임에 참가하지 않으면 조직생활을 한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소년단모임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며칠전에 있은 분단모임에도 빠졌습니다. 그날 저는 분단위원장동무한테는 아파서 못 참가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어머니를 따라 외가에 갔다오느라고 빠졌습니다. 이것은 소년단원으로서 매우 부

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구 저는 소년단모임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맨뒤자리에 앉아 동무들과 소곤거리거나 딴 생각을 하면서 문제토의에 적극 참가하지 않는 때가 많았습니다.

저의 소년단생활에서는 조직에서 준 분공을 제때에 실천하지 않는 결함도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번달에 아동단원 전기옥소년의 투쟁이야기를 읽고 동무들앞에서 발표할 분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구실 저구실을 대면서 준비를 하지 않고있다가 분단위원장동무한테서 독촉을 받고서야 발표했습니다. 그러다나니 날자도 계획했던 날보다 이틀이나 지연시키고 준비가 부족해서 동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의 소년단생활에서 이와 같은 결함이 나오게 된것은 조직생활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옳바른 조직관념이 서있지 못한데 있습니다.

저는 자신의 조직생활에서 나타난 결함을 하루빨리 고치고 소년단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는 기풍을 세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가르치심,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말씀을 깊이있게 학습해서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구 소년단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존엄있게 대하며 학습과 생활을 언제나 조직에 의거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년단모임에 빠짐없이 참가하고 조직에서 주는 분공을 제때에 어김없이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년단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해서 자신을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끝없이 충실한 소년근위대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글짓기교재

26. 원한에 찬 소녀의 모습

나는 지금 한폭의 그림앞에 서있습니다.

지난날 나어린 한 소녀가 원한의 부두가에서 크나큰 설음을 안고 선주놈의 눈총을 받으며 힘겨웁게 물고기를 손질하는 애처로운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살을 에일듯 한 맵짠 추위에 퍼렇게 언 두볼로 흘러내린 눈물이 고드름으로 맺혀있는 소녀, 물고기비늘로 얼룩진 험한 옷을 입고 언 손을 입김으로 호호 녹여가며 고기밸을 따는 소녀의 모습은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직은 어머니의 품속에서 어리광을 부려야 할 애어린 소녀인 그가 어찌하여 세상에 태여나서부터 이처럼 모진 설음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가 처음으로 쥔것은 연필이 아니라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때기칼이였고 그가 처음 간 곳은 학교가 아니라 부두가에 무드기 쌓인 물고기더미였습니다.

먼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앓는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먹여살려야 할 무거운 짐이 이 어린 소녀의 연약한 두 어깨에 지워졌기에 그는 이렇게 노예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소녀의 설음과 원한에 찬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가슴은 지금 그 저주로운 세상과 안경잽이 선주놈에 대한 증오심으로 끓어번지고있습니다.

착취계급들이란 어느 놈이나 다 인민들의 피땀을 빨아먹는 흡혈귀들입니다. 이놈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로동자, 농민들이 절대로 행복하게 살수 없습니다.

저주로운 착취사회를 잊지 말라는듯 부두가의 소녀는 오늘도 그날의 모습으로 입가에서 언 손을 내리우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주, 자본가놈들에게 모진 착취와 압박을 받으며 눈물겹게 살아온 지난날을 한시인들 잊을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조국 남녘땅에서는 숱한 어린이들이 배움의 길을 잃고 부두가의 소녀처럼 헐벗고 굶주리며 길가에서 헤매고있습니다.

그림의 소녀와 오늘의 남조선어린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고맙고 귀중한것인가를 가슴깊이 느끼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려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우리의 행복은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착취사회에서 피눈물을 뿌

리며 살아온 지난날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고 빛내여나가기 위해 학습과 소년단생활을 더 잘하겠습니다.

△ 감상문

감상문이란 그 무엇을 보거나 듣고 자기가 배우고 느낀 점을 적은 글이다.

감상문은 무엇을 보고 쓰는가에 따라 영화감상문, 읽은책감상문, 그림감상문 등 여러가지로 나눈다.

감상문은 무엇을 보고 느낀것 가운데서 자기의 가슴을 가장 크게 울려준것을 골라써야 한다.

감상문에서는 먼저 자기가 무엇을 보았는가에 대하여 쓴다.

다음 본것에서 느낀 점과 배운 점을 차례로 쓴다. 느낀 점은 느낌을 불러일으킨 사실과 대상을 결부시키면서 쓸수도 있고 느낀 대상과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한 다음 거기서 받은 느낌이 무엇인가 하는 식으로 쓸수도 있다.

감상문의 끝에는 자기의 결의를 간단히 쓴다.

27. 풍년보름달

황금물결 듬뿍 떠서 세수를 했나
그 얼굴이 환한 둥근 보름달
산같은 낟가리 어깨에 앉아
가던 길 멈추고 웃고있어요

만풍년을 가꾸던 전투장마다
노래선물 안고간 꼬마예술대
둥둥 치던 큰 북을 올려놓았나
큰 북채로 밤새껏 치고싶구나

아까 보고 또 봐도 그냥 있으니
하늘길 먼길을 언제 가려나



그래도 좋아서 앉아있어요
만풍년낟가리의 둥근 보름달

달님이 낟가리를 잡고있나요
낟가리가 둥근달을 안고있나요
얼굴을 마주하고 하는 이야기
나도나도 정말이지 듣고싶구나

아버지대원수님 해빛아래서
싹 트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어
춤을 추며 만풍년이 솟아났다고
한없는 그 사랑을 속삭이지요

만풍년의 향기에 그만 취해서
낟가리에 주저앉아 웃는 보름달
온 세상에 전해줄 기쁨이 커서
가던 길을 잊고서 앉아있어요

그 자랑을 혼자서 어찌 전할가
해님도 온 세상에 함께 전하자
아침해님 기다려 앉아있나요
만풍년낟가리의 풍년보름달

(박문수)



읽기교재

28. 꼬마대장

전선동부로 통하는 큰길에서 한 오리가량 산골짜기로 갈라져 들어가면 배나무골이라는 동네가 있다.

매일 낮 서너시만 되면 이 마을에는 나팔소리가 울리고 이어 손에손에 물통을 든 아이들이 마을뒤의 소나무가 꽉 들어찬 골짜기로 모여든다. 그 골짜기는 마을에서 묵군 하는 운수중대 자동차들이 머무는 곳이다.

아이들은 자동차에 넣을 물도 떠다주고 나무가지를 꺾어다 자동차의 위장도 해주면서 운전수들을 따라다니며 돕는다. 늘 이 마을에 들리여 꼬마들의 도움을 받군 하는 한 운수중대장은 이들을 꼬마군대라고 하면서 꼬마대장 용수에게 번쩍번쩍하는 나팔까지 구해다준 일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동틀무렵에 그 중대장아저씨가 25대의 포탄실은 운수차를 몰고 마을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날 낮에 있은 폭격에 마을앞 큰길의 다리가 끊어졌다.

용수는 운수중대가 머물고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곳 천막안에서는 운수중대아저씨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용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아저씨들은 다리가 끊어진 일때문에 걱정하고있었다.

(정말 야단났구나. 다리를 놓으려면 밤에 놔야겠는데 그렇게 되면 오늘 밤으로는 포탄이 전선에 가닿을수 없다지?! 어떻게 하나?)

구름 한점 없는 가을하늘에 수리개 한마리가 두 날개를 쭉 펼친채 하늘을 빙빙 돌다가 서산마루로 살같이 날아넘어갔다.

문뜩 천막안에서 중대장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린다.

《어디 좀 돌아가는 길이라도 없을가?… 달구지길이라도…》

《돌아가는 길?》

용수의 머리에는 피뜩 버들골로 가는 골짝길이 떠올랐다. 마을앞에 큰길이 새로 난 뒤로 다니지 않던 달구지길이다. 네해째 묵었으나 험한데를 몇군데 고치면 자동차도 꽤 감직했다.

(옳지, 그 길을 돌아보자. 어떻게 해서라도 자동차를 가게

하자.)

용수의 까만 두눈에는 생기가 빛났다.

용수는 재빨리 되돌아서서 달리였다. 마을 뒤산에서 급히 부는 나팔소리가 울렸다. 꼬마부대의 비상소집신호였다. 그러자 마을 집집마다 소동이 일어났다. 미처 모자를 못 쓰고 웃옷을 그냥 손에 쥔채 속옷바람으로 뛰쳐나오는 아이도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10분후에 꼬마부대는 두줄로 가로 늘어섰다.

《중대 나란히! 차렷!》

남식이의 쨍쨍한 목소리가 울렸다.

용수는 멀리 마을 저편 행길쪽을 깊은 생각에 잠겨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꼬마중대앞에 나선 전투임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우리들의 전투임무는 마을 뒤골짜기의 달구지길을 정찰해서 그 길로 자동차가 갈수 있도록 하자는것입니다. 이 전투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열명으로 되는 정찰조원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꼬마대장은 위엄있게 대원들을 빙 둘러보더니《남식이, 칠성이, 태호…》 하고 그중 초중반의 큰 아이들만 짚어내려갔다.

30분후에 정찰조는 골짜기로 들어갔다. 앞에 선 대장의 꽁무니에는 전투가방밖에 또 전지가 대롱대롱 달려있었다. 괭이며 삽을 둘러멘 그들은 골짜기를 더듬어나갔다.

큰길에 나선 용수는 전투가방에서 흰종이를 꺼내여 중대장아저씨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지도와 함께 그것을 남식이에게 주어 운수중대에 련락을 보냈다.

용수네가 폭탄자리웅뎅이를 한창 메우는데 분대장인 남식이가 운수중대의 한 아저씨를 데리고 달려왔다. 아저씨는 길을 돌아보고 인차 돌아갔다. 곧 운수중대가 올것이라는것이였다.

벌써 어둑어둑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는데 하늘엔 마침 반달이 걸려있었다. 사기가 하늘을 찌를듯이 높아진 용수네는 노래소리도 우렁차게 삽과 괭이를 휘두르며 길닦기의 마지막고비를 다그치고있었다.

… …
정의의 총칼로써 원쑤를 무찔러
공화국은 영원히 부강하게 살리라
… …

노래소리는 찌렁찌렁 어둠속에 잠긴 먼 벌판까지 울려갔다.

그런데 이때 남식이가《폭탄이다!》하고 소리쳤다. 용수는 첫순간 놀랐으나 지휘관이라는것을 생각하고 명령했다.

《덤비지들 말라! 엎드렷!》

아이들은 모두 밭고랑에 엎드리였다.

꼬마대장은 남식이가 가리키는 곳에 전지를 비치였다. 길섶에 시꺼먼 폭탄이 전지불에 등어리를 번뜩 드러냈다. 꼬마대장은 폭탄을 눈총으로 녹여내기나 할듯이 쏘아보며 말했다.

《폭탄을 치워버리자! 사방으로 삐죽 나온 저 날개에 바줄을 걸어서 잡아당기자.》

아이들은 용기가 났다. 그러는데 아르릉아르릉 자동차소리가 나며 불빛이 골짜기우로 뻗어오른다.

《남식이, 일남이… 빨리 마을로 뛰여갔다 오라! 바줄을 가져와!》

아이들은 쏜살같이 마을로 달려갔다.

용수에겐 폭탄이 그 어떤 괴물같이 보였다. 삐죽한 주둥이를 땅에 박고있는 꼴이 마치 봄에 벼모를 낼 때 장단지에 붙어 피를 빨던 거마리주둥이처럼 보였다. 그렇다. 다른게 무엇이겠는가, 바로 저것은 미제놈의 주둥이인것이다. 저놈은 지금 전선의 아저씨들이 기다리는 포탄을 막아서고있는것이다.

용수는 온몸이 활활 타는것 같았다.

그런데 이때 부르릉부르릉 자동차소리가 들려왔다. 마을쪽을 아무리 살펴도 아이들은 오지 않는다. 그는 안타까와 자동차의 불빛과 마을쪽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수십대의 자동차가 이곳까지 와서 덜컥덜컥 멎어버릴것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럴수 없다. 네가 정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참된 소년단원이라면 용수, 너는 너의 초소에서 자동차를 멈추게 할수 있겠니? 뽑아버려야 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어코…)

용수는 몸을 솟구쳐 밭머리에 불쑥 일어섰다. 주먹을 꽉 부르쥐고 폭탄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폭탄을 덥석 안은 꼬마대장은 이를 악물고 있는 힘을 다하여 한걸음한걸음 밭고랑을 타고 넘었다. 그의 눈앞에는 몸으로 적의 화구를 막은 빨찌산영웅 김진아저씨의 영웅적모습이 떠올랐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것보다 더 영예로운것은 없다고 한 리수복영웅이 남긴 말도 귀가에 쟁쟁히 들렸다.

얼마쯤 갔을가. 용수는 커다란 웅뎅이속에 폭탄을 집어던졌다. 폭탄은 데굴데굴 웅뎅이밑으로 굴러내려갔다. 용수는 되돌아서서 냅다 뛰였다. 그런데 이때 눈앞에 시뻘건 불기둥이 솟으며 몸이 허궁 날리였다. 용수는 정신을 잃었다.…

강한 알콜냄새가 코를 콱 찌르는 바람에 용수는 정신이 들었다.

《어떻소? 위생지도원동무!》

귀에 익은 목소리다.

(그렇지, 중대장아저씨구나.…)

《일없습니다. 폭풍에 좀 날려서 정신을 잃었을뿐 다친데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주사기운이 도는지 피여납니다.…》

《용수야, 애, 애!》

중대장아저씨가 용수를 잡아흔든다.

용수는 누운채로 흔들리우다가 눈을 번쩍 떴다.

그의 눈앞엔 중대장아저씨와 동무들과 운수중대아저씨들의 근

심에 찬 얼굴들이 보였다.

꼬마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팔다리가 말을 잘 듣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길우에 늘어선 수십대의 자동차들을 볼수 있었다. 꼬마대장의 얼굴에는 자못 만족스러운 웃음이 피여올랐다. 두볼에는 애티있는 볼우물이 옴폭 패이였다. 꼬마중대원들은 여느때는 그렇게도 엄숙하던 위신있는 자기네 대장도 역시 아이였다는것을 비로소 느낀듯 신기하게 대장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꼬마대장은 중대장아저씨의 손을 꽉 그러쥐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다정하게 속삭이였다.

《아저씨, 어서 떠나세요.》

《오, 오냐, 오냐…》

중대장아저씨는 용수를 꽉 그러안았다. 그리고 용수에게 무엇인가 훌륭한 말을 해주고싶었으나 목이 메였다.

잠시후에 긴 호르래기소리가 야무지게 울리더니 맨 앞차쪽에서 한 전사가 기발을 들었다. 앞차는 불을 꽉 켜고 부르릉 하고 발동소리도 가볍게 달려나갔다. 용수의 별같은 두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괴였다. 마지막차가 꼬마대장앞에 와서 딱 멎었다. 운전칸문이 덜컹 열리더니 중대장아저씨가 뛰여내린다. 그는 꼬마대장과 그의 중대원들앞에 다가오더니 《꼬마중대동무들! 우리 운수중대는 동무들의 큰 도움을 받아 전선으로 무사히 달리게 되였습니다. 전체 중대전투원들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손을 올려 인사를 하는것이였다. 그렇게도 군대식행동과 군대식말을 좋아하던 꼬마대장도 그만 이번만은 당황했다.

그는 중대장아저씨의 손에 매달리면서 《아저씨, 뭘 그러세요. 어서 떠나세요.》 하고 어쩔줄을 모른다. 중대장아저씨는 그를 꽉 껴안았다. 그리고《고맙다, 정말 고맙다! 기특한 아이들아!》이렇게 속삭이는것이였다.

이때 용수는 갑자기 생각났는지 전체 꼬마중대원들을 대표하여 《아저씨, 포병아저씨들을 만나면 우리 꼬마중대의 몫까지 합쳐서 더 많은 양코배기놈들을 때려부셔달란다구 전해주세요!》 하고 말했다.

《그—러—마!》

중대장아저씨는 크게 웨치고 손을 흔들어보이더니 운전칸에 올라앉았다.

자동차는 부르릉 경쾌하게 달려나갔다. 꼬마대장과 아이들은 저 멀리로 쏜살같이 달려가는 자동차들의 불빛을 오래오래 바라보고있었다.

하늘에서 반달이 웃고있었다.

별들도 유난히 반짝거렸다.

(김병훈)

△ 작품의 사상

작품의 사상이란 그 작품을 통하여 작가가 내린 주장이며 결론이다.

문학작품에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작품에 그려진 이야기들은 현실에 있는 사건들을 거울에 비쳐보이듯이 아무것이나 그대로 옮겨놓은것이 아니라 작가가 노리는 목적에 따라 하나하나 골라 그려진것이다.

소설 《꼬마대장》을 보면 꼬마대장 용수가 인민군대아저씨들을 돕기 위해 꼬마부대의 비상소집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용수가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놈폭탄을 뽑아내여 인민군대아저씨들의 전선길을 보장하는 이야기도 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작가가 품은 생각에 의하여 얽어진것이고 자기의 주장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려낸것이다.

작가는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전쟁시기 소년들도 미제를 무찌르는 인민군대아저씨들을 몸바쳐 도와나섰다는 결론과 주장을 내리고있다. 이것이 이 작품의 사상이다.

이와 같이 작품의 사상은 그 작품에서 그려진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통하여 보여주려는 작가의 결론과 주장이다.

읽기교재

29.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나오는 사람들

꽃분이

순희 (그의 동생)

어머니 (꽃분이의 어머니)

철용 (꽃분이의 오빠, 후에 조선혁명군 대원)

황로인 (지주집 머슴)

조선혁명군 대원

마을사람들과 인민들

배지주

지주처

백만(배지주의 마름)

… …

제 1장

1경 지주네 집, 어느해 가을날.

△ 남성방창속에 막이 열리면 배지주와 지주처는 뜨락에서 백만이와 함께 소작료를 받아들이고있다.

머슴살이를 하는 철용이가 백만의 재촉을 받으며 할수없이 벼가마니를 메여나른다.

… … …

△ 꽃분이의 어머니가 쌀자루를 등에 메고 큰 대문안에 들어선다.

△ 철용 어머니를 발견한다.

철용: 어머니!

어머니: 철용아, 마지막빚을 다 가져왔다.

△ 철용은 가슴이 뜨거워지며 말을 못하고 어머니어깨의 쌀을 받아 멘다.

△ 어머니 대청마루앞으로 가서 허리를 구부린다.

어머니: 주사님, 마지막빚을 다 가져왔습니다.

△ 지주 턱짓으로 안에 들여가라고 하고는 장부책을 끼고 뜰안으로 내려선다.

△ 철용과 어머니는 쌀을 가지고 집뒤로 나간다.

… … …

△ 철용 쌀을 두고 돌아나와 자기가 머슴살던 방을 감회깊이 바라보다가 기둥을 어루만지며 노래한다.

철용: 아버지가 머슴살다 돌아가신 방
여기서 내가 또한 팔년 살았네
좁쌀 두말 빚진것을 물기 위하여
열한살 어린 때에 여기로 왔네

… … …

△ 철용 밖으로 나간다. …

… … …

△ 백만이 약탕관을 올려놓은 화로를 들고 나온다.

△ 안채에서 배지주와 지주처가 산삼이 든 곽을 들고 나온다. 지주 산삼을 꺼낸다.

… … …

△ 지주 기분이 좋아서 안방으로 들어간다.

△ 꽃분이를 따라 순희가 들어온다.

△ 꽃분이는 일을 하느라고 머슴방뒤로 사라진다.

지주처는 대청마루에서 말리우고있는 대추를 살펴보다가 한알을 씹어보며 방안으로 들어간다.

△ 혼자서 그 광경을 보던 어린 순희는 아장아장 대청마루로 가서 대추 한알을 집어들고 내려온다.

△ 지주처가 다시 나오다가 그것을 보고 순희에게로 달려내려온다.

△ 지주처년은 《아니, 이 더러운 년이 어디다 손을 대?》 하며 순희를 때리고 밀친다.

△ 순희 넘어지면서 끓는 약탕관을 뒤엎어 눈에 화상을 입는다.

지주처: 아이구, 이를 어떻게 하나? 산삼!

△ 지주처 넘어진 순희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흔든다.

△ 지주 달려나온다.

지주: 아이구, 산삼이 다 녹았구나, 산삼이!

△ 얼굴을 싸쥐고 몸부림치는 순희를 지주가 지르밟는다.

△ 어머니 급히 들어와 애걸한다.

지주와 지주처는 그래도 사정없이 순희를 발길로 차고 머리채를 거머쥐여 땅바닥에 쾅쾅 짓조긴다.

지주처: 산삼값을 물어내라! 산삼값!

지주: 너희들 네 식구를 몽땅 팔아두 이 산삼값이 안되겠다.

△ 꽃분이, 황로인, 영란 어머니 등이 달려들어온다.

△ 지주와 지주처 악에 받쳐 떠들며 들어간다.

어머니: 순희야!

순희: 엄마! 눈, 눈 아파! 눈!

꽃분이: 순희야!

△ 철용 들어온다.

철용: 순희야!

순희: 오빠가 어디 있니?

철용: 순희야, 오빠가 여기 있다. 오빠가 안 보이니?

순희: 오빠,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 어머니도 철용이도 꽃분이도 순희를 부둥켜안고 가슴을 친다.

혼성대방창: 아 —

△ 철용 순희를 업고 집으로 돌아가려 한다.

지주: (다시 나오며) 산삼값을 물려면 이젠 네놈두 네 에미두 당대 머슴을 살아야겠다!

철용: 뭐요?!

△ 격분한 철용 순희를 내리우고 지주놈을 쏘아보며 다가간다.

△ 지주놈은 개화장으로 철용을 때린다.

△ 철용 더는 분함을 참지 못하여 지주놈을 차넘긴다.

△ 철용 달려나간다.

— 무대 잠간 어두웠다 밝아지면 마을밖 언덕길—

△ 멀리 지주집에서 세찬 불길이 솟는다.

△ 방창속에 철용 순사놈과 형사놈에게 묶이여가고 어머니와 꽃분이 애절하게 철용을 부르며 뒤따른다. 《철용아!》, 《오빠!》

△ 순사놈과 형사놈들이 어머니와 꽃분이를 총탁으로 내리치며 밀쳐버린다.

… … …

꽃분이: 오빠!

어머니: (허둥지둥 언덕에 오르며) 철용아!

△ 꽃분이 언덕에서 발을 구르며 어머니품에 안긴다.

어머니: 머슴살이 팔년이 끝나자마자
감옥으로 가다니 어인 말이냐
남편 죽고 아들 잃고 딸은 눈 멀고
악착한 이 세상을 내 어이 살리

꽃분이: 우리 식구 한집에 살자 하더니
집앞에도 못 와보고 어데로 갔나

남성소방창: 불쌍하고 가련한 어머니신세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려나

— 무대 어두워진다.—

… …

제7장

2경 지주네 집.

△ 무대 밝아오르면 배지주 순사들과 술판을 벌리고있다.

지주: 온갖 재난 물러가고 행운이 온다
재산은 날을 따라 늘어가리라
내 집안에 황금의 꽃 활짝 피여나
부귀영화 술잔처럼 차넘치리라

그렇지만 그 꽃분이년을 놓친것만은 아수하단 말이야.

△ 백만 뜨락에서 대답한다.

백만: 아무리 찾아봐두 없는걸 보니 어디 가서 죽어 없어진게 틀림없습니다.

△ 이때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린다.

지주: 얘, 누구 손님이 오셨다.

△ 백만이 대문빗장을 벗기려는데 대문이 열린다.

△ 꽃분이 들어온다.

… … …

꽃분이: 우리 순희를 내놔요.

지주: 뭣이 어째?

꽃분이: 우리 순희를 어떻게 했어요?

지주: 아니, 이년이 환장을 했나.

△ 격분한 꽃분이 약탕관과 화로를 들어 놈들에게 던진다.

△ 지주와 지주처는 약탕관과 화로를 뒤집어쓰고 갈팡질팡한다.

△ 백만이 몽둥이로 꽃분이를 친다.

△ 꽃분이 쓰러진다.

△ 백만이 쓰러진 꽃분이를 질질 끌고간다. 무대는 따라서 이동되며 머슴방이 나타난다.

△ 백만이 꽃분이를 머슴방속에 처넣는다.

녀성소방창:

찬 서리에 꽃송이 떨어지듯이
애처롭게 땅우에 던져진 처녀
이 세상에 그 누가 구원해주랴
불쌍한 꽃분이를 구원할 길 없는가

△ 무대 다시 지주네 사랑방으로 바뀌면서 지주가 순사부장과 함께 바둑을 놀고있다.

△ 담너머로 무수한 홰불들이 나타난다.

△ 마을사람들이 홰불을 들고 지주집으로 달려온다.

△ 백만 담너머로 바라보다가 질겁하여 지주에게 알린다.

△ 지주, 지주처, 순사들이 공포에 떤다.

△ 폭동군중들이 달려들어 원쑤들에게 복수의 뭇매를 안긴다.

혼성대방창:

인민의 원한 인민의 원한은 터졌다
억눌리고 짓밟힌 인민들 모두다 일어났다
죄악의 세상 때려부시려
격노한 인민들 노도와 같이 일어났다

녀인1: 여러분, 꽃분이가 여기 있어요.

△ 황로인과 마을녀인들이 꽃분이를 부축하고 나온다.

황로인: 꽃분아, 네 오빠가 왔다.

꽃분이: 예?

황로인: 철용이가 살아 돌아왔다.

꽃분이: 아니예요, 우리 오빠는 감옥에서…

△ 마을녀인들이 순희를 데리고 들어온다.

순희: 언니야! 언니야!

꽃분이: 순희야!

△ 꽃분이와 순희가 서로 부둥켜안는다.

남성소방창: 아 ㅡ

△ 철용과 그의 전우가 들어온다.

철용: 꽃분아!

꽃분이: 오빠!

△ 꽃분이 철용의 품에 와락 안겨 운다.

꽃분이: 오빠, 왜 인제 와요, 왜 인제 왔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마을사람들: 헤여져 긴긴 세월 눈물속에서
서로서로 애타게 부르던 형제
꿈결에도 잠결에도 그리웁더니
험난한 풍파 넘어 다시 만나네

꽃분이: 달 밝으면 달이 밝아 더욱 그립고
눈내리면 눈이 내려 보고싶었네

꽃분이, 철용, 순희: 천리타향 낯선 길을 헤매일 때에
한시인들 잊었으랴 정든 나의 집

마을사람들: 사랑하는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오늘의 이 기쁨을 같이 나누리

△ 철용 마을사람들에게 호소한다.

철용: 피눈물 그 얼마나 흘리였더냐
천대받는 인민들아 일어나거라
우리를 구원할건 우리의 힘뿐
혁명군 따라서 모두 나서라

대중창: 아 모두 나서자
혁명군 따라서 모두 나서자

철용: 죄악의 이 세상 뒤집어엎고
인민의 새 세상 마련해가자

철용, 전우: 삼천리 내 조국에 꽃을 피우려
혁명의 한길로 달려나가자

대중창: 아 달려나가자
혁명의 한길로 달려나가자

— 무대 어두워진다.—

[속담]

○ 장이 달아야 국이 달다.
재료나 소재가 좋아야 그것으로 만든 물건도 좋다는 말.

○ 자랑끝에 쉬 쓴다.
일이 잘되여간다고 너무 좋아하며 자만하다가 그만 랑패를 겪게 된다는 말.

글짓기교재

30. 사랑하는 철이에게

철이야, 그동안 잘 있었니?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 광명성절에 영예로운 조선소년단에 입단하였다지? 나는 너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소년단원이 된 너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니. 앞가슴에 빛나는 소년단휘장을 달고 붉은넥타이 날리며 기쁨에 넘쳐 집으로 달려갔을 너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히 떠오른다.

네가 소년단에 입단하여 우리 집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소년근위대원이 또 한사람 태여나게 되였구나. 이것은 우리 집의 기쁨이며 자랑이다.

우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덕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철이야, 조선소년단원의 상징인 붉은넥타이에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져있는지 너도 잘 알지?

우리가 앞가슴에 휘날리는 붉은넥타이에는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 충실했던 항일아동단의 붉은 피가 스며있고 소년단원들에 대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단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소년단원들이 당에 끝없이 충실한 소년근위대로 억세게 자라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불러주는 붉은넥타이를 소중히 매고 학습과 소년단생활을 잘해나가자. 그리하여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끝없이 충직한 소년근위대가 되자.

내 이제 야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너의 소년단생활도 힘껏 돕고 나도 배우면서 서로 돕고 이끌어 우리 형제가 모범소년단원이 될것을 약속한다.

철이야, 나는 지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어린시절의 발자취가 어리여있는 장자산에서 야영의 나날을 즐겁게 보내고있다.

어제는 장자봉에로의 눈길행군을 했는데 정말 인상적이였다. 어찌나 눈이 많이 쌓였는지 발걸음을 옮기기가 힘들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눈길을 헤치며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의 품을 찾아가던 아동단원들의 모습에서 힘을 얻고 행군을 계속했다. 행군의 쉴참에 벌린 분단별 눈사람만들기와 오락회도 흥겨웠지만 밥짓기경기는 또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른다. 오늘은 스키타기를 한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어린시절을 따라배우며 몸과 마음을 키워가는 야영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겁고 보람찬지 모르겠다. 아마 너도 부러울테지.

내 며칠후에 집에 돌아가면 야영생활에서 있었던 감동깊은 일들을 빠짐없이 이야기해주마. 그날을 기다려줘.

그럼 오늘은 이만 쓰겠다.

안녕히.

××××년 2월 20일

형으로부터

읽기교재

31. 사랑의 길

전쟁의 불길이 온 나라를 휩쓸고있던 엄혹한 그 나날에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긴 조국의 미래는 꿋꿋이 자라고있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재진격의 길에서 있은 이야기이다.

어느날 저녁무렵 아버지대원수님께서 타신 차는 눈내리는 회상령길을 달리고있었다.

원쑤놈들의 맹폭격에 상처입은 한산한 산골짝마다에는 어둠이 깃을 펴고 길에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얼씬거리지 않았다.

그런데 산굽이를 돌아섰을 때 차창밖으로 소년들의 모습이 언뜻 스쳐지나갔다.

웬 아이들일가?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차를 멈춰세우시고 내리시였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흰눈송이들이 푸실푸실 떨어지는 컴컴한 령길을 내려오는 아이들을 바라보시며 부르시였다.

《너희들 이리로 오너라.》

아버지대원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달려온 학생들의 손에는 삽이며 곡괭이가 쥐여져있었다.

《그래 너희들은 미국놈의 비행기폭격이 심한데 어데에 갔다오느냐?!》

불비속을 헤쳐가시는 자신의 안녕보다 산골마을아이들을 먼저 념려해주시는 아버지대원수님이시였다.

은정어린 아버지대원수님의 물으심에 눈시울이 뜨거워진 한 소년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미제날강도놈들의 폭격에 마사진 령길을 닦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니 너희들이 닦아놓은 길로 우리가 제일먼저 온셈이로군.》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옆에 선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감동어린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참 훌륭한 일을 했구나. 꼬마들까지 전선원호사업을 도와나서는데 미국놈들이 견디여낼게 무어냐. 참 용쿠나.》

소년들은 자기들이 해놓은 적은 일을 이처럼 기특하게 여기시며 분에 넘친 치하까지 주시는 아버지대원수님앞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있었다.

시간은 흘러 그동안 내린 하얀 눈송이들이 아버지대원수님의 외투우에도 소년들의 어깨우에도 소복이 쌓였다.

부관은 오랜 시간 눈내리는 령길에 아버지대원수님을 모신것이 더없이 죄송스럽고 초조하였다.

하지만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소년들의 어깨에 덧쌓인 눈을 손수 털어주시면서 어린 가슴들에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며 시간 가는줄 모르시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시였다.

《너희들은 공부를 더 잘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승리할 날도 멀지 않았는데 중학교도 나오고 대학도 다녀서 훌륭한 과학자, 기술자가 되여야 한다.》

전쟁이 한창인 때에 대학이라니!

아버지대원수님의 말씀에 감격한 소년들의 맑은 눈동자는 별처럼 반짝이였다. 너무도 황홀하고 희한한 생각에 한 소년이 한발자욱 나서며 아버지대원수님께 《우리도 대학에 갈수 있습니까?》 하고 철없이 묻기까지 하였다.

철부지소년의 솔직한 물음에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확신에 넘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대학에 가구말구. 전쟁이 끝나면 너희들은 대학에 가서 마음껏 공부할수 있다.》

그러자 소년들은 환성을 질렀다.

《야! 대학!》

아이들은 희망의 꽃구름에 실려 두둥실 날아가는 기분이였다.

그러는 소년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전쟁이 끝나면 우선 평양에다 대학을 더 크게 짓고 아이들을 공부시킬 준비를 합시다. 우리가 혁명을 하는것도 후대들을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을 훌륭한 일군으로 키워냅시다. 그래야 우리의 손으로 파괴된 도시와 농촌을 더 아름다운 락원으로 건설할수 있습니다.

일군들과 소년들은 감동에 젖은 눈길로 아버지대원수님을 우러렀다.

사람마다 가렬처절한 전쟁의 운명밖에 다른것을 엄두도 못 내던 어려운 시각에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벌써 승리의 래일을 내다보시며 인민들과 새 세대들에게 안겨주실 락원의 설계도를 찬란히 펼쳐주시는것이 아닌가.

소년들은 모두 승리한 조국강산, 어디나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학교로 가는 자기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끝없는 환희에 잠겨있었다. 비록 어둠은 짙어가도 령마루에 서시여 창조와 건설의 새날을 불러오시는 아버지대원수님의 확신에 넘치신 원대한 구상으로 하여 온누리가 눈부신 아침처럼 환히 밝아오는듯싶었다.

참으로 행복한 조선의 꽃봉오리들이였다. 가장 위대한 사랑의 품에 안겨사는 축복받은 새 세대들이였다.

이윽고 아버지대원수님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다. 대원수님께서는 못내 아쉬우신듯 그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고 차에 오르시

였다.

소년들은 감격을 머금고 아버지대원수님을 바래워드리며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그날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 밤이였다.

아버지대원수님을 모시고 고산진을 떠났던 일군들은 개천군(당시)의 한 마을에 이르러 묵게 되였다.

새벽의 고요속에 온 마을이 깊이 잠든 그무렵 길가의 작은 집에 조용히 들리신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먼길을 달려오신 피곤도 잊으신듯 여전히 원쑤 미제를 때려부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계시였다.

어느덧 먼동이 푸름푸름 밝아오고있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아침해가 떠오르자 부관을 부르시였다.

부관은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일찍 부르시는걸 보니 무슨 중대한 일이 있는것이라고 생각하며 급히 달려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의 재진격에 의하여 해방된 마을의 아이들이 보고싶다고 하시면서 그더러 어린이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부관은 간밤에도 편히 쉬지 못하신 아버지대원수님의 건강이 념려되여 선뜻 발걸음을 못 떼고 한동안 자리에 서있었다. 움직일줄 모르는 그의 속마음을 알아차리신 대원수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부관을 재촉하시였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천만시름과 온갖 피로가 저절로 풀린다고 늘 말씀하시던 아버지대원수님이시였다. 그제서야 부관은 분초가 새로운 전선길을 잠시 멈추게 하신 대원수님의 높은 뜻을 깨닫게 되였다.

부관은 걸음걸음 감격을 안고 마을을 돌아다녔으나 아이들을 한명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큰 아이들은 모두 어른들과 함께 복구사업에 나가고 없었던것이였다.

되돌아온 부관을 보시자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못내 서운한 빛을 감추지 못하시며 작전지도를 다시 펼쳐드시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천진란만한 어린것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작전지도를 거두시고 문밖으로 나서시였다. 저만치 떨어진 마을 앞길에서 놀고있는 작은 처녀애들의 모습

이 눈에 띄우시였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조용히 그곳으로 다가가시였다. 하지만 아이들은 장난에 정신팔려 대원수님께서 가까이 오신줄도 모르고있었다.

《참 재미있게들 노는구나!》

귀여운 어린것들을 정겹게 지켜보시던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한 소녀를 덥석 안아올리시며 말씀하시였다.

《어디 한번 안아보자!》

넓으신 한품에 소녀를 그러안으신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그동안 너희들이 보고싶었다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한없는 기쁨에 겨워 어쩔줄 모르던 소녀는 아버지대원수님께 노래를 불러드리였다. 소녀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자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아주 잘 부른다고 거듭 치하해주시였다.

이날 마을의 소년자위대원들을 만나신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그들과도 오래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였다.

멸적의 포성 울리는 전선에로 가닿으시여야 할 시각은 바쁘시련만 아이들을 보시면 보시는대로 이처럼 발걸음을 지체하시니 아버지대원수님께서 달리신 전선길은 자욱자욱 새 세대들의 가슴마다에 넘치는 기쁨과 희망찬 래일을 안겨주신 빛나는 사랑의 길이였다.

△ 소리빛갈

소리빛갈이란 발음의 흐름을 꾸미는 말소리의 특성을 말한다.

소리빛갈에는 맑은소리, 속삭임소리, 깊은소리, 얄은소리, 굵은소리, 가는소리 등이 있다.

맑은소리： 깨끗하고 밝게 내는 소리이다.

속삭임소리： 귀속말로 가만가만 말하는 소리이다.

깊은소리： 배에 힘을 주고 내는 소리이다.

얄은소리： 목청을 가볍게 울리면서 내는 소리이다.

굵은소리： 입을 크게 벌리고 낮게, 굵게 내는 소리이다.

가는소리： 가늘게 내는 소리이다.

32. 마랸과 마술붓

먼 옛날에 마랸이라고 부르는 소년이 살고있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찌기 돌아갔습니다. 소년은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품팔이도 하면서 혼자서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배우려고 했지만 살림이 너무도 가난해서 붓 한자루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어느날 글방을 지나던 마랸은 안에서 선생님이 무슨 재미있는 그림을 그리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안으로 들어가서 선생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림을 배우고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미안하지만 저에게 붓 한자루 빌려주실수 없을가요?》

그러나 그는 대답대신 성을 벌컥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이 거지같은 놈! 네놈이 무슨 그림을 그리겠단 말이냐? 그런 생각은 아예 꿈에도 하지 말아!》

그리고는 소년을 대문밖으로 쫓아버렸습니다. 마랸은 생각했습니다.

(어디 그런 법이 있단 말인가. 가난한 사람은 그림그리는것도 배울수 없단 말인가.)

마랸은 마음이 굳센 소년이였습니다. 그는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가면 나무꼬챙이로 땅바닥에다 나는 새를 그렸고 나물을 캐러 개울가에 가면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바위에다 헤염치는 물고기를 그리군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여 집으로 쓰고있는 동굴로 돌아오면 벽에다 짐승이나 그릇들을 그리군 했습니다. 그래서 동굴벽은 온통 그림투성이로 되였습니다.

마랸은 이렇게 몇해를 두고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마랸은 그림을 아주 잘 그리게 되였습니다. 그가

새를 그리면 새는 곧 깃을 치며 날아갈것만 같았고 물고기를 그리면 방금 물속으로 헤염쳐갈것만 같았습니다.

어느날 저녁이였습니다. 마랸은 자리에 눕자 곧 잠이 들었습니다. 온종일 고된 일을 하고난 몸이라 몹시 고달팠던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나더니 붓을 한자루 주며 말했습니다.

《애야, 이건 마술붓이란다. 이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봐라!》

마랸은 붓을 쳐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금빛으로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소년은 너무 기뻐서 뛰여 일어나며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말았습니다. 잠에서 깨여난 마랸은 그만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손에 마술붓이 쥐여져있었기때문입니다.

마랸은 그 붓을 가지고 새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그 새는 날개를 푸득거리며 하늘로 날아올라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랸은 이번에는 물고기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물고기는 꼬리를 치면서 물속으로 들어가 헤염을 치며 놀았습니다. 마랸은 얼마나 기뻔지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마랸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날마다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보습이 없는 농민에겐 보습을 그려주고 호미가 없는 사람에겐 호미를 그려주고 등잔불이 없는 사람에겐 등잔불을 그려주고 물통이 없는 사람에겐 물통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랸이 마술붓을 가졌다는 소문은 어느새 온 나라에 퍼져 왕의 귀에까지 가닿게 되였습니다.

왕은 곧 부하들을 시켜 마랸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위하여 좋은 그림을 그리라는것이였습니다.

마랸은 왕이 가난한 사람들을 못살게 군다는것을 잘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왕을 위해서 어떻게 좋은 그림을 그려줄수 있겠습니까!

마랸은 왕이 룡을 그리라고 하면 두꺼비를 그리고 공작새를 그리라고 하면 보기 흉한 암닭을 그리군 했습니다. 그가 그린 두꺼비와 암닭은 참말 보기에도 더럽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것들은 고린내를 피우면서 왕의 앞뒤를 뛰여다녔습니다. 얼마후 왕궁안은 숨도 쉴수 없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성이 날대로 난 왕은 부하를 시켜 마랸에게서 마술붓을 빼앗고 그를 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마술붓을 빼앗은 왕은 그것으로 자기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먼저 금덩이로 된 산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욕심꾸러기왕은 금덩이산 하나만 가지고서는 성이 차지 않아서 금덩이산을 여러개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덩이산이 아니라 그저 큰 돌무더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돌무더기 하나가 갑자기 와르르 하고 무너져내려오면서 왕의 발등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욕심에 눈이 어두운 왕은 발이 아픈것도 아랑곳하지 않고《금덩어리산이 못되면 금벽돌산이라도 되라!》하면서 이번에는 벽돌장을 자꾸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긴 벽돌장 하나를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긴 벽돌장이 갑자기 구렝이로 변하더니 아가리를 벌리고 왕에게 달려드는것이였습니다.

만일 왕이 마랸을 놔주지 않았더라면 구렝이는 왕을 잡아먹었을것입니다.

마랸에게 마술붓을 돌려주고난 왕은 그에게 징그러운 벽돌산을 그리지 말고 시원한 바다를 그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마랸은 쓴웃음을 짓고나서 군말없이 바다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붓대를 떼자마자 왕앞에는 끝없이 넓은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왕은 흐뭇하여 마랸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바다에 물고기가 없느뇨?》

마랸은 마술붓으로 점 몇개를 찍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나타났습니다. 물고기들은 꼬리를 치며 헤

염을 쳐 깊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왕은 입이 헤벌쭉해서 마랸에게 급히 일렀습니다.

《속히 배를 그려라. 바다로 나가야겠다.》

그래서 마랸이 큰 나무배를 그리니 왕은 제 마누라들과 아들딸 그리고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소년은 붓대를 휘둘러 이번에는 바람을 그렸습니다. 그러자 바다에 물결이 일며 나무배를 두둥실 떠밀어보냈습니다.

왕은 배머리에 서서 배가 천천히 떠가는것을 보고 웨쳤습니다.

《바람을 더 불게 해라! 바람을 더!》

그래서 마랸은 붓대를 더 힘있게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세차게 불고 물결은 높아졌습니다. 돛이 팽팽하게 바람을 안자 배는 넓은 바다로 살같이 떠갔습니다.



마란은 몇번 더 붓대를 힘있게 휘둘렀습니다. 바람이 더 세차게 불며 바다가 소란하게 들끓더니 갑자기 산악같은 물결이 일떠섰습니다. 배는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불게 해라! 바람을 그만 불게 해라!》하고 왕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마란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바람을 더 세차게 불게 했습니다.

물결이 배전을 쾅쾅 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여 돛대가 부러진 배는 사나운 물결을 따라 끝없이 흘러갔습니다. 급해맞은 왕은 마란에게 손을 저으며 웨쳤습니다.

그러나 마란은 그 웨침소리를 들은체도 않고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람은 이제는 막 소리를 내며 세차게 불고 하늘땅은 온통 검은 구름에 뒤덮이여 어둑컴컴했습니다. 미친듯이 설레이는 물결은 물기둥을 일으키며 배안으로 쫘르르 쏟아지군 했습니다. 배는 마침내 뒤집혀 산산쪼각이 나고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왕과 졸개들은 모두 바다속으로 깊이 가라앉고말았습니다.

그후 마란은 곧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마란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한명도 없고 지금까지 그 이야기만 전해진다고 합니다.

(외국작품)

[속담]

○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다.
그릇된것은 아무리 겉을 가려도 정체가 드러나고야만다는 말.

○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무엇이나 이러저러한 경우에 맞추어서 하지 못하고 답답하게 외곬으로만 하는것을 이르는 말.

33. 나는나는 **김정일**화 제일 좋아요

새파란 잎사귀에
빨간 꽃송이
해님처럼 날 보고
반겨주어요

언제 봐도 고운 꽃
정말 고운 꽃
나는나는 **김정일**화
제일 좋아요

따사로운 해빛 안고
웃는 꽃송이
꽃봉오리 날 보고
활짝 피래요

언제 봐도 고운 꽃
정말 고운 꽃
나는나는 **김정일**화
제일 좋아요

(윤동향)

34. 이 세상 끝에서 끝까지…

나는야 평양학생소년예술단원
열두살 아직은 나이 어려도
대륙 넘어 대양을 건너
수많은 나라들 다녀온 소년단원

장미꽃향기 뿜는 유럽의 나라들
야자수 설레이는 남방의 도시들
어디서나 박수의 폭풍을 터쳤네
우리의 공연을 보며 사람들은 말했네
— **김정일**! 그이는 향도의 태양!

흰구름 스쳐날으는 비행기안에서
뻐스를 타고 지나는 외국의 거리들에서
사람들은 우리 손을 잡고 말했네
— **김정일**! 그이는 위인중의 위인!

얼굴빛과 말은 달라도
가는 곳 어데서나 그 어데서나
해솟는 아침바다처럼
설레는 마음, 우러르는 마음…

우리의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은
온 누리를 밝히시는 21세기의 태양!
그 해빛 우러러 따르는 마음
하늘땅 차고넘치네
아, 이 세상 끝에서 끝까지…

(한용재)

읽기교재

35. 양 촌

수돌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미국선교사 사무엘놈네 집에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아버지는 과수원을 가꾸고 젖소한테 여물을 주고 젖을 짜고 빠다를 만들며 어머니는 부엌일을 도맡아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사무엘놈의 집에서 천대를 받으며 고생스러운 생활을 하고있는 동안 수돌이는 집에서 애를 보았습니다. 세 동생을 데리고 떡씨름을 하고 별별 놀이를 다하며 돌아가다가 이것도 진하면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면 동생들은 의례히 양촌쪽을 가리킵니다. 등에 업힌 아이는 손을 들어 가리키고 순이와 삼돌이는 손목을 이끕니다. 거기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돌이는 좀해서 양촌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수돌이는 아버지, 어머니가 미국놈앞에서 천대를 받아가며 심부름을 해주는 모양이 보기 싫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놈의 아들 작키란 놈을 만나는것이 싫었습니다. 날마다 동생들을 데리고 놀 때면 작키란 놈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거지》, 《거지》 하고 놀려주는 놈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일부러 속력을 내여 동생들 가슴앞까지 와락 몰고왔다가 동생들이 질겁해서 《앙!》 하고 울면 그제야 슬쩍 손잡이를 돌려 달아나며 재미있다는듯이 히죽히죽 웃는 나쁜 놈입니다.

그렇다고 수돌이는 작키와 대들어 한번도 싸워보질 못했습니다. 키로 보아서는 저보다 조금 크지만 힘내기를 하면 이길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작키는 주인집 아이입니다. 작키놈을 때려주면 그대신 아버지, 어머니가 그보다 더 큰 수모를 받을것이 걱정되여 참군했습니다.

이런 사무엘놈네 집이기때문에 동생들이 가자 해도 손목을 이끌어도 좀해서 발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느날입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과수원에는 능금들이 새빨갛게 익은 가을날이였습니다.

이날만은 동생들이 너무 졸라대여 수돌이는 동생들을 데리고

양촌으로 가게 되였습니다. 가기는 갔어도 들어갈수는 없었습니다. 돌각담이 삥 둘러막혀있고 쇠창살대문은 활짝 열리였어도 그리로는 얼씬할수가 없었습니다. 쫑이란 놈의 개가 으르릉 하고 달려나오기도 하고 작키란 놈이 보면 달려와서 세도를 쓰며 권투를 해보자고도 합니다.

담장안 멀리 꽃언덕우에 뾰족하게 지은 사무엘놈네 집만은 빤히 구경할수가 있습니다. 그속에서 어머니가 일하고계십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돌이는 동생들을 데리고 대문께로 갔습니다. 그쪽에서는 아버지가 일하는 과수밭이 빤히 보이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날은 암만 바라보아도 아버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과수밭에는 바람에 불려 주먹같은 능금들이 너저분히 떨어져있습니다. 그것을 보니 금시에 주어먹고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도 연신 손을 들어 가리키며 달랍니다. 순이도 조릅니다. 삼돌이는 멋도 모르고 제가 들어가 주어오겠다고 서두릅니다.

아버지는 어디 갔을가.

이때 마침 젖소외양간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보더니 놀라면서 휘적휘적 대문께로 왔습니다.

《무엇하러 여길 왔니?》 하고 걱정을 하면서도 아이들이 귀여워서 번갈아 한번씩 안아줍니다.

《자꾸 오자구들 해서요.》

수돌이가 멋적어하며 대답했습니다.

《어서들 집에 돌아가거라. 이런데 와서 놀면 못써. 내 오지 말라고 안 그러던. 일 마치고 곧 갈게 응…》하고 아버지는 달래였습니다.

《아버지, 나 사과 한알 주어 응? 저기 떨어진것 많지 않어?》

비위좋은 삼돌이는 아버지의 손목에 매여달리며 졸랐습니다. 잇달아 여섯살짜리 순이도 조르고 등에 업힌 아이까지도 손을 저어 《나, 나…》 합니다.

《어디 그 깍쟁이 사무엘놈이 주어야지!》 하며 아버지는 집있는쪽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래두 떨어진거야 뭐라겠어요?》 하고 수돌이도 한마디 졸랐습니다.

아버지는 딱한듯이 아무 말도 안하고 한참 서있더니

《그렇긴 해두 원, 그놈이 말을 들을가. 가만 있거라. 어디 너희들이 배가 고파 왔다구 그리구 몇알 달래보자. 이리 오너라.》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가 과수원에 들려서 떨어진 능금 서너알을 집어들고 사무엘놈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수돌이랑도 줄렁줄렁 그리로 따라갔습니다.

《목사님, 저… 이 떨어진 능금 몇알만 좀…》

아버지는 나오지 않는 말을 억지로 꺼내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놈은 들은척만척 그냥 비스듬히 누워있었습니다.

《네? 목사님, 저의 아이들이 너무 배고파해서 서너알 주어왔는데요… 어떻게 좀 줄수 없습니까?》

아버지의 말은 조금 떨리였습니다. 듣고도 못 들은척 하던 사무엘놈은 그제야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무엇이요? 능금을 달라구요? 어떻게 김서방네가 먹을수 있소, 안될 말이요. 능금은 우리 미국사람처럼 문명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요. 안됩니다.》 하고 사무엘놈은 꽥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조선아이라고 먹을수 없겠습니까. 목사님, 정 사정입니다. 아이들이 와서 너무 보채기에…》

《안됩니다. 김서방, 내 한번 안된다면 안되는줄 알지요? 버릇 나빠집니다. 어서 내여다두시오. 그리고 아이들 빨리 돌려보내시오.》하고 수돌이와 그 동생들을 무서운 눈초리로 바라보며 사무엘놈은 손을 저어 나가라고 고함쳤습니다.

이꼴을 본 수돌이의 아버지는 정말 참을수 없었습니다.

한참동안 묵묵히 사무엘놈의 얼굴만 뚫어지게 노려보고 섰던 아버지는 금시 얼굴이 이상스럽게 실룩거려지며 능금든 두손이 부르르 떨리였습니다.

《예! 좋소. 이 더러운 물건 안 먹어도 좋소. 문명한 사람이라구요? 예, 문명한 사람 마음씨 참 훌륭하오. 당신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요. 더럽소!》 하고 웨치며 두손에 들었던 능금을 사무엘놈의 안락의자를 향해 되는대로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큰소리로 타일렀습니다.

《다시는 이 더러운 집에 오지를 말아라. 어서 집으로 돌아들가거라.》

수돌이는 이날처럼 사무엘놈을 미워해본적은 없었습니다. 매일처럼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사무엘놈과 그 집안식구들이 얼마큼 몹쓸 놈인가를 들어서 알았어도 이처럼 고약스러운 사무엘놈인것은 제 눈으로 처음 보았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지 못한것이 분했습니다. 이날 사무엘놈한테 쫓겨나온 수돌이는 동생들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전에는 별로 생각해보지 못하던 엉뚱한 생각을 해보게 되였습니다.

파일밭은 누구것인가?

파일나무는 마르고 잡풀만 돋아난 땅을 아버지가 일구어 나무를 다시 심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가지를 다듬어주고 이렇게 여러해동안 애써 키워서 지금은 저렇게 열리는 파일밭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키워낸 아버지는 과일을 한알도 가질수 없고 당치도 않은 멀리 딴 나라에서 온 아주 상관도 없는 미국놈만 마음대로 따먹을수 있을가.

수돌이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길가에서 돌멩이를 집어들고 능금나무를 향해 팔을 들었습니다. 이때입니다. 무엇이 뒤에서 휙 지나쳐오며 동생 삼돌이를 길바닥에 떼구루루 굴려놓았습니다.

수돌이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놈인가.》

그러면서 앞을 보니 사무엘놈의 아들 작키란 놈이 자전거를 타고 허둥거리며 지나가고있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수돌이는 결이 머리끝까지 올라 고함을 지르고나서 작키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발길로 자전거를 힘껏 걷어찼습니다. 그 바람에 자전거는 저만큼 가서 나딩굴었습니다. 그와 함께 작키놈은 길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뜻밖의 습격을 받은 작키놈은 수돌이따위는 어림도 없다는듯이 알지 못할 말로 지껄여대며 다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돌이는 기다렸다는듯이 일어나는 작키놈에게 다시 달려들어 또 한번 꺼꾸러뜨리고 가슴우에 타고앉았습니다. 작키놈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일어나보려고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억센 힘으로 짓누르고



있는 수돌이의 힘을 당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작키놈은 염소같은 울음을 매— 하고 터뜨리고야말았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수돌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소리나는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무엘놈네 대문밖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있었습니다. 여느날 같으면 이맘때 사무엘놈네 집을 나올 틈을 가질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였습니다. 또 여느날 같으면 작키놈과 싸움하는것을 보면 큰일날 일이라고 달려와서 떼여말릴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은듯 천연스러운 얼굴을 짓고있었습니다.

《수돌아! 그만 집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생들을 데리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무엘놈네 머슴살이를 그만두었던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수돌이는 승리를 자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큰소리로 부르며 작키놈을 그냥그냥 짓눌러주었습니다.

(강훈)

△ 문학에서 성격

우리의 생활에서 꼭같은 사람이란 볼수 없다. 사람마다 얼굴생김으로부터 그가 가진 사상, 말투, 성질, 취미에 이르기까지 제가끔 다른 모습을 가진다.

작품에서도 이처럼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인물을 그린다.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인물이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려진것을 문학에서 성격이라고 한다.

문학에서 성격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인물로만 아니라 그가 생활하는 시대와 그가 속해 사는 사람들에게서 볼수 있는 특징을 다 보여준다.

소설 《양촌》을 보면 수돌이의 아버지와 사무엘놈의 성격을 그리고있다. 수돌의 아버지는 사무엘놈의 머슴을 사는 조선사람으로서 고지식하고 량심적이며 가난하지만 놈들에게 굽어들지 않는 강의한 모습을 가진 인물로 그려져있다. 수돌이의 아버지는 다만 수돌이의 아버지로만이 아니라 나라없던 그 세월 착취와 억압을 받으며 가난한 생활에 시달리면서도 량심적이고 고지식하며 강의한 조선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진것이다.

사무엘놈은 악착한 미국선교사로서 수돌의 아버지를 깔보며 떨어진 능금 한알도 주지 않는 린색하고 거만하며 교활한 놈으로 그려져있다. 사무엘놈 역시 미국선교사 한놈을 그린것이 아니라 선교사의 탈을 쓰고 우리 나라에 기여들어 못된짓을 다한 교활하고 악착한 미국놈들의 본성을 그린것이다.

이와 같이 문학에서 성격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인물로 그리면서도 그가 사는 시대와 그가 속한 사람들에게서 볼수 있는 특징을 다 보여준다.

읽기교재

36.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

싸움으로 날이 새고 해가 저무는 612년 6월, 또 한차례의 처절한 싸움을 치른 고구려의 서쪽땅—료동지방에서는 아직도 불길이 타오르고있었다.

해질무렵, 청동색갑옷을 입고 허리에 긴칼을 드리운 한 장군이 깊은 생각에 잠겨 북평양(봉황성)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서장대에 서있었다. 그가 바로 고구려의 대신이며 이 전쟁의 운명을 두어깨에 지고있는 전선사령관 을지문덕이다.

그는 지금 압록수(태자하)계선에 발목을 매놓은 수나라대군을 멸살시킬 작전을 짜느라고 머리를 쓰고있다.

수나라침략군이 처음 료하를 건너 고구려로 쳐들어올 때는 이른봄인 2월이였는데 계절은 바뀌여 어느덧 초여름에 접어들었다. 수양제가 호통을 치며 300만을 들이밀 때에는 하늘이라도 무너뜨릴 기세였다. 그러나 10여년전에 30만대군으로 고구려에 쳐들어왔다가 녹아났던 그 모양으로 이번에도 료하를 건느는 첫 싸움에서 철벽같은 방어에 부딪쳐 숱한 주검만 내였을뿐 료동성을 돌파할수가 없었다. 다른 편으로 륙군과 힘을 합쳐 평양성(북평양—봉황성)을 공격하기로 약속했던 수군 역시 고구려군의 유인전술에 걸려 평양의 외성에까지 기여들었다가 쫄딱 녹았다.

이렇게 되자 수양제는 어떻게든지 전쟁형편을 뒤바꾸어보려고 우문술과 우중문의 부대를 주력으로 하는 9군으로 편성된 30만 5 000명을 고구려전선에 새로 들이밀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을 지고 보름나마 걸어오는 동안 지칠대로 지친 적들은 압록수에 이르자 맥을 잃고 주저앉았고 병사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였다.

생각에 잠겨있던 을지문덕은 드디여 적군의 수와 전투능력, 사기 등을 꿰들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적진에 들어가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부하장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몇명의 호위인원만 데리고 압록수를 건너 적진으로 들어갔다. 옷차림은 고구려군진지에 있을 때 그대로였다.

을지문덕이 적진에 이렇게 나타나자 적장들은 깜짝 놀랐다. 마치 자기 군대의 어느 한 진지를 돌아보는것 같은 자세가 아닌가.

을지문덕장군의 당당한 위풍은 첫 순간부터 적장들을 내리눌렀다. 강철로 빚어낸듯 억세고 장대한 몸집, 량쪽으로 날카롭게 치들린 짙은 눈섭, 그밑에 펴런 불이 이는듯 한 두눈, 굳센 의지를 말해주듯 꾹 다문 입, 온몸을 위엄있게 감싸고있는 번쩍이는 갑옷, 금시 튀여나올듯 한 허리에 드리운 긴칼… 그것만으로도 적장들은 기가 눌렸다.

을지문덕은 적장들을 휘둘러보며 말하였다.

《귀국의 군사들이 우리 나라 땅에 쳐들어오고보니 서로의 희생과 손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당신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두 나라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또한 얼마나 큰가. 그러니 이제라도 당신들은 군사를 철수시키고 두 나라가 화친을 맺는것이 좋을가 하오.》

한순간 기가 눌려 수군대던 적장 우문술은 한참만에야 용기를 내여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황제로부터 평양성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달리는 어쩔수 없을줄 아오이다.

정녕 장군이 강화를 희망한다면 고구려측이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오이다.》

《허—허— 장군의 판단은 너무도 짧은가 보오. 내가 이렇게 제 발로 찾아왔다고 당신들이 우리를 얕보면 그것은 큰 잘못이요.

내가 강화를 바라는것은 피차간의 무모한 희생과 손실을 생각해서 그러는거요. 싸움을 계속하고 안하는것은 당신네들이 할 일이니 좋을대로 하시오.》

을지문덕은 여유있는 미소로 적장들을 둘러보았다. 벌써 적의 움직임을 손금보듯 꿰든 그의 머리속에는 적군을 전멸시킬 기묘한 전략이 무르익고있었던것이다.

을지문덕은 담판을 그만하자는 말을 남기고 헌헌한 걸음으로 적진을 떠났다. 얼마후 을지문덕을 사로잡을 꿍꿍이로 적장들이 담판을 계속하잔다고 사람들을 보냈으나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적장들은 그대로 돌아갔다가는 황제에게 목을 잘리울것이 두려워 자기 군대를 평양성공격에로 발악적으로 내몰았다.

을지문덕의 마음은 든든하였다. 그는 허기진 적을 국내 깊숙이

끌어들여 힘을 다 뺀 다음 퇴각할 때 전멸시키기로 계획하였다. 그는 적군이 들어오는 요소요소에 기동력이 좋은 소부대들을 배치하였다. 그들은 적에게 싸움을 걸고는 못 당하는것처럼 퇴각함으로써 적들을 국내깊이로 유인하였다.

고구려군의 이러한 전술에 따라 적들은 이기는 싸움을 하루에 일곱번씩 하였다.

마침내 적들은 살수를 건너 평양성밖 30리 지점까지 기여들어왔다. 그러나 평양성의 방어는 철벽같이 든든하였기때문에 그 어디든지 찔러볼 엄두도 낼수 없었다. 적의 병졸들은 극도로 지치고 굶주렸으나 어디 가서 물 한모금, 낟알 한알 얻어볼수 없었다. 이미 청야전술로 백성들을 모두 성안으로 끌어들였고 우물이란 우물은 다 메웠으며 낟알 한알, 마초 한줌도 남겨놓지 않았기때문이였다.

그제야 적장 우문술은 청야전술과 유인전술에 걸려들었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참으로 진퇴량난이였다.

바로 이러한 때 고구려군영으로부터 을지문덕의 편지를 가지고 사신이 찾아왔다. 우문술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편지내용은 짤막하였다.

《그대가 군대를 철수시키면 그때는 귀군영을 방문하여 강화를 맺을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장의 종이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적혀있었다.

신통한 지략은 천문을 꿰뚫었고
기묘한 계책은 지리를 통달하였네
싸움은 이겨 공로가 이미 높거니
만족함을 알고 돌아감이 어떠하리

이 시가 어리석은 자기에게 깨고소한 비웃음을 퍼붓고있다는것을 깨달은 우문술은 분이 치밀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으나 어쩌는수가 없었다. 오히려 퇴각할 구실이 생긴것이 다행이기도 하였다.

하는수없이 적들은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을지문덕장군은 살수계선에 배치된 부대들에 물샐틈없는 포위

진을 치게 하는 한편 기병부대는 퇴각하는 적의 뒤꼬리를 붙잡고 파도식으로 계속 추격하도록 명령하였다.

적들은 넋을 잃고 허둥지둥 도망쳐 살수계선에 도착하였다.

마침 여러날동안 내린 장마비로 불어난 강물은 뚝이 넘쳐나게 흐르고있었다. 그러나 적들은 살든죽든 소용돌이치는 강물에 들어서지 않을수 없었다.

적들이 사정없는 물살에 밀리면서 절반쯤 강물을 건넜을 때였다.

공격을 알리는 천둥같은 북소리가 둥! 둥! 둥!… 울렸다.



앞뒤에서 고구려의 기병과 보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쏟아져나갔다. 달려나온 고구려군은 적진을 가로세로 토막을 치고 짓조겼다. 적들은 칼에 목이 떨어지고 창에 찔려 쓰러졌다. 우박처럼 쏟아져날아오는 돌이 적들의 머리를 바스러뜨렸다. 강복판에 들어섰던 적들은 기슭에 기여오르지도 못하고 화살에 맞아 물속으로 잠겨버렸다. 삽시에 강물은 적들의 피로 물들었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살수대첩(살수의 큰 승리)으로 불리우는 이 싸움은 이처럼 고구려군의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료하를 건너올 때 30만 5 000명이였던 수나라군대에서 살아돌아간 적은 겨우 2 700명뿐이였다.

이 전쟁에서 거둔 고구려군의 빛나는 승리는 애국적인 고구려 군민의 용감한 투쟁과 함께 을지문덕장군의 뛰여난 전략전술과 애국적인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속담]

○ 구름없는 하늘에 비올가.
　원인이 없이 결과가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는 말.

○ 김 안 나는 숭늉이 덥다.
　아는것이 많고 무슨 일이나 잘하는 사람은 제 잘났다고 까불지 않는다는 말.

말하기교재

37. 언제나 안고사는 마음

여러분!

방실방실 꽃들이 웃고 쪼롱쪼롱 고운 새들이 노래하는 우리의 공원이 어떻게 마련되였는지 아십니까?

아침이면 둥근 해님이 창문가에 제일먼저 찾아오고 저녁이면 반짝별들이 추녀밑에 대롱대롱 맺히는 구름우에 둥실 솟은 우리 사

는 집들이 어떻게 마련되였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은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결에도 매캐한 화약내가 풍기는 전후복구건설시기 불탄 산에도 봄은 찾아와 모란봉기슭엔 떨기떨기 진달래가 피여나고 부서진 추녀밑에 제비들이 날아와 둥지를 틀던 류달리 맑은 날이였습니다.

그날은 너무도 일찌기 김정숙어머님을 잃은 슬픔을 안고 온 나라의 마음들이 어머님의 산소를 찾아 꽃다발 안고 달려가던 날이였습니다.

3년간 전쟁의 그 어느 하루도 잊은적 없었던 어머니! 어머님을 뵈오러 가는 이날은 나어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손꼽아 기다리시던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위대한 대원수님께선 어깨에 삽을 메시고 어머님의 산소로가 아니라 복구건설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정원을 나서시는데 어린 동생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던 백리향이랑 은방울꽃이랑 손에 꺾어들고 꽃다발을 만들던 동생이였습니다.

《오빠, 어디 가나?》

《난 복구건설장에 나가 일하고 올테니 네가 먼저 가거라.》

《싫어, 싫어. 오빠랑 함께 갈래…》

두발을 동동 구르며 도리질하는 동생의 맑은 두눈에 가랑가랑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린 동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다할수 있으셨고 동생이 바라는것이라면 그 무엇도 다 풀어주실 위대한 대원수님이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이번만은 그 청을 들어줄수 없으셨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오빠는 아버님께서 걱정하시는 복구건설장에 가서 일을 하고 온다고 어머님께 말씀드려라, 그러면 어머님께서도 기뻐하실것이다라고 하시며 어린 동생을 달래시였습니다. 그처럼 졸라대던 동생도 위대한 대원수님의 가슴뜨거운 말씀에 슬그머니 옷자락을 놓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다박다박 정원길을 걸어가는것이였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과 동생에 대한 생각으로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저 멀리 어머님 계신 하늘가로 눈길을 보내시였습니다.

그러나 푸른 하늘엔 흰구름만 둥둥 떠갈뿐이였습니다. 순간

위대한 대원수님의 가슴속에는 뜨거운것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다정하신 어머님의 맑고 부드러운 그 목소리가 아득한 공간을 타고 금방이라도 들려오는것만 같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삽자루를 으스러지게 틀어쥐시고 복구건설장으로 향하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날의 위대한 대원수님의 높은 뜻을 안고 평양은 재더미속에서 다시 솟아났고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락원의 도시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웅장화려한 수도의 모습을 보며 오늘의 행복을 생각할때마다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의 숭고한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옴을 금치 못합니다.

자신보다 먼저 인민을 생각하시고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어찌 한시인들 잊을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뜨거운 마음을 언제나 가슴속에 소중히 안고살며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위대한 대원수님의 높은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것입니다.

△ 구연

구연이란 어떤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자신이 겪은것처럼 생동하게 이야기하는 예술의 한 형식이다.

구연은 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구연을 형상적으로 하자면 먼저 구연의 사상적내용을 잘 알고 자기 말로 자연스럽게 하여야 한다. 구연에서 글을 읽는감을 주거나 남의 말을 빌려온감을 주게 되면 감동을 주지 못한다.

구연을 형상적으로 하자면 다음으로 내용에 따라 말투, 소리빛갈, 속도, 어조, 억양을 그때그때 잘 바꾸어야 한다.

특히 구연내용에 알맞게 얼굴표정, 몸움직임을 잘하여야 한다.

38. 영원한 태양의 해발

얼마전 우리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뜨거운 흠모의 마음을 안고 김정숙동지혁명사적관을 찾았다.

우리는 먼저 끝없이 경건해지는 마음을 안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동상을 찾았다.

오각별 빛나는 군모를 정히 쓰시고 사연깊은 권총을 간직하신채 216송이의 진달래를 정답게 안으시고 서계시는 어머님의 거룩하신 영상!

우리는 어머님의 동상앞에 정성담은 꽃다발을 드리고 사적관으로 들어섰다.

강사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총서관에 들어선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한벽면 가득히 펼쳐진 불멸의 영상을 우러렀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언덕에서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아드님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과 함께 해방의 새봄을 맞으시는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

해방의 새봄을 위해 어머님께서 온갖 간난신고를 무릅쓰시면서 바치신 심혈은 그 얼마이시며 그 길에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또 얼마이시랴!

우리들은 커다란 흥분과 격정에 휩싸여 김정숙어머님의 빛나는 영상을 오래도록 우러러보았다.

우리는 강사선생님을 따라 8호실에 들어섰다.

웃단에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을 목숨으로 지킵시다!》라고 하신 어머님의 말씀이 금문자로 빛나고 그밑에는 반혁명분자인 엄가놈의 죄행을 낱낱이 발가놓으시며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혁명사상을 옹호하여 견결히 싸우시는 어머님의 영상이 모셔져있었다.

귀기울이면 금시 어머님의 말씀이 들려올듯 하여 우리들의 가슴은 끝없이 뜨거워올랐다.

9호실로 발걸음을 옮긴 우리의 눈앞에 일제의 수많은 병력이 산과 들을 누비고있던 주체29(1940)년 여름, 안투현 다사하치기

(안도현 대사하치기)싸움터에서 한몸이 그대로 방탄벽이 되시여 위대한 장군님을 보위하시는 어머님의 불멸의 영상이 펼쳐졌다.

숭엄한 감정을 안고 영상앞에 다가선 우리는 강사선생님의 해설에 귀를 기울이였다.

《… 금시 시뻘건 불덩이가 날아올 위기일발의 순간,

〈사령관동지!…〉

다급한 웨침소리와 함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번개같이 앞으로 달려나가시며 자신의 온몸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막으시였습니다.…》

갈밭으로 은밀히 기여들던 적들은 순식간에 모조리 소멸되고 위험한 순간은 지나갔다.

그러나 어머님께서는 저도모르게 솟구쳐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금할수 없으시여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시였다.

천번중 아니 만번중 단 한번이라도 안될 일을 당한 자책의 눈물이였으며 아슬아슬한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한 기쁨의 눈물이였다.

혈전만리로 이어진 항일의 나날에는 위험이 순간순간 따랐다. 어머님께서는 그때마다 장군님의 안녕을 위하여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막아나서시였다.

적탄이 사령부로 집중되던 홍치하(홍기하)골짜기에서 우박치는 적탄을 뚫고 적들을 유인하신 이야기, 장군님께서 소부대를 이끄시고 먼길을 떠나실 때에 자신의 머리채를 신발에 깔아드리신 이야기, 어떤 조건에서도 배낭속에 콩이며 식초를 떨구지 않으시였고 늘 조선장을 만들어 장군님께 드리신 이야기…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어머님의 충실성은 티없이 맑고 깨끗한것이였으며 그지없이 지극한것이였다.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12호실에 들어섰다. 우리가 진렬대에 소중히 보관된 꽃이불, 색이 바래고 물이 날은 비단천우에 꼬리치는 금붕어며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수놓아진 이불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는데 강사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주체37(1948)년 10월이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흰종이에다 꽃도 그리시고 어항속의 금붕어도 그리시고 여러 상점에 다니시며 비단천도 사시면서 이불을 지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준비가 다되자 밤마다 이불등에 그림을 옮겨그리시고 한뜸두뜸 수를 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두달, 마침내 어머님께서는 꽃이불을 완성하셨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 꽃이불에 흠집이 없는가를 다시 확인하시고 그 이불을 위대한 장군님의 침대우에 정중히 펴놓으셨습니다.》

강사선생님의 이야기는 끝났으나 우리는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움직일줄 몰랐다.

정녕 이 세상에 오로지 한생을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으며 장군님의 혁명로선을 관철하는데 모든 힘을 다 기울이신 어머님 같으신분이 그 어디에 또 있으랴.

우리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빛나는 모범을 따라배워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충직한 참된 아들딸이 되리라 결의다지면서 혁명사적관을 나섰다.

읽기교재

39. 시 조

가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말아
걸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소냐
걸 희고 속 검은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 * *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아래 뫼히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를 높다 하더라

△ 문학작품의 종류와 형태

문학작품들을 보면 소설과 같이 작가가 사람들에게 생활을 이야기해주는 형식으로 보여주는것도 있고 서정시처럼 생활에서 받은 작가의 생각과 느낌을 직접 표현하는것도 있으며 희곡에서와 같이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으로 생활을 보여주는것도 있다. 그리고 이야기식으로 생활을 보여주면서도 자기의 느낌을 함께 나타내는것도 있다.

글들의 이 갈래는 작가가 생활을 그리는 방식에 따라 나누어진것이다.

문학작품의 종류란 이처럼 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그리는가에 따라 나누어지는 작품의 갈래를 말한다.

문학작품의 종류와 형태는 생활을 그리는 방식에 따라 갈라진다.

문학작품의 종류에는 서사적종류, 서정적종류, 극적종류, 서정서사적종류가 있다.

형태는 문학예술의 종류에서 갈라져나온 형식이다.

서사적종류에는 소설, 서사시, 동화, 우화와 같은 형태들이 있다.

서정적종류에는 서정시, 가사 등의 형태들이 속한다.

극적종류에는 극문학, 영화문학, 가극문학 등이 있다.

서정서사적종류에는 서정서사시, 이야기시 등이 속하며 수필, 기행문 같은 작품도 이 형태에 속한다.

40. 두 장군이야기

(이 작품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이야기에 기초한것이다.)

옛날 우리 나라 어느 바다가에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높은 산이 솟아있고 앞에는 넓은 바다가 펼쳐진 곳에 도래마을이 자리잡고 이산저산 골짜기를 씻어내린 시내물이 모여들어 바다로 흘러드는 곳에는 나루마을이 자리잡고있었습니다. 이 고장사람들은 조상때부터 살아오는 자기네 마을을 사랑하면서 용맹도 슬기도 다 여기서 키웠습니다.

그들은 억세게 뻗어나간 산발들의 장한 기상을 타고난듯 참으로 용감하고 슬기로왔습니다. 침략자들이 쳐들어오면 그들은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용감히 싸워 물리치군 했습니다.

얼마전부터 두 마을사람들은 내기를 시작하였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길러온 슬기와 힘을 남김없이 떨쳤습니다.

그러다가 대장들의 차례가 되여 무쇠장군과 샛별장군이 서로 겨루어보게 되였습니다.

드디여 두 장군이 말을 타고 나오자 허연 수염을 쓸며 장수골할아버지가 마주 걸어나왔습니다.

장수골할아버지는 두 장군을 보고《이제부터 내기를 시작하겠네. 그럼 저앞을 내다보게.》 하고 한손을 들어 바다쪽을 가리켰습니다.

바다가모래언덕에 우뚝 서있는 큰 나무말뚝 하나가 눈에 띄였습니다.

《이제 내가 저 말뚝을 쏘겠네. 내가 쏜 화살이 저 말뚝에 날아가 박히기 전에 말을 몰아 달려가서 그 화살을 막아보게.》

장수골할아버지의 말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글쎄 어떻게 날아가는 화살을 앞서 달려가 그것을 막아낼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내기를 보아왔지만 정말 이런 내기는 처음이였습니다.

먼저 샛별장군이 말을 타고 나섰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곧 쏘겠네.》

장수골할아버지는 활쏘기명수로 알려졌던 젊었을 때 솜씨를 사람들앞에 다시한번 보여주려는듯싶었습니다.

《핑!》 소리를 내며 화살은 하늘로 날아올랐고 말을 타고있던

샛별장군도 갑자기 말과 함께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뚝앞에서 무엇이 번쩍하는것 같아 바라보니 그것은 긴 칼을 손에 든 샛별장군이 아니겠습니까.

《야!》

장수골할아버지와 마을사람들은 말뚝앞으로 달려가 모래우에 두동강이 난 화살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몸집이 우람찬 무쇠장군이 쇠몽둥이를 휘두르며 말을 몰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장수골할아버지는 말뚝을 겨냥하고 또다시 화살을 하늘높이 올리쏘았습니다.

《핑》 하는 순간 사람들은 또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모래언덕 말뚝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바라보니 언제 벌써 그리로 달려갔는지 무쇠장군이 쇠몽둥이로 화살을 후려치고있었습니다.

그리로 달려간 사람들은 쇠몽둥이에 맞아 땅에 떨어진 화살쪼각들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장수골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쪽에서 꼬댁꼬댁 하는 다급한 닭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쪽을 바라보니 커다란 독수리 한마리가 닭을 채안고 하늘높이 솟구쳐오르고있었습니다.

그때 핑— 하는 소리와 함께 두개의 화살이 일시에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러자 하늘로 솟구쳐오르던 독수리가 날개를 접으며 갑자기 돌덩이처럼 땅으로 떨어져내려왔습니다.

《야!》

사람들은 두개의 화살이 박힌채 땅바닥에 곤두박혀 죽은 큰 독수리 한마리와 살아서 뛰여가는 닭을 바라보며 모두 혀를 찼습니다.

《과연 명사수들이군!》

장수골할아버지는 죽은 독수리를 잠간 들여다보고나서 군중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수골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하얀것을 꺼내들고 두 장군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자, 마지막내기네. 이번에는 이걸 저 담장너머로 넘겨보게.》 하고 장수골할아버지는 그 하얀것을 무쇠장군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하르르한 닭털이였습니다.

무쇠장군은 눈이 둥그래서 장수골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이것도 내긴가요?》

장수골할아버지는 무쇠장군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서 받게, 이 내기가 이래보여두 그리 수월한 내기가 아니네.》 하고 말했습니다.

무쇠장군은 하는수없이 닭털을 받아들기는 하였으나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한길 남짓한 담장너머로 손가락 두마디 기장도 안되는 조그만 닭털을 넘기라니 무쇠장군으로서는 너무도 어이없는 일로 생각되였습니다.

무쇠장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담장을 향해 닭털을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닭털은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머리우에 동동 떠올랐다가 나무잎처럼 나풀거리며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야, 요것 봐라!》

무쇠장군은 이상하다는듯 머리를 기웃거리며 닭털을 집어들더니 다시 던져보았습니다. 세번, 네번… 그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깨에서 우쩍 소리가 나도록 힘껏 던지기도 하였으나 힘을 넣어 던지면 던질수록 닭털은 한들한들 춤을 추며 돌아오군 했습니다.



집채만큼 큰 바위도 번쩍 들어 윙윙 내던지는 무쇠장군이였건만 이번에는 도저히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무쇠장군은 다른 뾰족한 수는 생각나지 않고 어깨죽지만 떨어지는것 같아 하는수없이 뒤로 물러서고말았습니다.

《허 참, 별 내기를 다해보는군!》

그는 물러서기는 하면서도 왜 이런 하찮은 내기를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혼자 두덜거렸습니다.

무쇠장군이 물러서자 장수골할아버지는 그 닭털을 샛별장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샛별장군은 닭털을 손에 든채 머리를 들어 바람새를 살폈습니다. 몹시 잔잔한 날씨였습니다. 바다도 잠든듯 고요하고 쏴쏴 설레이던 소나무숲도 숨을 죽인듯 고요했습니다. 사시나무마저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날씨를 살펴본 샛별장군은 닭털을 손바닥우에 살그머니 올려놓았습니다.

무쇠장군은 샛별장군도 뾰족한 수가 없이 자기처럼 창피나 당하고 물러설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샛별장군은 닭털을 올려놓은 손바닥을 가만히 입가로 가져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숨소리를 죽이고 샛별장군의 그 이상한 행동을 지켜보고있었습니다.

조용히 서있던 샛별장군의 두볼이 갑자기 불룩해지더니 후— 하고 입김을 내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손바닥우에 놓여있던 하르르한 닭털이 하늘로 떠올라 하느적거리며 담장우로 거침없이 날아넘어가는것이였습니다.

《야!》

두 마을사람들속에서

는 환성이 터져올랐습니다.

그 하르르한 닭털은 담장너머 푸른 잔디우에 살짝 내려앉아 지혜의 승리를 선포하는듯 나풀거리고있었습니다.

무쇠장군은 그만 자기가 내기에서 졌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쇠장군은 바위도 척척 들어 집어던지는 자기가 샛별장군한테 졌다는것이 너무나도 분해서 씨근거리며 담장밑에 우두커니 서있었습니다.

이때 장수골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등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사람은 힘도 세야 하지만 슬기도 다같이 있어야 하네.

산과 바다를 들어옮기는 힘이 있어도 슬기가 없이는 빛을 못내는 법이라네.… 그런데 슬기란 타고난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것도 아니라네. 무슨 일이나 덤비지 말고 찬찬히 깊이 생각하노라면 슬기가 떠오르는 법이지. 물론 적을 치자면 힘이 있어야 하지만 그 힘도 슬기를 가져야 더 큰 힘으로 되는거라네.》

장수골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무쇠장군은 얼굴이 벌개지며 그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뒤 무쇠장군도 용맹과 슬기를 다같이 키워 나무랄데 없는 장군으로 되였습니다.

[속담]

○ 화가 복이 된다.
뜻밖에 입은 화가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것을 이르는 말.

○ 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일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말.

41. 조선의 어머니

어머니는 흰옷 입으시고 동뚝에 섰나이다
푸른 고개 누른 신작로에
움직이는 하나의 모습—
오늘은 셋째아들이
인민군대에 나간답니다

한해전에 맏아들이 떠났고—
한달전에 둘째아들이 떠났고—
푸른 고개너머로
아들의 모습은 사라져도
어머니는 잊은듯이 서고만 있나이다

어느결에 귀밑으론 서리발이 지났는고
어머니의 한생은 길었던가 짧았던가
그믐밤같이 캄캄도 하였답니다
7월의 논밭에서 구수한 바람이 일어
어머니의 낯을 다정히 스칩니다

다만 8월의 그날부터 천지도 밝아
처녀시절의 봉선화도 보았답니다
그해 늦가을 남편의 무덤에서
좋은 세상도 못 보시고
옥사하시였다 목놓아 울었답니다

안개 내리는 아침마다
어머니는 이 동뚝으로 나오리다
고개길은 긴 한숨같이 사라지건만

어머니는 눈물없이 섰나이다
전쟁이 끝나기 전엔 눈물을 모르시리다

웨 이 나라의 어머니들은
눈물없이 아들을 싸움터로 보내노?
거리들이 마을들이 불속에 묻히였거니
묻지 말라 오 묻지 말라 어머니의 마음을
원쑤에게 향한 그 증오를 그 저주를!

다만 전쟁이 끝났을제야
마을 젊은이들이 전선에서 돌아올제야
어머니는 이 동뚝에 나와서
눈물로써 그들을 맞으리다
아들 삼형제 돌아오려니
저 푸른 고개를 바라보시리다

그러면 어머니의 정성이 뻗치고있는
저 푸른 고개로 기어코 아들들이 돌아오리다
원쑤를 즉치고 바다에 쓸어넣고
승전의 노래높이 돌아오는 아들 삼형제를
어머니는 흰옷 고이 입으시고
이 동뚝에서 눈물로써 맞으리다!

(조기천)

글짓기교재

42. 잊을수 없는 감격의 그날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전국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우리 세쌍둥이는 영광스럽게도 아버지대원수님을 만나뵙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였습니다.

저는 이날을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

이날 저녁 8시 정각!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습니다.

우렁찬 만세소리가 환영곡에 어울려 멀리멀리 퍼져갔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답례를 보내시였습니다.

일곱살인 저희들도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이윽고 공연이 시작되고 드디여 우리들의 차례가 되였습니다.

무대에 나선 우리는 아버지대원수님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자라온 나날들을 생각하며 목청껏 노래불렀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우리들이 무대에 나서자 선참으로 박수를 쳐주신분이 아버지대원수님이시였습니다.

그때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몸소 쌍안경을 드시고 우리들을 눈여겨보시더니 참 저 애들이 잘났소, 아주 잘났소, 저 애들이 저렇게 큰걸 보니 내 마음이 기쁘오, 저 애들을 잘 키워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겠소라고 하시며 또다시 박수를 보내주시였습니다.

공연휴식시간이였습니다.

한 간부선생님이 우리 세쌍둥이에게로 다가오더니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부르신다고 하면서 어서 가자고 손목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들은 너무 기뻐 깡충깡충 뛰였습니다.

우리들은 간부선생님을 따라 휴계실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들이《아버지!》하고 부르며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대원수님의 품으로 달려가자 만면에 환한 웃음을 띠우신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오, 너희들이 왔구나, 아버지라고 부를줄 다 알고 하시며 우리 세쌍둥이를 따사로운 한품에 안아주시였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을 데리고온 형은 왜 보이지 않는가고 하시면서 어서 데려오라고 하시였습니다. 이때 저의 큰형이 열려진 문으로 조용히 들어서며 아버지대원수님께 허리굽혀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서 오라 반기시며 옆에 있는 의자를 가리키시는것이였습니다.

우리 세쌍둥이를 한품에 안으시고 저의 형을 옆에 앉히신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상앞에 놓여있는 떡, 과자, 사과들을 우리에게 차례로 쥐여주시였습니다.

그때 철없는 우리들은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주시는대로 맛있다고 막 먹었습니다.

그러나 큰형은 너무도 감격하여 자기에게 준 떡을 그냥 든채로 아버지대원수님의 사랑에 목메여 또다시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떡을 먹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나이는 몇살이며 이름은 무엇인가고 다정히 물으시였습니다.

우리들이 나이는 일곱살이고 이름은 충금, 충일, 충성이라고 말씀올리자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참 좋은 이름이라고 하시며 너그럽게 웃으시였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목이 마르겠다고 하시며 손수 차를 부어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저의(충금) 옷에 차물이 흐른것을 보시고 몸소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시여 입술과 옷섶에 이르기까지 닦아주시였습니다.

진정 친부모의 사랑인들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이날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우리들과 헤여지기 서운하다고 하시면서 친히 사랑의 선물까지 안겨주시였습니다.

우리들이 선물을 안고 무대에 오르자 관중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어제일처럼 더더욱 눈앞에 선합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뜨거운 사랑에는 우리들이 로동당의 아들딸로 자라라는 크나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아버지대원수님의 뜻을 잊지 않고 혁명과업수행과 조직생활을 더 잘해서 대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읽기교재

43. 자라는 싹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큰 닭공장의 기사장이며 가금학박사인 류영호는 매일 오후 5시쯤 되면 창가로 다가가 정문으로 곧추 뻗은 구내길에 눈길을 모으군 한다. 닭알을 가득가득 싣고 줄지어 달려나가는 자동차들을 바라볼 때면 지난날의 일들이 감회깊이 되살아난다. 특히 류영호박사에게는 초급중학교시절의 꿈많던 나날들이 눈앞에 삼삼히 펼쳐진다.

영호가 초급중학교 2학년때였다.

학교소년단위원회에서는 조선로동당창건 10돐을 맞으면서 솜씨전람회를 열기로 하였다. 단위원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단위원회에 제기하신 문제였다. 영호는 이번 솜씨전람회에서 남다른 지혜를 보이고싶어 은근히 왼심을 쓰고있었지만 도저히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때 소학반 2학년생인 녀동생 영란이가 방문을 방싯이 열고 들여다보았다.

《오빠야, 왜 그렇게 멍청히 앉아만 있니? 모를게 있으문 단위원장오빠한테 물어보려마.》

영란이가 훈시조로 하는 말이였다.

영란이또래 아이들도 위대한 대원수님을 무척 따르며 모를것이 있을 때에는 주저없이 찾아가군 하였다.

(단위원장동무한테 찾아가면 좋은 생각이 떠오르도록 도와줄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허청간에서 닭울음소리가 요란스레 들려왔다.

룡강에 계시는 외할머니가 보내준 닭이였다.

도시에서 자라며 제 손으로 처음 길러보는 닭인지라 영호는 대단한 애착심과 호기심을 가졌다. 그런데 닭이 알까지 낳았다.

영호는 닭알을 들고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영란이에게 말하였다.

《이 닭알을 뒀다가 저녁에 아버지에게 드리자.》

《응, 그게 좋겠어.》

영란이는 닭알을 정성껏 종이로 감싸고 그우에 《아버지것》이라고 써놓았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영호를 찾아오시였다. 영호는 대원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철없이 닭알이나 가지고 놀던것처럼 된것이 부끄럽게 생각되였다.

《난 영호동무가 솜씨전람회에 내놓을것을 어떻게 준비하고있는가 해서 왔어.》

영호는 그만 머리를 푹 떨구었다.

솜씨전람회에 내놓을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닭알이나 들고서 희희닥거렸으니 말이다.

영호는 방금전에 있었던 일을 위대한 대원수님께 이야기해드리면서 닭알을 보여드리였다. 대원수님께서는 《아버지것》이라고 써놓은 알을 눈여겨보시다가 닭을 기르면 알을 받아서 좋다고 하시면서 더우기는 아버님에게 먼저 드리려는 그 마음이 기특한것이라고 칭찬하시였다.

그 칭찬의 말씀을 들은 영호의 머리속에 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나 이번에 닭기르기솜씨 보여줄가?》

《그것 참 좋은 생각을 했구나. 한번 잘해봐라.》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지지해주시자 영호는 사기가 나서 어깨를 으쓱거리기까지 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영호에게 댁으로 함께 가자고 하시였다. 저택의 정원에 들어서신 대원수님께서는 아담하게 꾸려진 닭장에로 영호를 데리고 가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닭장문을 열고 흰 수닭 한마리를 안아내시였다.

《이 수닭을 가져다 함께 길러라. 수닭이 있어야 알도 더 잘 낳구 또 그 알에서 병아리두 까나온단다. 자 어서 받아라.》

위대한 대원수님으로부터 종자닭을 받아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영호의 마음은 하늘을 날으는듯 기뻤다.

영호가 닭장안에 수닭을 넣으니 홀로 외롭게 지내던 암닭이 활기를 띠였다.

(단위원장동무두 적극 지지해주는데 닭장을 멋있게 만들어 솜씨전람회에 내놓아야지.)

그는 세멘트로 닭장바닥을 매끈하게 발라주고 굽도리에 파란 뼁끼칠도 하였다. 그런데 며칠후에 닭들이 죽지를 늘어뜨리고 설사를 하면서 알도 제대로 낳지 못하였다.

혹시 영란이가 독풀을 먹이지 않았나 하여 불러세워놓고 따져물었다. 그러나 영란이는 독풀을 먹이지 않았다 하며 이슬방울을 떨구었다.

영호는 닭들에게 테라미찐을 먹이려고 약국으로 뛰여갔다. 그러나 약국에는《쉬는 날》이라는 나무패쪽이 엄격한 보초병마냥 세워져있었다. 이제는 영낙없이 닭들을 다 죽이고말았구나 하고 생각하며 맥없이 뜨락으로 들어서던 영호는 뜻밖에 위대한 대원수님을 뵈옵게 되였다.

《영호야, 닭들은 다른 병에 걸린게 아니라 소화불량증에 걸렸어.》

영란이한테서 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닭장안을 살펴보시고 한눈에 모든것을 속속들이 꿰뚫어보셨던것이다.

《뭐? 소화불량증에 걸렸다구?!》

영호는 전혀 리해가 되지 않아 머리를 기웃거렸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러는 영호에게 그 원인을 쉽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수첩장에 닭의 소화기관을 그리면서 설명해주시였다.

《이와 같이 닭의 소화기관은 다른 동물들과 다른데 너는 닭의 소화제를 말끔히 없애버렸거든.》

영호는 살눈섭을 깜박거리며 생각을 더듬었다.

(그러니까 내가 닭장바닥만 깨끗이 하려고 생각하면서 삭임돌을 모조리 쓸어버린데 원인이 있었구나…)

한참만에야 자기의 무식을 깨달은 영호는 얼굴이 벌개져서 뒤더수기만 긁적거렸다.

《맞았어. 바로 그거야.》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스스로 깨달은 영호가 대견하여 밝은 미소를 지으시였다.

《우리 함께 대동강의 여울목에 나가서 모래를 한바께쯔 가져다가 닭장바닥에 깔아주자.》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처럼 손수 바께쯔를 들고 앞장서며 영호를 이끄시였다.

그날부터 닭들은 건강이 회복되였으며 다시 알을 낳기 시작하였다.

며칠후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또다시 영호를 부르시여 댁으로 데리고 가시였다.

영호의 가슴속에 보다 큰것을 안겨주고 그것을 새싹으로 움틔워 자래워주고싶으셨던것이다.

위대한 대원수님을 따라 서재에 들어선 영호는 두눈이 휘둥그래지며 입을 딱 벌렸다.

《히야! 굉장하구나!》

서재에는 수백수천권의 책들이 꽂혀있는것이였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책장에서《닭기르기》라는 책 한권을 영호에게 주시였다.

《이 책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보시다가 나에게 주신 책인데 네가 가져다봐라. 많은 지식을 얻게 될거야.》

책을 받아든 영호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슴이 막 들먹이였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런《닭기르기》책까지 보실줄은 정말 몰랐던것이다.

《다른건 몰라두 이 〈닭기르기〉책 같은거야… 닭은 농촌집들에서나 기르는건데…》

영호는 스스럼없이 속생각을 털어놓았다.

《영호야, 오늘의 농촌에만 머물지 말구 래일의 닭공장을 그려보란 말이야.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체 인민들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을 쓰고살게 하는것이 제일 큰 소원이라고 말씀하시였단다. …모든 사람들의 밥상에 닭알도 오르고 닭고기국도 오르게 하자면 지금처럼 수공업적인 방법으로 닭을 길러서야 되겠니. 공업적인 방법으로 길러야지…》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확신에 넘친 시선으로 영호를 바라보시였다.

《이건 절대로 환상이 아니란다. 머지않아 현실로 펼쳐지게 될거야. 나는 영호동무가 큰 닭공장의 기사장으로 자라나길 바란다. 물론 가금학기사로, 박사로!… 그래서 나는 이 책을 너에게 주고싶었단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영호의 가슴속에서 움트고있는 새싹이 더욱 뿌리깊이 내리고 실하게 자라올라 꽃이 활짝 피여나게 하고 거기에 알찬 열매가 맺히도록 해주고싶으시였다.

(야! 큰 닭공장의 기사장! 가금학박사!)

《단위원장동무!》

영호는 목이 꽉 메여 뒤말을 잇지 못하였다.

그는 《닭기르기》책을 두손에 정중히 받쳐들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높은 뜻을 담아 그으신 그 책의 밑줄들이 새로운 넋이 되여 영호의 심장속으로 흘러들었다.

드디여 솜씨전람회날이 왔다.

영호는 《우리 집 닭장》이라는 모형을 만들어 내놓았다. 자그마한 닭장안에 두마리의 닭이 들어있는 소박한 모형이였다.

《〈우리 집 닭장〉이라…》

아이들은 저저마다 발걸음을 멈추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앞으로 나서시며 말씀하시였다.

《모형솜씨는 아직 서툰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영호동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있는 크나큰 희망과 포부가 담겨져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닭장을 크나큰 닭공장으로 전변시키고 이 두마리의 닭을 수천, 수만마리의 닭으로 전환시키려는것이 영호동무가 간직한 희망이며 포부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모형의 의미를 깨우쳐주시자 아이들은 손벽을 치며 환성을 올리였다.

《야! 작은 닭장이 큰 닭공장으로!…》

《야! 두마리의 닭이 수천, 수만마리로!…》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영호의 어깨를 꽉 그러안으시였다. 이렇게 되여 움터오른 어린 싹은 기름진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따사로운 해빛을 따라 키돋움하며 자라올라 인생의 주렁진 열매를 맺게 되였다.

그 보람찬 인생은 귀중한 시절, 귀중한 유년기가 있었기때문이다.

(리봉림)

국 어(중학교 제2학년용)
4 판

집 필 리기형, 왕광수, 한춘옥,
교수 박사 문재홍, 부교수 리광섭

심 사 심의위원회 그 림 리선규

편 집 김송희 콤퓨터편성 김송희

장 정 류명심 교 정 리분희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교육도서인쇄공장

3판 발행 주체91(2002)년 8월 10일

4판 인쇄 주체101(2012)년 3월 1일 4판 발행 주체101(2012)년 3월 10일

교—11—보—192 값 10원